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and Spatial Mobilities of Creative Talents

2014. 12

연구진

오은주 (연구위원)

김도형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 문

최근 들어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과거 경제발전패러다임이 생산 요소의 투입을 강조한 것에 비해, 창조경제 패러다임은 사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및 지식의 투입을 더욱 중요시한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와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요체는 바로 인재, 특히 창조인재라 할 수 있다. 창조인재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창조인재를 유인·유지시킬 수 있는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인재의 특성과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창조산업이나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창조인재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군별로 창조인재의 수준과 창조인재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창조환경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인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창의적인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한 오은주(책임)·김도형 등 내부 연구진, 그리고 오승훈(서울대 석사과정) 외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 승 종

요 약

경제성장률의 둔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결핍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창조경제가 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2013.6.4)’ 등을 발표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인재와 창조환경에 대해 점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조경제 전략이 구현되어야 할 공간 단위인 지역 차원의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 특히 우리나라 창조인재의 행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창조인재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는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인재의 특성, 특히 창조인재의 지역 이동성과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입지 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은 창조인재 및 창조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창조인재·창조환경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은 국내 창조인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조인재의 분포 현황을 시·군별, 창조인재의 유형별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는 창조인재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제4장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과 창조성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창조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국내외 창조환경 조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창조인재 유인·유지에 적합한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3대 기본방향과 5개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2장 창조인재·창조환경 관련 이론 검토	6
제1절 창조인재와 창조환경의 개념	6
1. 창조경제의 개념	6
2. 창조인재의 개념	8
3. 창조환경의 개념	10
제2절 창조환경에 대한 이론적 접근	12
1. 창조환경의 유형별 특징	12
2. 창조인재의 선호 환경과 지리적 이동성	14
제3절 분석의 틀	21
1. 선행연구의 종합	21
2. 분석틀	23
제3장 창조인재 분포 및 창조환경 지원정책 분석	25
제1절 창조인재의 공간 분포	25
1. 분석개요	25
2. 시·도별 창조인재 현황	27
3. 시·군별 창조인재 현황	35
4. 종합	55

제2절 중앙정부 관련 정책 검토	57
1. 미래창조과학부	58
2. 문화체육관광부	63
3. 농림축산식품부	65
4. 국토교통부	67
제3절 실태 및 문제점	72
1. 창조인재의 수도권 집중 강화	72
2. 창조인재의 지속적 유출	73
3.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적 시스템 구축 필요	74
제4장 창조인재의 선호환경 분석	76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6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76
2. 설문조사 대상 지역의 이해	78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제2절 창조인재의 선호도 분석	81
1.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선호	81
2.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90
제3절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	106
1. 클러스터 환경과 직장 이동	106
2. 지역 특성요인과 주거 이동	109
제5장 창조환경의 조성사례	114
제1절 국내 사례	114
1. 사례 선정의 준거	114
2.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115
3. 기초자치단체 : 경남 창원시	120
제2절 국외 사례	124
1. 사례 선정의 준거	124
2. 중국 베이징시의 따산즈 798예술구	126

3. 영국 길포드시의 서리 연구단지	132
4.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22@프로젝트	13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5
제6장 창조환경 조성방안	148
제1절 기본방향	148
1. 창조인재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의 연계 개발 추진	148
2.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의 융·복합적 추진	149
3. 중앙-지방-민간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150
제2절 핵심전략 및 세부사업	152
1. 핵심전략의 개요	152
2.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전략	153
3. 도시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전략	155
4. 클러스터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전략	157
5. 클러스터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전략	158
제3절 추진체계 정비	161
1. 제도적 기반 구축	161
2. 재정 지원 방안	164
3. 협력적 사업체계 구축	165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69
제1절 요약	169
제2절 정책 제언	171
1. 기본방향	171
2. 핵심전략	172
3. 추진체계 정비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79
【부록 : 창조인재 매핑】	180

표 목 차



〈표 2-1〉 Florida의 창조인재 가설 내에서 주거 선호도에 대한 연구 특성	20
〈표 2-2〉 창조인재의 지역선택요인(ACRE 프로젝트)	21
〈표 2-3〉 창조인재 입지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종합	22
〈표 3-1〉 본 연구의 창조인재 분류	26
〈표 3-2〉 지역별 창조인재 집계 기준	27
〈표 3-3〉 전국 창조인재 수 현황	28
〈표 3-4〉 전국 시·도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	28
〈표 3-5〉 시·도별 창조인재 수 현황	30
〈표 3-6〉 시·도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31
〈표 3-7〉 시·도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33
〈표 3-8〉 시·도별 문화예술인력 현황	34
〈표 3-9〉 전국 시·군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	35
〈표 3-10〉 시·군별 창조인재 현황	37
〈표 3-11〉 창조인재의 증가 추세(2012년)	38
〈표 3-12〉 시·군별 창조인재 입지계수 및 변이할당효과(2012년)	40
〈표 3-13〉 전국 162개 시·군의 특징(LQ, 지역할당효과)	41
〈표 3-14〉 시·군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43
〈표 3-15〉 창조핵심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44
〈표 3-16〉 시·군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45
〈표 3-17〉 창조전문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47
〈표 3-18〉 시·군별 문화예술인력 현황	48
〈표 3-19〉 문화핵심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49
〈표 3-20〉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Moran's I 분석	51
〈표 3-21〉 시·군별 창조인재의 집중지 변화	54

〈표 3-22〉 창조인재 현황의 종합	56
〈표 3-2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59
〈표 3-24〉 연구개발특구의 4대 분야 및 정책과제	60
〈표 4-1〉 주요 조사내용	78
〈표 4-2〉 상암DMC의 사업내용	79
〈표 4-3〉 DMC지역의 종사자 현황(2013년 10월 기준)	79
〈표 4-4〉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1
〈표 4-5〉 응답자 특성별 지인들과의 만남(1년 기준)	82
〈표 4-6〉 응답자 특성별 정기적 모임의 유형	84
〈표 4-7〉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N=400)	86
〈표 4-8〉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응답자 특성별)	87
〈표 4-9〉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만족도(N=400)	88
〈표 4-10〉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만족도(응답자 특성별)	89
〈표 4-11〉 조사지역별 현 거주지 거주기간(%)	93
〈표 4-12〉 응답자 특성별 향후 이사계획	94
〈표 4-13〉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N=400)	98
〈표 4-14〉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응답자 특성별)	99
〈표 4-15〉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응답자 직업 특성별)	100
〈표 4-16〉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N=400)	102
〈표 4-17〉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응답자 특성별)	103
〈표 4-18〉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응답자 직업 특성별)	105
〈표 4-19〉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직장이동(N=400)	107
〈표 4-20〉 로짓모델 :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불만과 직장이직	108
〈표 4-21〉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주거이동(N=400)	110
〈표 4-22〉 로짓모델 :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과 주거지 변동	112
〈표 4-23〉 다항 로짓모델 : 목적지 유형별 주거지 변동의 영향요인	113
〈표 5-1〉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별 현황	119
〈표 6-1〉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154

〈표 6-2〉 도시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조성방안	156
〈표 6-3〉 클러스터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157
〈표 6-4〉 클러스터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조성방안	161
〈표 6-5〉 창조환경 조성계획의 도입에 따른 균특법의 개정	163
〈표 6-6〉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변화	165
〈표 6-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16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5
〈그림 2-1〉 현대경제에서의 창조성의 상호작용	7
〈그림 2-2〉 본 연구의 창조인재 개념	10
〈그림 2-3〉 창조환경의 개념	11
〈그림 2-4〉 창조사슬	16
〈그림 2-5〉 분석틀 :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그림 3-1〉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2012년)	36
〈그림 3-2〉 창조인재 입지계수 및 변이할당효과(2012년)	40
〈그림 3-3〉 시·군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44
〈그림 3-4〉 시·군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46
〈그림 3-5〉 시·군별 문화예술인 현황	49
〈그림 3-6〉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의 LISA 분석(2012년)	52
〈그림 3-7〉 SW융합클러스터 개념도	61
〈그림 3-8〉 지식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도	63
〈그림 3-9〉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추진체계	64
〈그림 3-10〉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개념도	66
〈그림 3-1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	69
〈그림 3-1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후 조감도	72
〈그림 4-1〉 업무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중요도(N=400)	85
〈그림 4-2〉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만족도(N=400)	88
〈그림 4-3〉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유(N=61)	91
〈그림 4-4〉 회사의 오송이전에 따른 주거지 이전 여부(N=200)	92
〈그림 4-5〉 상암 DMC의 현 거주지 이전 거주지역(N=200, %)	92
〈그림 4-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 거주지 이전 거주지역(N=200, %)	93
〈그림 4-7〉 상암 DMC의 희망 거주지역(N=98, %)	95

〈그림 4-8〉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희망 거주지역(N=64, %)	95
〈그림 4-9〉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중요도(N=400)	97
〈그림 4-10〉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만족도(N=400)	102
〈그림 5-1〉 부산시 초량 산복도로~북항 연결데크 조감도	116
〈그림 5-2〉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 현황도	117
〈그림 5-3〉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간	118
〈그림 5-4〉 창원시의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	120
〈그림 5-5〉 창동예술촌 골목길 지도	122
〈그림 5-6〉 창동예술촌 거리의 개선 전·후 경관 비교	124
〈그림 5-7〉 798예술구의 지리적 위치	127
〈그림 5-8〉 바우하우스 양식의 톱니바퀴형 건물의 내부와 외부	129
〈그림 5-9〉 798예술구 지역의 예술관련 시설 공간분포	130
〈그림 5-10〉 영국과학단지협회 회원 가입 수 추이(1985~2010년)	132
〈그림 5-11〉 영국과학단지협회에 가입한 과학단지 분포도(2012년 현재)	133
〈그림 5-12〉 서리 연구단지가 소재한 길포드시의 지리적 위치	134
〈그림 5-13〉 서리 연구단지의 전경(좌)과 위성사진 모습(우)	136
〈그림 5-14〉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위치	139
〈그림 5-15〉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전경	140
〈그림 5-16〉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현황도(2012년 6월 현재)	140
〈그림 5-17〉 22@바르셀로나 용적률 인센티브 개념, 적용 이전과 이후 조감도 ..	141
〈그림 5-18〉 22@바르셀로나의 지식기반 클러스터 공간 구상	142
〈그림 5-19〉 22@바르셀로나의 4대 핵심산업 공간연계 및 클러스터 구축	142
〈그림 5-20〉 22@바르셀로나의 미디어&ICT 클러스터 내 유치기업 현황(2006-2010) ..	144
〈그림 6-1〉 창조환경 조성 핵심전략	152
〈그림 7-1〉 창조인재의 분포현황	181
〈그림 7-2〉 창조핵심인력의 분포현황	182
〈그림 7-3〉 창조전문인력의 분포현황	183
〈그림 7-4〉 문화예술인력의 분포현황	184
〈그림 7-5〉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의 LISA 분석(2008년)	18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20세기 후반 들어 전세계적으로 창조산업,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왔다. 창조경제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창조성에 기반하므로 호혜적인 사회개발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탈제조업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청년실업 증가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 수준을 알 수 있는 산업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0억 원당 7.8명에서 2005년 6.0명, 그리고 2010년에는 4.7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고용창출과 관련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송중국, 2013). 그에 따라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용유발효과는 낮은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도입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변화에 조응하여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2013.6.4.)의 발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조경제 전략이 구현되어야 할 공간 단위인 지역에서 창조경제 실행을 위한 정책 방향이 모호한 실정에 있다.

한편 학술적으로도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인재와, 창조인재를 유인하

고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창조환경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계에서의 주요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서구 탈공업화, 고용 없는 성장을 먼저 겪은 국가를 중심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조산업,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창조성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인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인 창조인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창조인재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지(클러스터) 주변의 환경적 요인들과 창조인재를 유인하는 도시적 환경 요인들을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조인재의 선호환경에 대한 수요를 이해함으로써, 향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창조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유지(retention)시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목적 하에 창조인재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인(attraction)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조인재를 유인·유지시키는 창조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인재의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활동을 하는 인력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Florida(2002; 2005) 등이 사용해왔던 직업분류의 방법으로 창조인재를 살펴보도록 한다. 창조인재 구분에 있어서 직업분류를 활용하는 이유는 창조인재들이 창조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창조적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구분을 아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창조경제가 문화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의 창조성 증진, 융합증진 목표로 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 범위로는 먼저, 창조인재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환경에 대한 개념적 틀

을 구성하도록 한다. ‘창조환경’, ‘창조인재’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관련된 경험연구들을 분석하여 창조환경에서 창조인재를 유인하는 요인들과 유치된 창조인재의 창조적 능력을 증진시키고 창조인재가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잠재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조인재의 지리적 분포현황을 개략적이거나 살펴봄으로써 창조인재의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의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시·군 형태로 존재하므로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즉 서울,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였다. 창조인재에 대한 시·군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 창조인재의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조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창조인재는 과학기술형 창조인재, 문화예술형 창조인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창조인재의 하위 유형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외사례는 해당 유형에 근접한 창조환경 조성노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넷째, 창조인재를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실시하여 창조인재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창조인재 유인 및 창조성 증진들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해당 설문조사를 통하여 창조인재의 입지선호도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체계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안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형 인재가 특정 지구 내에 집중해 있는 오송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문화예술형·IT형 인재가 집중해 있는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를 문화예술인력, 이공계연구자, 그리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비록 기술인력과 이공계연구자에게 대학 등의 기본

배경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기업체에 종사하는 이공계 인재들의 업무와 그에 따른 창조성은 연구소에 종사하는 이공계 인재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창조인재의 특성 분석과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창조인재의 지역 내 유인과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도록 한다.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창조인재의 특징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논의는 Florida(2002)나 Landry(2000)의 창조인재, 창조도시 논의 속에서 일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창조인재의 유형별 특성이나 창조인재를 유인하는 창조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최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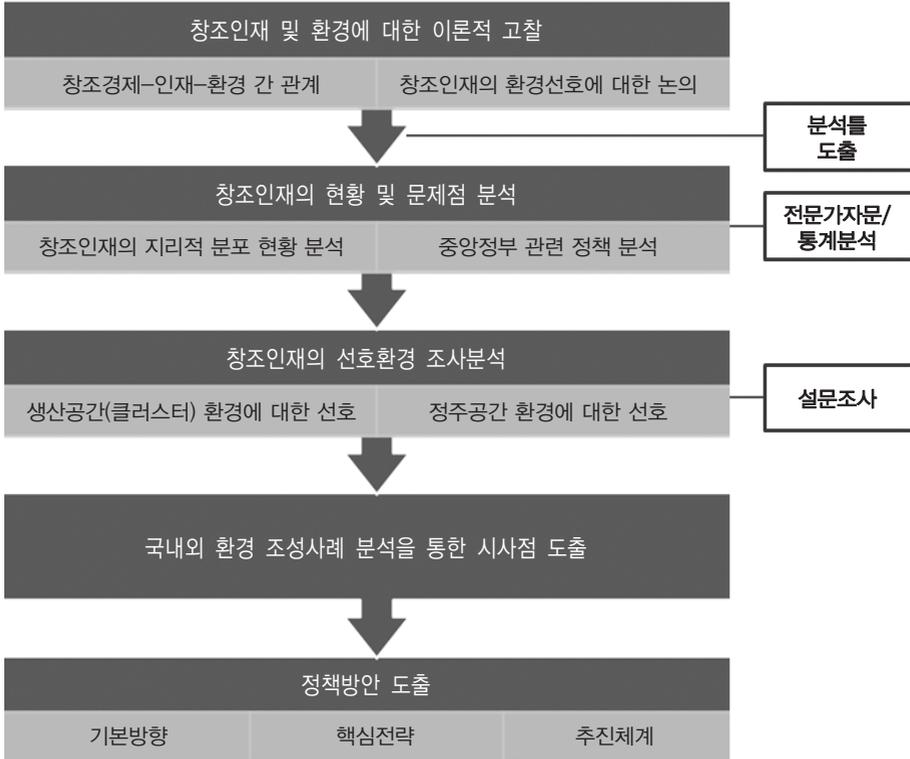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도 주로 창조산업에 대한 논의, 창조성과 창조도시·도시경쟁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행위자인 창조산업 종사자(즉 창조인재)들 간 네트워크, 창조산업 사업체 간 네트워크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들(고정민, 2009; 구문모, 2005; 강병수, 2009; 오은주, 2011; 이희연, 2008a; 최해욱, 2011; 권오혁, 2013)이 있었다. 한편 창조경제의 공간적 구현과 관련하여 창조도시 및 창조성에 대한 개념 정의(이희연, 2008b)가 연구되거나 시·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창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창조성 지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김영인·여홍구, 2009; 박진경, 2011; 이용준 외, 2012; 장재홍 외, 2006).

최근에 들어서는 창조인재(김은란, 2010; 김홍주·박기풍, 2010; 구문모·박정수, 2014; 전지훈, 201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창조인재의 분포 현황과 집중 정도 등에 대한 현상기술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인재의 입지적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지역 여건과 창조인재의 창조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적이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창조인재·창조환경 관련 이론 검토

제1절 창조인재와 창조환경의 개념

1. 창조경제의 개념

창조인재와 창조환경이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므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가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인식¹⁾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 아직까지는 다양한 의미로 개념화되고 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John Howkin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Howkins(2001)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비범한 가치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creativity)과 ‘경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결합하는 경제패러다임을 뜻한다. 즉, 인간의 아이디어가 구현되어 새로운 창조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스템이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창조성을 발현시키는 인재와 창조성을 유인하고 상호작용시키는 창조환경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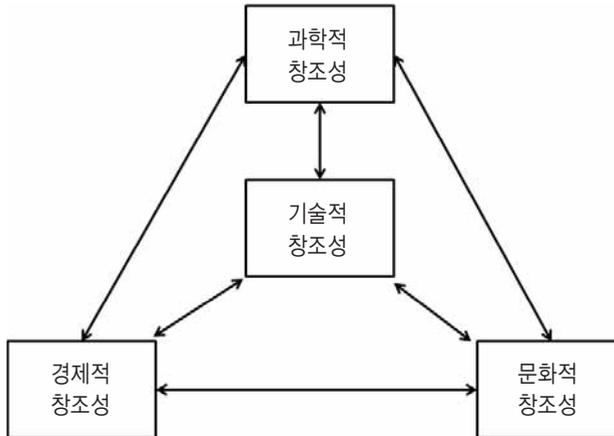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협의의 관점에서는 국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광의적 개념은 인간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과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창조인재에 대한 20세기 후반 이래 국가경제의 발전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오고 있다. 창조경제는 1990년대 영국과 호주를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일본, 미국 등으로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상정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 경제정책의 동일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차두원, 2013).

이러한 광의의 창조경제 개념에 대하여 Coy(2000)는 창조경제가 20세기 산업 경제를 대체하는 21세기형 경제사회형태라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게 되는 창조경제 시대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거대기업들이 그 지위를 잃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과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2008; 2010)도 ‘창조경제는 창조적 자산(creative assets)에 기반하여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창조경제에서는 여러 창조성들이 작동하면서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한다(<그림 2-1> 참조). 창조경제 하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적 창조성이나 과학적 창조성이 경제적 수익원리에 입각하여 재처리·재창조되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생산되며, 특히 현재 창조경제는 현대의 기술적 창조성을 매개로 예술적·과학적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림 2-1〉 현대경제에서의 창조성의 상호작용



자료 : KEA European Affairs(2006: 42), UNCTAD(2010: 3)에서 재인용

학자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창조경제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성들이 상호융합하면서 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창조적 자산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상품으로 구현하여 창조성을 발휘하는 창조인재의 존재 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창조인재의 개념

전술하였듯이, 창조인재는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가치 있는 인재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경제적 상업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최초로 창조인재(creative class)라는 용어를 사용한 Florida(2002: 8)는 창조인재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직무가 의미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다면 그 사람이 창조인재’라는 다소 모호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창조인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으나, 경험분석을 위하여 구체적인 창조인재 유형화작업을 진행시켰다.

그에 따르면, 창조인재는 슈퍼창조핵심인력(super-creative core)과 창조전문인력(creative professionals)으로 구분될 수 있다(Florida, 2002). 슈퍼창조핵심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창조적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Florida, 2002: 8)들로서 직업적으로는 예술, 디자인, 미디어 분야의 과학자, 공학자,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 해당된다. 한편 창조전문인력은 슈퍼창조핵심인력을 보조·지원해주는 사람으로서, 법률, 경영, 회계, 금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차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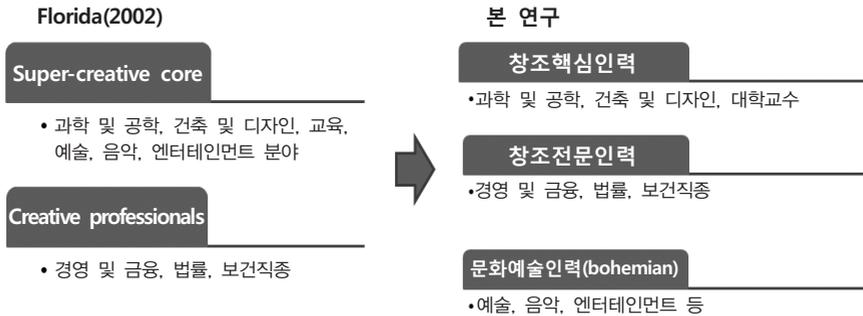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Florida(2002)의 창조인재 개념을 차용하도록 하는데, 그의 창조인재 개념이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그의 창조인재 개념은 종사직무에 따른 직업적 분류이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 즉 창조성의 내용과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인력에 대한 직업적 분류와 반하는 것으로 산업적 분류가 존재한다. 예컨대, 창조산업 종사자를 창조인재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창조인

재에 대한 산업적 분류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 창조산업에는 다양한 성격의 종사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창조산업의 하나인 IT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도 정규화된 IT 서비스영역의 고객을 접하는 사람은 창조성을 발휘한다고 보다는 보편적인 매뉴얼에 따라 고객을 대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창조성으로 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의미에서의 창조인재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만약 창조산업 종사자를 창조인재로 구분한다면 창조인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분석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창조인재의 핵심 개념이 ‘창조성’을 생산·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조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도 창조인재는 존재한다. 예컨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공헌하는 과학자나 상품개발자들은 창조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조인재에 대한 직업 구분은 전통적인 인력이론인 인적자본론(Becker, 1962)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재와 구분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적자본론의 인재는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교육투자가 많은 사람과 지역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이 접근에서의 인재는 교육훈련비가 많이 지급된 인력, 즉 교육수준에 따라 종사자를 구분된다. 인적자본론의 경험연구들은 대체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받은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차별성을 연구한다. 이에 비하여 창조경제 접근의 창조인재는 교육수준의 구분이 아니라 해당 경제활동인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특히 창조적 아이디어나 지식을 활용하는 생산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창조인재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Florida(2002)의 창조인재 범위를 수용하되, 슈퍼창조핵심인력에서 문화예술적 기능이 강한 창조인재를 별도로 선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각 클러스터 환경 및 노동여건 등의 측면에서 문화예술가들과 과학기술자들이 상이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여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한다.

〈그림 2-2〉 본 연구의 창조인재 개념



3. 창조환경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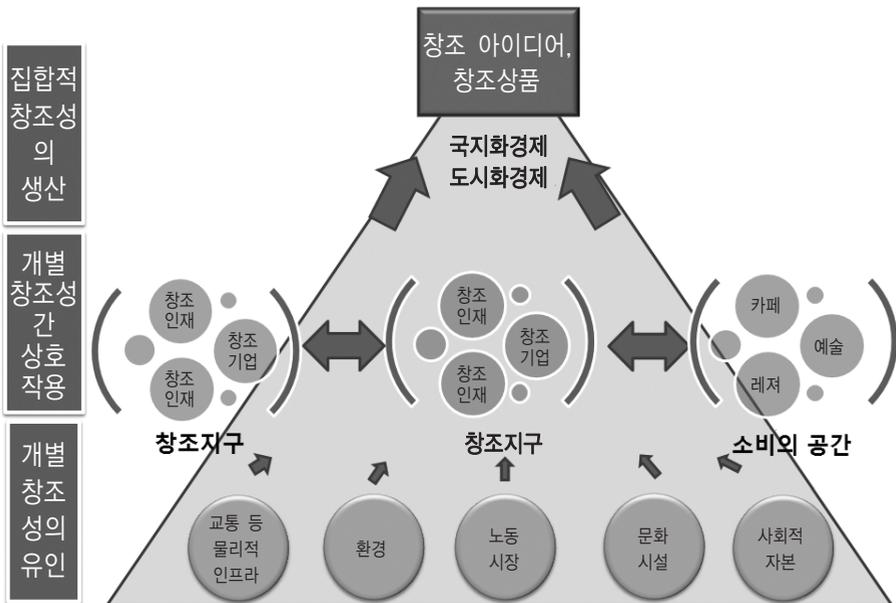
창조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인력양성, 과학기술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창조환경이라 할 수 있다. 창조환경은 창조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창조성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일정 총량(stock)을 유지하면서 유통(flow)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관점이 모호하듯이, 그 지역적 규모나 구성요소 등의 측면에서 창조환경에 대한 개념도 매우 다양하며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창조환경을 창조경제가 실행되고 창조인재가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창조환경은 지역의 규모가 지구 단위이든 시·군 단위이든 창조성을 유인하고 창조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적 결과물의 생산을 촉진하는 장소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에 입각한 창조환경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 첫째, 창조인재, 창조기업, 지식 등 원자적 형태(atomic)로 존재하는 개별 창조성을 유인하고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기능을 수반하는 인프라가 존재한다. 둘째, 개별 창조성들 간의 상호작용이 촉발(ignite)되는 공간으로 창조지구와 창조지구 간, 그리고 창조지구를 떠난 공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지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에 기반한 클러스터 형태의 창조환경을 창조지구로 명명

하기로 한다. 창조환경에서는 단일 지구 내 창조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within cluster)도 존재하며, 단일 창조지구와 무관하게 다양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상이한 클러스터 간 상호작용(across cluster)이 모두 발생하는 장소와 흐름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셋째, 해당 장소와 흐름의 공간으로 인하여 도시화경제, 국지화경제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집합적 창조성이 발생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와 상품이 개발된다.

〈그림 2-3〉 창조환경의 개념



제2절 창조환경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창조환경의 유형별 특징

창조환경은 창조성이 발현되고 교류하는 지역의 단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 단위에서의 상호작용은 국지화경제, 도시화경제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것이다.

창조환경의 첫 번째 유형은 일정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특정 창조적 활동과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창조환경은 창조산업생태계(김영수, 2013), 창조산업클러스터(고정민, 2009; 권오혁, 2013), 창조지구(고정민, 2009)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상기 창조산업 생태계, 클러스터, 창조지구 등의 용어는 산업적 관점에서 특정 규모의 창조환경을 의미하며, 창조경제 개념이 창조산업에서 기원하였으므로 가치사슬 상에 존재하는 창조산업 부문 내 행위자들인 공급자, 경쟁자, 고객들이 특정 지리적 집적 지역 내에서 생태계를 구성하여 원활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산업클러스터도 창조환경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단위의 창조환경은 창조인재들이 연구개발과 창작, 기획과 취미활동, 자가 소비, 과시적 시연 등의 활동을 하는 생산공간으로, 창조인재들 간의 상호교류, 공동작업, 공동 공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성을 유인한다. 또한 창조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인 창조기업과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제한적인 지리적 영역에 소재하면서 지리적 근접성 덕택에 쉽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창조성이 원활하게 교환되어 새로운 창조성을 유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전통적인 집적경제 중에서 국지화경제의 이점을 갖는다.

창조환경의 두 번째 유형은 도시 단위에서의 창조환경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한 클러스터 단위의 창조환경이 직접적인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국지화경제를 강조하였다면, 도시 단위의 창조환경 개념은 다양성에 기초하여 ‘관찰’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도시화’경제의 이점을 강조한다. 대표적

으로 Jacobs(1985)는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에서 도시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시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으며 이질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쉽게 창출·유통되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의 개방성과 도시 내 행위자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창조성이 개발·증진됨으로써 국가의 부는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는 모두 창조환경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사사키 마사유키(2008)도 창조환경의 지역 단위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창조도시에 대해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로,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창조도시이기 위해서는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보장하면서 상호유연하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도시가 창조적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함을 언급하였다(사사키 마사유키, 2004). 첫째, 예술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즉 도시 내 다양한 요소들, 문화와 예술, 기업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코디네이터가 창조도시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인간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 연결점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비영리조직에 의해 육성된 네트워크는 자생적인 주민참가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한 다른 문화와의 교류, 현대의 첨단기술 및 예술과의 만남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고유한 환경은 전통적인 도시공간과 근대 산업의 유산을 보존하고 재생·이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사키 마사유키에 따르면 ‘문화’라는 요소가 창조도시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창조적 역량, 지역의 창조적 기반, 그리고 창조성이 표현·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 도시계획학자인 Landry(2000)는 창조환경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다

양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Jacobs(1985)나 사사키 마사유키(2004; 2008)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도시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Landray(2000)에게는 창조도시란 창조환경의 한 지역 유형일 뿐이다. Landry(2000)의 창조환경은 빌딩숲, 도시의 일부분, 또는 도시 전체일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의 ‘흐름’이 지속되는 장소가 바로 창조환경이며 그 규모에 따라 지구일 수도 있고 창조도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드웨어 인프라란 교통, 건강, 어메니티 등 지원서비스, 연구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기타 만남의 장소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흐름’을 촉진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상호연계, 인적교류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클럽, 비공식단체의 정기모임, 비즈니스 클럽, 마케팅협회 등 ‘흐름’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따라서 Landry(2000)에게 창조환경의 핵심적인 요소는 네트워크 역량이며, 고도의 신뢰, 자기책임, 그리고 비공식화 되어 있으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관습과 관행이 존재하는 환경일 경우에 창조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lorida(2002; 2005)는 창조도시나 창조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기보다 이러한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인재(talent), 관용(tolerance), 기술(technology) 등 3T를 구비하고 있는 도시가 창조경제 시대에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lorida가 말한 창조환경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인재이며, 이들은 문화적 독특성에 대해 개방적인 관점으로 관용(tolerance)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가 기술역량을 갖추에 따라 3T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았다.

2. 창조인재의 선호 환경과 지리적 이동성

창조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에 속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자원의 원활한 동원 등이 중요하지만, 특히 창조인재의 지역 내 유인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창조인재가 주거지 또는 업무공간으로 어떠한 입지환경을 선호하

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창조환경의 조성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창조인재의 대표적인 학자인 Florida(2005)는 창조인재들이 주거지나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다른 인력들보다 경제적인 유인 외에 문화환경적인 가치를 중요시 한다고 보는 창조인재가설을 주장한다.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창조환경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창조인재들이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Florida 2002). 첫째 많은 고용기회를 찾을 수 있는 두터운 노동시장이 있는 곳, 둘째 음악, 예술, 스포츠와 같이 문화 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한 생활양식, 셋째 사회적 활력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한 곳, 넷째 다양하고 편견 없는 사고방식을 이해하며 개방적인 분위기의 다양성, 다섯째 장소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독창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 등이 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입지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창조환경 내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결국 장소가 공간에 우선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창조인재의 지역 선택에서 경제적 기회나 주거비용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원되는 추상적 공간뿐만 아니라 창조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만족도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홍빈(2010)은 창조환경을 조성할 때 추상적이고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가 삶의 현장이며 장소를 매개로 삶의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Florida(2002; 2005)의 창조인재 지역선택에 대한 이론적 주장은 Landry(2000)와 다른 연구들에서도 수용되면서 창조인재 관련 사회문화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Castells(2001)은 좋은 주거와 도시 서비스, 양질의 교육시설과 세련된 레저 및 소비품들의 제공을 포함한 쾌적성이 주어진 지역 내에 창조인재들인 과학자, 기술자의 지속적인 유인에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창조인재들에게는 녹지에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 등과 같은 어메니티 환경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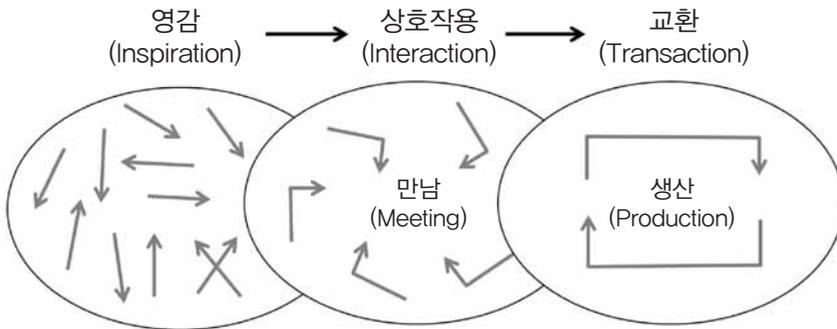
Gibson(1979)은 환경과 행태 간의 연관성을 환경의 지원성이라 지칭하면서 모든 지각 정서들이 지각자와 환경특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고 인식하였다. 이 이론에 기반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 요소로 기분전환을 위한 환경, 동기 부여 유발을 위한 환경, 즐거움을 위한 환경, 개인의 환경, 가변적 환경, 다양하고

의외적인 경험을 위한 환경,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창조인재의 창조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조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교류의 공간을 들 수 있다. 창조인재들이 각자가 영감을 갖고 있는데도 서로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감은 구체화되기 어렵고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창조인재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고 대화함으로써 추상적인 영감이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 속에서 서로의 영감을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서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이는 생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림 2-4〉 창조사슬



자료 : 박상필 외(2012)

Oldenburg(1997)는 공간적 측면에서 접근해 다양한 구성원이 활발하게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제3의 공간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정과 직장이 아닌 개인 간에 비공식적으로 자원하여 모이게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카페, 레스토랑, 서점, 가벼운 주점 같은 곳은 사람들이 생생한 즐거움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력을 제공하는 곳이라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Roberts(2006)도 교류공간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적

교류와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살롱, 레스토랑, 토론클럽과 같은 공공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창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창조인재의 지역 선택에 대한 사회문화요인이 전통적인 지역선택 요인들(거주비용, 직업 고용기회 등)보다 더 중요한가에 대한 경험 분석은 Florida의 창조인재가설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물며 창조인재가설을 주장한 Florida(2005)의 경험연구에서도 사회문화요인의 영향력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미국 대도시 MSA 단위의 통계를 이용하여 창조인재의 지역선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지표로 첨단산업, 쿨니스 지수(coolness index), 가구 중간소득, 문화적 어메니티, 레저 어메니티, 다양성, 분위기 등 7개 독립변수와 창조인재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이용된 다양성 변수는 게이 지수(gay index)였으며, 문화·레저·기후생태 어메니티는 매해 발간되는 Places Rated Almanac에서 평가된 MSA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문화 어메니티는 클래식 음악, 방송, 예술박물관, 갤러리 등의 문화적 요소를, 레저 어메니티는 스포츠, 골프장, 경마장, 동물원, 테마파크 등 야외활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쿨니스 지수는 인구 22-29세 연령 비율, 밤문화(바, 클럽), 문화(아트갤러리, 박물관) 등이었다.

회귀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다양성, 첨단산업, 가구중간소득, 레저 어메니티, 기후생태 어메니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어메니티와 쿨니스 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다른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경험분석 결과 창조인재가설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적 요소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창조인재 가설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Darchen and Tremblay(2010)도 캐나다 몬트리올, 오타와 지역의 창조인재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창조인재의 입지결정요인에 장소의 삶의 질이 고용기회의 가능성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창조인재에게 있어서도 경제적 기회가 지역 선택에 있어서 일차적인 우선순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소의 삶의 질 요소들이 창조인재의 유인

(attraction)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데 반해, 창조인재의 유지(retention)에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몬트리올, 오타와 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창조인재가 해당지역으로 이동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삶의 질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archen and Tremblay(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조인재의 유인과 유지에는 상이한 입지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조인재의 입지 특성 연구에 있어서 시간적 변화로서 이동(migration)의 개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렵게 인위적인 창조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산업을 유치한 지역들에게 있어서 유입된 창조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창조인재의 이동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Hansen and Niedomysl(2009)는 스웨덴을 대상으로 창조인재의 이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창조인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더 많은 이동을 하는지, 창조인재의 장소 선택이 선택적인지, 그리고 이동의 이유가 다른 직업군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조인재는 비창조인재에 비하여 더 높은 이동률을 보였으며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조인재가설과 달리 비창조인재들에 비하여 창조인재들이 직업의 고용 기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창조인재의 직업 요인들로 인한 이동의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Florida(2002), Hansen and Nideodomysl(2009), Darchen and Tremblay(2010)의 연구들에서 보면 경제적 기회와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들 혹은 경제적 기회가 창조인재의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창조인재의 반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산업의 높은 지리적 집중성 경향 때문이다. 개념적으로는 창조인재가 창조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종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창조인재와 창조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창조산업은 다른 자본집약적 산업이나 저차기술의 일상적인(routine)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창조인

제가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용 기회가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편 직업과 관련된 기회는 단순히 고용 기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Harvey et al.(2012)의 영국 농촌지역에 소재한 창조클러스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에 창조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의 공간’(space of opportunities)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 지역에 창조인재의 집중이 발생할 경우 여러 기회가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그것은 전략적 사업충성도(strategic business allegiances), 학습기회, 일련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의미한다. 창조인재들의 집중은 기존 창조인재의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인재의 유인도 가능케 하는, 기회의 공간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 기회의 공간이 창출될 만큼 일정 규모(momentum)의 창조인재가 존재하고 인재들끼리 상호 교류할 경우, 창조인재는 자신의 창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현 장소에 잔류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창조인재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Drake(2003)의 인류학적인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Drake(2003)는 금속공예 및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창조인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창조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스며 있는 장소가 창조인재의 심미적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창조성 증진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성(locality)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즉 시각적 원자료와 자극을 제공하는 자원으로서 지역성, 지역성 기반(locality-specific)의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명성(reputation)과 전통에 기반한 브랜드(brand)로서 지역성, 그리고 지역성 기반의 창조인재 커뮤니티 등이 이에 해당한다.

Lawton et al.(2013)은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에 있는 창조인재의 지역 선택과 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Florida의 창조인재 가설에 덧붙여 생애주기

(life-cycle)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요컨대 카페, 레스토랑, 도보환경 등 생동감 있는 거리문화(street culture)와 함께 결혼 여부 등의 생애주기 관련 요인이 창조인재의 지역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창조인재가 고용지 주변이 아니더라도 도시 센터를 선호하고, 나이 든 연령대의 창조인재는 교통접근성이 좋은 교외지역이나 고용지 주변에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Florida의 창조인재 가설 내에서 주거 선호도에 대한 연구 특성

장소의 차원	주요 요인
주거 선택 관련 일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인재의 생애주기 관련 선택에 포함된 입지요인 • 노후도 등 물리적 공간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 (자동차 관련) 민간 교통 또는 공공교통에 대한 근접성에 대한 낮은 관심 • 거주비용에 대한 낮은 관심
근린의 물리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창조인재의 주거지로 관심 대상은 아님 • “단조로운(monotonous)” 교외지역의 거부, 도심지역의 “authentic” 또는 리노베이트된 건물의 선호 • 소규모 구역 내 기능의 혼재(Jacobs) • 공공영역에서의 물리적 속성 강조(예, 레스토랑의 야외 테이블 등)
근린의 사회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정체성의 주요 특징으로서의 장소 •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의 보호 • 커피숍, 바, 레스토랑 등 소비지향적 공간의 선호 • 거리로의 소비공간 확장 • 자전거, 보행 친화적 공간
주택의 물리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물리적 속성에 관심 없으나 선호는 오래된 주택의 수복 선호, 로프트 선호, 작업-주거 일치공간 • 생애주기 관련 공간 변화에 대한 관심 적음 • 독신생활 중심의 연구
주택의 사회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 대한 관심 적음 • 생애주기가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없음

자료 : Lawton et al.(2013: 49)

한편 Martin-Brelot et al.(2010)은 유럽의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 “Accommodating Creative Knowledge – Competitiveness of European Metropolitan

Regions within the Enlarged Union”(ACRE) 연구 프로젝트에서 창조인재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창조인재는 Florida가 제안한 것만큼 비 창조인재에 비하여 이동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lorida와 창조인재가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달리, 창조인재의 지역선택에서 소프트한 입지요인이 아주 많이 중요하지는 않으나 재입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창조인재의 지역선택요인 (ACRE 프로젝트)

요 인	항 목
개인 경로 (trajectory)	고향, 가족 거주 여부, 대학졸업장소, 친구와의 근접성
Hard factor	직장 때문에 이동, 배우자 직장 때문에 이동, 좋은 고용기회, 높은 임금, 도시규모, 양호한 교통연계, 좋은 대학의 존재
Soft factor	기후/날씨, 자연환경으로의 근접성, 주거 affordability, 주거 availability, 주거 quality, 어린이 안전, 다른 사람에 대한 개방적 태도, 개방성 및 관용, 동성애자 우호성, 언어, 전반적인 우호성(friendliness), 레저와 오락에 대한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건조환경의 다양성

자료 : Martin-Brelot et al.(2010: 862)

제3절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종합

지금까지 창조환경의 개념과 창조인재의 입지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인 창조인재를 유인·유지시키는 창조환경의 요인들에 대하여 Florida의 창조인재가설에서 주장하는 사회문화요인의 중요성을 고려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경험연구의 분석 결과, 비록 직업 고용이라는 경제적 결정요인이 창조인재의

이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조인재가 지역내 잔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은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창조인재의 입지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 창조인재 입지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종합

구 분	정주공간 선택요인
Florida(2002)	- 두터운 노동시장(고용기회, 교류가능성), 보행환경, 문화어메니티(음악, 예술, 스포츠), 상호작용 공간, 개방성 및 다양성, 장소의 독특한 분위기 및 이미지
Castells(2001)	- 좋은 주거, 양질의 교육시설, 쾌적한 녹지환경, 도시서비스, 세련된 소비공간
Oldenburg(1997)	- 제3의 공간으로서 교류공간
Roberts(2006)	- 살롱, 레스토랑, 토론클럽
Florida(2005)	- 첨단산업, 가구중간소득, 기후생태어메니티, 레저어메니티(문화어메니티는 유의미하지 않음), 다양성
Darchen and Tremblay(2010)	- 고용기회(attraction), 삶의 질(retention), 관용, 개방성(유인과 유지의 차이를 언급)
Hansen and Niedomysl(2009)	- 고용기회, 대학(창조인재가 더 높은 이동률)
Harvey et al.(2012)	- 학습기회, 교류의 기회, 파트너와의 교류기회, 기회의 공간 → 창조인재의 추가적 유입 촉진
Drake(2003)	- 지역내 사회문화 네트워크, 지역내 창조인재 커뮤니티, 명성 등 지역브랜드, 지역성이 심미적 창조성의 자원, 지역성(locality)의 기능
Lawton et al.(2013)	- 창조인재의 생애주기(연령, 기혼여부 등)별 차이
Martin-Brelet et al.(201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이동, 고용기회, 높은 임금 - 양질의 대학, 교통접근성, 도시규모, 어린이 안전 - 레저 및 오락/문화적/건조환경의 다양성 - 다양성, 동성애자 우호성, 개방성, 전반적인 우호도 - 고향, 가족거주여부, 대학졸업장소, 친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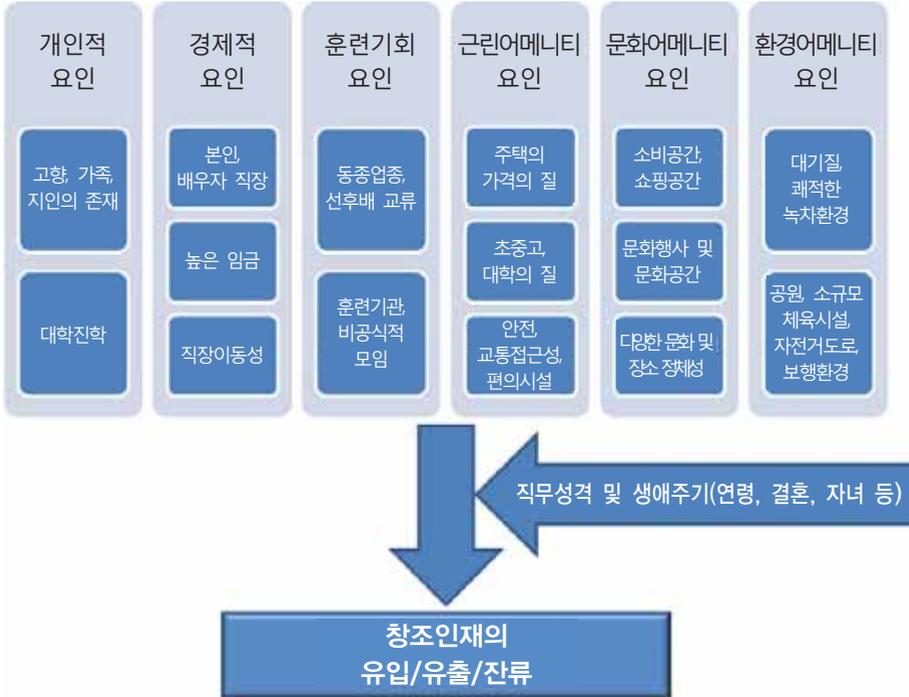
2. 분석틀

창조경제, 창조도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이들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창조인재의 입지선택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창조인재의 생애주기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입지선택을 보이고 있다는 경험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의 주거지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하도록 하며, 특히 창조인재의 개인적 특성(생애주기, 하위 직업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즉 개인의 특징에 따라 지역의 초기 선택과 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희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창조환경 요인들이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차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창조인재 유인과 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표 2-3> 참조), 지리적 선택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훈련기회 요인, 근린어메니티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등으로 재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해당 지역에 고향 등 연고가 있는지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에 따른 창조인재의 선택을 의미한다. 또한 창조인재들이 창조환경을 인식하는 데 실내 활동 및 교류와 관련된 공간은 문화어메니티에 포함시키며, 야외활동과 관련된 공간은 환경어메니티로 분류하였다.

〈그림 2-5〉 분석틀 :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장 창조인재의 분포 및 창조환경 지원정책 분석

제3장에서는 시도별·시군별 창조인재의 분포현황과 중앙정부의 창조환경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별 창조인재의 분포 현황은 창조인재 성장 지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창조인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특정 공간적 범위에서 창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들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1절 창조인재의 공간 분포

1. 분석개요

가. 창조인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기준으로 하여 창조인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인재를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등 3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창조핵심인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중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등으로, 창조전문인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중 공공 및 기업 고위직(11),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12), 전문서비스 관리직(13), 법률 및 고객서비스(26),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27)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력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중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으로 규정하였다.

〈표 3-1〉 본 연구의 창조인재 분류

구 분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표준직업 분류명	코드	표준직업 분류명	코드	표준직업 분류명	코드
한국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	전문서비스 관리직	13		
			법률 및 고객서비스	2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나. 자료 및 분석내용

창조인재의 공간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 조사가 있다.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의 최근 조사 자료가 2005년인데 비하여,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해 조사·발표되고 있어 2012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조인재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6차 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는 162개 시·군을 기준으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즉, 시·군 단위로 조사되고 있어, 서울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범위를 주요 기준이 창조인재의 통근권 범역에 해당되며 광역시는 하나의 통근권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시·군 단위의 분석이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한 지역 범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지역별 창조인재 집계 기준

구 분	시·도	시·군
구 성	전국 16개 시·도	전국 162개 시·군 (광역자치단체 7개, 기초자치단체 155개)
취업자 여부	1개월 내 구직여부가 0인 경우	1개월 내 구직여부가 0인 경우
가중값	승수 3의 합	광역자치단체 : 승수 3의 합 기초자치단체 : 승수 1의 합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시·도 및 시·군 창조인재 데이터 추출 과정은 지역별고용조사의 가중값을 합산하여 추출하였다. 2008년과 2012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의 가중값을 이용하였는데, 이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시·도와 시·군 기준에 따라 가중치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2008년과 2012년 4분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4주간 구직여부가 ‘0’인 경우를 취업자로 규정하여 분류하고, 시·도의 경우 지역별고용조사 가중값 중에서 승수 3의 합을 해당지역의 창조인재 수로 적용하여 집계하였다. 통계청이 권고하는 가중치 적용 방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고용조사 승수 3의 합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승수 1의 합을 적용하여 집계하였다.

2. 시·도별 창조인재 현황

가. 창조인재의 전국적 증가

전국 창조인재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전국 창조인재 수가 총 2,601,375명으로 전국 취업자 대비 약 10.7%를 차지하였고, 2008년에는 2,261,588명으로 전국 취업자 대비 약 9.6%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 평균 창조인재 변화율이 3.6% 증가했으며 취업자 대비 증가율은 2.8%를 나타내, 창조인재의 수와 취업자 대비 변화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유형별 창조인재 변화는 창조핵심인력과 문화예술인력의 증가가 두드러

진다.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의 비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4.5%에서 5.1%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3.3%에서 3.5%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8%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과 문화예술인력의 비중 변화율이 각각 3.0%와 3.6%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총 창조인재 증가율인 2.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3-3〉 전국 창조인재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창조핵심인력 수	창조전문인력 수	문화예술인력 수	창조인재 수
2008년	1,070,791 (4.5)	773,354 (3.3)	417,443 (1.8)	2,261,588 (9.6)
2012년	1,244,443 (5.1)	861,049 (3.5)	495,883 (2.0)	2,601,375 (10.7)
연평균변화율	3.8 (3.0)	2.7 (1.9)	4.4 (3.6)	3.6 (2.8)

주: ()안의 수치는 취업자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국 시·도 16개 지역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는 78.9명이며 중앙값은 69.4명, 표준편차는 36.0이다. 서울이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가 170.2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 두 지역의 차이는 134.5명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국 시·도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

단위: 명

빈도 (N)	평균	중앙값	최대	최소	범위	표준편차
16	78.9	69.4	170.2(서울)	35.7(전남)	134.5	36.0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나. 창조인재 하위유형별 변화

1) 전체 창조인재

2012년 전국 창조인재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창조인재의 절대적인 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들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의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창조인재의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서울의 창조인재 수는 855,473명으로 전국에서 창조인재의 절대수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794,619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지역의 창조인재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는 인천(150,975명), 부산(131,79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역시 서울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3.7%), 대전(12.3%), 인천(10.7%), 부산(8.0%)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의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중이 전체 3위, 비수도권 1위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변화율은 충남이 1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8.9%), 울산(6.1%), 대구(3.4%), 경북(3.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전 등 창조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2008년부터 이미 창조인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지역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전국 총 창조인재의 입지계수(LQ)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대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창조인재 LQ 변화율은 충남, 전북, 울산, 대구 등의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시·도별 창조인재 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12년			변화율
	인재 수	취업자 대비 비율	인재 수	취업자 대비 비율	입지계수 (LQ)	취업자 대비 비율
전국	2,261,588	9.6	2,601,375 (-)	10.7 (-)	-	2.8 (-)
서울	752,445	15.3	855,473 (1)	17.0 (1)	1.58 (1)	2.6 (8)
부산	114,018	7.3	131,795 (4)	8.0 (5)	0.75 (5)	2.6 (9)
대구	76,128	6.7	92,095 (6)	7.7 (7)	0.71 (7)	3.4 (4)
인천	124,483	9.7	150,975 (3)	10.7 (4)	0.99 (4)	2.4 (11)
광주	62,717	9.8	51,407 (10)	7.4 (8)	0.69 (8)	-6.8 (16)
대전	82,846	11.7	89,581 (7)	12.3 (3)	1.14 (3)	1.2 (13)
울산	33,525	6.3	42,773 (12)	8.0 (6)	0.74 (6)	6.1 (3)
경기	678,780	12.1	794,619 (2)	13.7 (2)	1.27 (2)	3.2 (6)
강원	33,205	4.7	34,804 (14)	5.2 (14)	0.48 (14)	2.5 (10)
충북	39,611	5.4	37,848 (13)	5.3 (13)	0.49 (13)	-0.5 (14)
충남	29,615	3.9	56,311 (9)	5.9 (10)	0.54 (10)	10.4 (1)
전북	32,496	3.9	45,183 (11)	5.4 (12)	0.51 (12)	8.9 (2)
전남	31,248	3.4	32,299 (15)	3.6 (16)	0.33 (16)	1.4 (12)
경북	67,506	4.8	72,896 (8)	5.5 (11)	0.51 (11)	3.2 (5)
경남	89,038	5.8	100,171 (5)	6.5 (9)	0.60 (9)	2.8 (7)
제주	13,920	4.8	13,146 (16)	4.3 (15)	0.40 (15)	-2.8 (15)

주 : () 안의 수치는 순위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2) 창조핵심인력

2012년 전국 창조핵심인력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창조핵심인력의 수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고, 경남, 부산, 대전 등의 비수도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비율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과 울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창조핵심인력의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기준 경기도의 창조핵심인력 수는 419,5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348,738명), 인천(77,826명), 경남(58,953명), 부산(58,28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역시 경기도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6.9%), 대전(6.9%), 인천(5.5%), 울산(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과 울산의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비율은 각각 전체 3위와 5위이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와 2위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의 변화율은 전북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울산(8.3%), 충남(5.6%), 인천(5.1%), 경북(4.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이들 지역의 창조핵심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창조핵심인력의 LQ는 경기도가 1.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1.33), 대전(1.33), 인천(1.06), 울산(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시·도의 창조핵심인력은 LQ가 1보다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시·도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력 수		취업자 대비 비중			입지계수 (LQ)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변화율	2012년
서울	290,811	348,738 (2)	5.9	6.9 (2)	4.0 (6)	1.33 (2)
부산	57,874	58,285 (5)	3.7	3.6 (7)	-0.9 (13)	0.68 (7)
대구	32,289	37,870 (8)	2.8	3.1 (9)	2.6 (8)	0.60 (9)
인천	57,775	77,826 (3)	4.5	5.5 (4)	5.1 (4)	1.06 (4)
광주	26,680	21,888 (11)	4.2	3.2 (8)	-6.8 (16)	0.61 (8)
대전	47,548	50,353 (6)	6.7	6.9 (3)	0.6 (11)	1.33 (3)
울산	20,268	28,146 (9)	3.8	5.2 (5)	8.3 (2)	1.01 (5)
경기	355,295	419,564 (1)	6.3	7.2 (1)	3.4 (7)	1.39 (1)
강원	14,324	14,769 (15)	2.0	2.2 (14)	2.1 (9)	0.42 (14)
충북	21,798	18,018 (13)	3.0	2.5 (12)	-4.1 (14)	0.48 (12)
충남	16,528	26,360 (10)	2.2	2.7 (11)	5.6 (3)	0.53 (11)
전북	14,370	19,951 (12)	1.7	2.4 (13)	8.9 (1)	0.46 (13)
전남	15,936	15,493 (14)	1.7	1.7 (16)	-0.2 (12)	0.33 (16)
경북	37,240	41,638 (7)	2.7	3.1 (10)	4.1 (5)	0.60 (10)
경남	54,567	58,953 (4)	3.5	3.8 (6)	1.8 (10)	0.73 (6)
제주	7,487	6,590 (16)	2.6	2.2 (15)	-4.5 (15)	0.41 (15)

주: () 안의 수치는 순위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3) 창조전문인력

2012년 전국 창조전문인력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창조전문인력의 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고 경남, 대구 등의 비수도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비율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과 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창조전문인력의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기준 서울의 창조전문인력 수는 305,7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240,081명), 부산(50,184명), 인천(44,385명), 대구(37,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역시 서울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4.1%), 대전(3.5%), 대구(3.2%), 인천(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과 대구의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비율은 각각 전체 3위와 4위이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와 2위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의 변화율은 충남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8.9%), 부산(6.6%), 경남(4.4%), 대전(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부산은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수와 변화율이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2년 창조전문인력의 LQ는 서울이 1.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1.19), 대전(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시·도의 창조핵심인력은 LQ가 1보다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시·도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력 수		취업자 대비 비중			입지계수 (LQ)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변화율	2012년
서울	282,836	305,720 (1)	5.9	6.1 (1)	1.4 (12)	1.75 (1)
부산	37,195	50,184 (3)	3.7	3.1 (6)	6.6 (3)	0.88 (6)
대구	31,888	37,929 (5)	2.8	3.2 (4)	3.0 (6)	0.91 (4)
인천	46,245	44,385 (4)	4.5	3.1 (5)	-3.4 (15)	0.90 (5)
광주	27,817	19,272 (10)	4.2	2.8 (7)	-10.7 (16)	0.80 (7)
대전	21,946	25,529 (7)	6.7	3.5 (3)	3.0 (5)	1.01 (3)
울산	9,960	10,869 (15)	3.8	2.0 (9)	2.0 (10)	0.58 (9)
경기	208,574	240,081 (2)	6.3	4.1 (2)	2.8 (9)	1.19 (2)
강원	12,705	13,578 (12)	2.0	2.0 (10)	3.0 (7)	0.58 (10)
충북	13,720	12,161 (13)	3.0	1.7 (13)	-2.4 (14)	0.49 (13)
충남	8,853	20,631 (8)	2.2	2.1 (8)	16.1 (1)	0.62 (8)
전북	10,728	14,908 (11)	1.7	1.8 (12)	8.9 (2)	0.52 (12)
전남	10,574	11,564 (14)	1.7	1.3 (15)	2.8 (8)	0.37 (15)
경북	21,850	20,507 (9)	2.7	1.5 (14)	-0.3 (13)	0.44 (14)
경남	25,301	30,176 (6)	3.5	1.9 (11)	4.4 (4)	0.56 (11)
제주	3,160	3,556 (16)	2.6	1.2 (16)	1.5 (11)	0.33 (16)

주: () 안의 수치는 순위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4) 문화예술인력

2012년 전국 문화예술인력 분포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인력의 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고 대전, 대구 등의 비수도권 대도시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비율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대구, 부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력의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기준 서울의 문화예술인력 수는 201,0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134,974명), 인천(28,764명), 부산(23,326명), 대구(16,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역시 서울이 4.0%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2.3%), 대전 (1.9%), 대구(1.4%), 인천(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과 대구의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비율은 각각 전체 3위와 4위 이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와 2위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의 변화율은 충북이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남(14.5%), 전북(9.0%), 경북(7.7%), 대구(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 등 충청권의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의 변화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2012년 문화예술인력의 LQ는 서울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시·도의 문화예술인력은 LQ가 1보다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시·도별 문화예술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력 수		취업자 대비 비중			입지계수 (LQ)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변화율	2012년
서울	178,797	201,015 (1)	3.6	4.0 (1)	2.4 (14)	1.95 (1)
부산	18,949	23,326 (4)	1.2	1.4 (6)	4.2 (8)	0.69 (6)
대구	11,951	16,296 (5)	1.0	1.4 (7)	6.6 (5)	0.66 (7)
인천	20,463	28,764 (3)	1.6	2.0 (3)	6.3 (6)	0.99 (3)
광주	8,221	10,247 (10)	1.3	1.5 (5)	3.5 (9)	0.72 (5)
대전	13,353	13,699 (6)	1.9	1.9 (4)	-0.2 (15)	0.92 (4)
울산	3,296	3,758 (15)	0.6	0.7 (15)	3.1 (11)	0.34 (15)
경기	114,911	134,974 (2)	2.0	2.3 (2)	3.3 (10)	1.13 (2)
강원	6,176	6,457 (13)	0.9	1.0 (12)	2.4 (13)	0.47 (12)
충북	4,093	7,669 (12)	0.6	1.1 (9)	17.7 (1)	0.52 (9)
충남	4,235	9,320 (11)	0.6	1.0 (11)	14.5 (2)	0.47 (11)
전북	7,399	10,323 (9)	0.9	1.2 (8)	9.0 (3)	0.61 (8)
전남	4,739	5,242 (14)	0.5	0.6 (16)	3.1 (12)	0.28 (16)
경북	8,416	10,750 (8)	0.6	0.8 (13)	7.7 (4)	0.39 (13)
경남	9,171	11,042 (7)	0.6	0.7 (14)	4.6 (7)	0.35 (14)
제주	3,273	3,000 (16)	1.1	1.0 (10)	-3.5 (16)	0.48 (10)

주 : () 안의 수치는 순위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3. 시·군별 창조인재 현황

가. 수도권으로의 집중

전국 시·군 단위의 창조인재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국 162개 시·군을 수도권 33개 시·군과 비수도권 129개 시·군으로 나누어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를 비교하였다. 시·도 단위의 창조인재 분포에서 수도권의 창조인재 집중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전국 시·군의 창조인재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를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시·군 162개 지역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의 평균은 55.6이며 중앙값은 41.6, 표준편차는 48.0이다. 과천이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수가 318.4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 두 지역의 차이는 315.6으로 나타났다.

〈표 3-9〉 전국 시·군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

구 분	빈도 (N)	평 균	중앙값	최 대	최 소	범 위	표준편차
전 국	162	55.6	41.6	318.4	2.7	315.6	48.0
수도권	33	120.4	107.9	318.4	41.2	277.1	61.8
비수도권	129	39.0	32.6	122.9	2.7	120.2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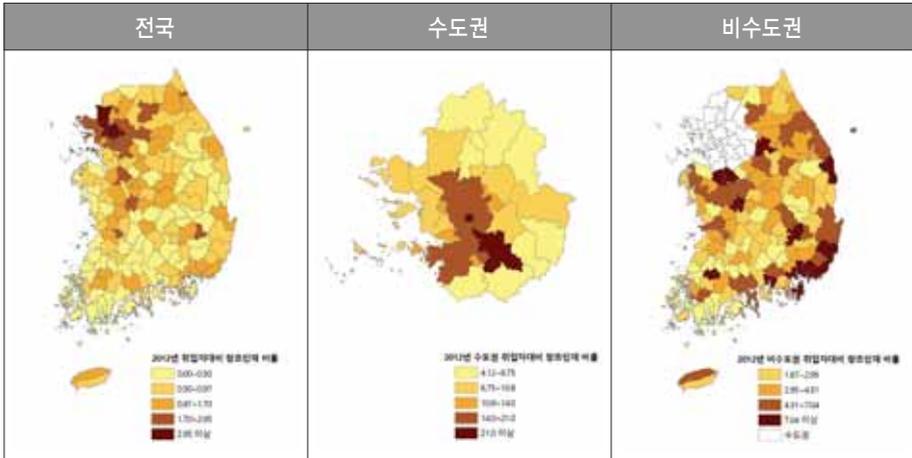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수도권 33개 시·군 지역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는 120.4이며 중앙값은 107.9, 표준편차는 61.8이다. 과천이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수가 318.4로 가장 높았고, 여주가 41.2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 두 지역의 차이는 277.1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는 전국평균인 55.6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아 상위 도시에 창조인재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 편차도 전국평균인 48.0보다 높아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129개 시·군 지역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는 39.0이며 중앙값은 32.6, 표준편차는 23.9이다. 대전이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수가 122.9로 가장

높았고, 완도가 2.7로 가장 낮았으며, 이들 두 지역의 차이는 120.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는 수도권 평균인 120.4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그림 3-1〉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2012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 시·군의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수도권에 창조인재가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시·군별로 창조인재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창조인재 현황 및 변화에 따른 전국 시·군 유형 분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나. 창조인재 하위유형별 변화

1) 전체 창조인재

2012년을 기준으로 창조인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창조인재 수가 855,4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인천(150,975명), 부산(131,795명), 용인(95,424명), 수원(92,726명)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율도 수도권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으로 31.8%를 차지하였고, 용인(23.7%), 군포(20.8%), 안양(17.8%), 수원(1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변화율은 군 지역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의 증가량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시·군별 창조인재 현황

순위	창조인재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2008년		2012년		2008년		2012년		변화	
	시·군	명	시·군	명	시·군	비율 (%)	시·군	비율 (%)	시·군	변화율 (%)
1	서울시	752,445	서울시	855,473	과천시	25.0	과천시	31.8	영양군	37.7
2	인천시	124,483	인천시	150,975	용인시	18.8	용인시	23.7	청송군	33.4
3	부산시	114,019	부산시	131,795	안양시	17.0	군포시	20.8	성주군	31.5
4	대전시	82,847	용인시	95,424	고양시	16.3	안양시	17.8	무주군	30.2
5	수원시	78,722	수원시	92,726	의왕시	16.0	수원시	17.3	영암군	27.9
6	대구시	76,129	대구시	92,095	수원시	15.9	서울시	17.0	양구군	23.7
7	고양시	70,805	대전시	89,581	서울시	15.3	광명시	16.8	횡성군	22.4
8	성남시	70,429	성남시	82,274	군포시	15.3	성남시	16.7	보성군	22.3
9	용인시	67,868	고양시	69,659	성남시	15.2	화성시	16.6	청양군	21.2
10	광주시	62,717	부천시	58,590	광명시	13.8	의왕시	16.3	남원시	18.6
11	부천시	49,367	광주시	51,407	구리시	13.5	고양시	15.4	연기군	17.6
12	안양시	48,203	안양시	50,979	화성시	13.4	부천시	14.0	영주시	16.4
13	안산시	39,052	울산시	42,773	남양주시	12.6	구리시	12.4	고창군	16.1
14	울산시	33,525	통합창원시	42,467	대전시	11.7	대전시	12.3	공주시	15.6
15	통합창원시	32,881	화성시	39,983	안산시	11.7	오산시	12.2	영동군	15.3
16	화성시	29,049	안산시	37,252	오산시	11.4	안산시	11.3	장수군	15.2
17	남양주시	27,614	남양주시	29,081	부천시	11.4	하남시	11.1	연천군	15.0
18	광명시	20,896	군포시	27,807	시흥시	10.6	남양주시	10.8	울릉군	14.9
19	청주시	19,893	천안시	27,450	광주시	9.8	인천시	10.7	논산시	14.5
20	군포시	19,637	광명시	27,092	인천시	9.7	파주시	10.3	무안군	14.1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창조인재 대부분이 수도권의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므로, 비수도권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난 4년간 창조인재의 시·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의 평균 수치를 계산하고 해당 평균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연평균 증가율도 평균보다 높은 지역[+], 즉 지속적인 성장 지역들이 수도권의 경우 서울, 과천, 용인, 군포, 광명, 화성, 부천 등 7개 지역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울산, 대구, 계룡, 천안, 아산 등을 포함한 3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11〉 창조인재의 증가 추세(2012년)

구 분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¹⁾	
		평균 이상 (+)	평균 미만 (-)
2008~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변화율 ²⁾	평균 이상 (+)	수도권	과천 용인 군포 서울 광명 화성 부천
		비수도권	계룡 천안 아산 김해 원주 창원 울진 부산 울산 대구 사천 광양 연기 양산 공주 경산 진주 경주 평창 서산 홍성 울릉 삼척 단양 군산 동해 익산 영암 청양 홍성 양구 양양 홍천 완주
	평균 미만 (-)	수도권	안양 수원 성남 의왕 고양 구리 오산
		비수도권	대전 거제 광주 포항 춘천 청원 전주 순천 구미 청주 제주 강릉 여수 충주 칠곡 목포 통영 영월 보령 음성 함안
			하남 파주 의정부 양평 포천 연천
			상주 속초 김제 정읍 창녕 무안 괴산 논산 남원 서천 영주 태안 성주 보은 고창 청송 고성 무주 부안 예천 고령 금산 순창 함양 영양 남해 청도 보성 장수 완도 함평 산안
			안산 남양주 인천 김포 광주(경기) 시흥 이천 양주 안성 평택 동두천 가평 여주
			안동 화순 옥천 밀양 문경 태백 김천 증평 예산 정선 제천 서귀포 인제 영덕 거창 진도 영천 니주 철원 진안 하동 부여 해남 산청 화천 담양 영동 강진 봉화 영광 장흥 의령 장성 진천 고흥 임실 의성 합천 곡성 군위 구례

주 : 1) 수도권 평균 : 12.0%, 비수도권 평균 : 3.9%

2) 수도권 평균 : 2.4%, 비수도권 평균 : 2.1%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안양, 수원, 성남, 의왕, 고양 등 7개 시·군이, 비수도권의 경우 대전, 광주, 거제, 포항, 춘천, 전주 등 21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창조인재가 집중되어 있지만,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 하남, 파주, 포천 등 6개 시·군이, 비수도권의 경우 남원, 영주, 논산, 상주, 김제, 정읍 등 3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창조인재가 타 지역에 비해 적지만, 창조인재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으면서[-] 연평균 증가율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인천, 이천, 김포, 양주, 가평 등 13개 지역이, 비수도권의 경우 나주, 문경, 안동, 영천, 태백 등 42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창조인재가 타 지역에 비해 적고, 창조인재의 증가세 또한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전국 162개 시·군 지역의 2012년 창조인재 LQ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창조인재의 LQ가 1이 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수도권 시 지역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LQ가 1을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지 않았다.

총 창조인재의 LQ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2.96)이었고, 다음으로 용인(2.21), 군포(1.94), 안양(1.66), 수원(1.61), 서울(1.58) 순으로 나타났다. 총 17개 수도권 시 지역이 총 창조인재 LQ가 1이 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전의 LQ가 1.14로 전체 14위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창조인재 수를 바탕으로 변이할당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조인재 산업구조효과는 모두 양(+)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조인재가 전국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할당효과를 기준으로 창조 인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성장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전국에서 지역할당효과가 가장 높은 곳은 용인(18,175.92)이었고, 다음으로 인천(9,287.09), 화성(6,918.96), 천안(6,370.13), 파주(5,48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인, 인천, 화성, 파주, 군포 등 수도권 지역과 천안, 대구, 창원, 울산, 아산 등 비수도권 지역들의 지역할당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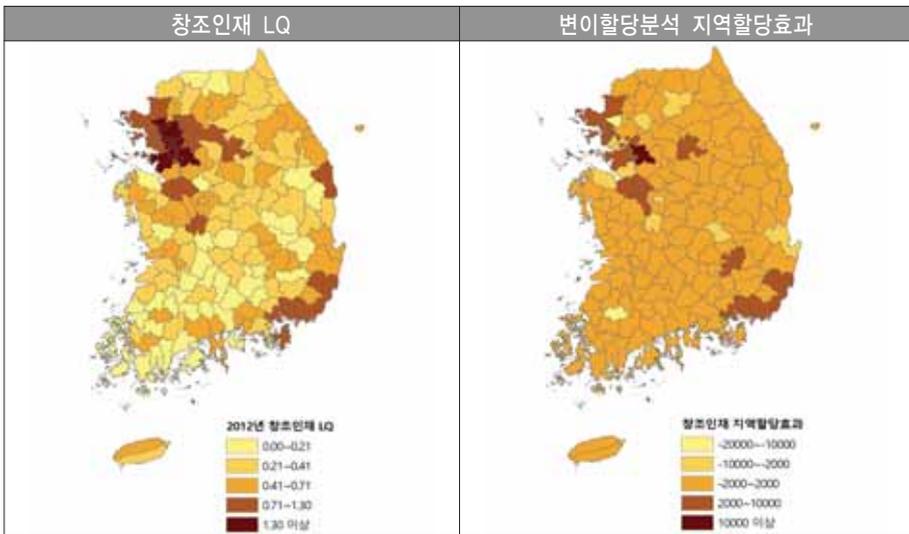
〈표 3-12〉 시·군별 창조인재 입지계수 및 변이할당효과(2012년)

LQ				지역할당효과			
순위	시·군	순위	시·군	순위	시·군	순위	시·군
1	과천시	11	고양시	1	용인시	11	원주시
2	용인시	12	부천시	2	인천시	12	광명시
3	군포시	13	구리시	3	화성시	13	김해시
4	안양시	14	대전시	4	천안시	14	수원시
5	수원시	15	오산시	5	파주시	15	오산시
6	서울시	16	안산시	6	군포시	16	김포시
7	광명시	17	하남시	7	대구시	17	부천시
8	성남시	18	남양주	8	창원시	18	성남시
9	화성시	19	인천시	9	울산시	19	과천시
10	의왕시	20	파주시	10	아산시	20	부산시

주 : 지역할당효과는 변이할당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되었음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2〉 창조인재 입지계수 및 변이할당효과(2012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앞서 분석한 2012년 창조인재 LQ 지수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창조인재 변이할당분석 중 지역할당효과에 따라 전국 162개 시·군을 6가지로 유형화하였다. LQ 지수는 1 이상 지역, 0.5 초과 1 미만 지역, 0.5 이하 등 3개 영역으로, 지역할당효과는 양(+)인 지역과 음(-)인 지역 등 2개의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 3-13〉 전국 162개 시·군의 특징(LQ, 지역할당효과)

구 분		2012년 창조인재 LQ		
		$0 \leq LQ < 0.5$	$0.5 \leq LQ < 1$	$LQ \geq 1$
지역 할당 효과	양 (+)	삼척 단양 군산 동해 익산 영암 청양 횡성 양구 연천 양양 홍천	인천 파주 계룡 김포 천안 아 산 김해 양평 광주(경) 원주 창원 울진 부산 울산 대구 광 양 연기 양산 공주 경산 진주 경주 서산 홍성 울릉	과천 용인 군포 수원 광명 성남 화성 의왕 부천 오산 하남
	음 (-)	제주 강릉 동두천 여수 충주 가평 철곡 목포 포천 통영 영월 보령 여주 음성 함안 안동 상주 화순 속초 옥천 밀양 문경 태백 김천 예산 정선 제천 서천 태안 서귀포 보은 인제 영덕 예천 거창 진도 고령 영천 나주 철원 청도 진안 하동 부여 해남 산청 화천 담양 영동 강진 봉화 영광 장흥 의령 장성 진천 완도 고흥 임실 의성 합천 곡성 군위 구례 함평 신안	의정부 거제 시흥 사천 광주 포항 춘천 이천 청원 전주 양 주 순천 구미 안성 청주 평택 평창	안양 서울 고양 구리 대전 안산 남양주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 먼저 입지계수가 1 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역할당효과가 양(+)인 지역은 과천, 용인, 군포, 수원, 광명, 성남, 화성 등 11개 지역으로, 이들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지역들의 창조인재는 특화되어 있으며 창조인재가 성장하는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서 지역할당효과가 음(-)인 지역은 안양, 서울, 고양, 구

리, 대전, 안산, 남양주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수도권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창조인재에 특화되어있으나 창조인재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0.5 이상 1 미만이면서 지역할당효과가 양(+)인 지역은 인천, 파주, 김포, 계룡, 천안 등 2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창조인재는 아직 특화되어있지 않지만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0.5 이상 1 미만이면서 지역할당효과가 음(-)인 지역은 의정부, 거제, 시흥, 사천, 광주 등 1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창조인재는 특화되어있지 않고, 창조인재의 성장률 또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입지계수가 0.5 미만이면서 지역할당효과가 양(+)인 지역은 삼척, 단양, 군산, 동해, 익산 등 36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의 창조인재는 타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떨어지지만, 창조인재의 성장률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입지계수가 0.5 미만이면서 지역할당효과가 음(-)인 지역은 제주, 강릉, 동두천, 여수, 충주 등 67개 지역이다. 대부분이 비수도권의 군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떨어지고 창조인재가 성장하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다.

2) 하위분류별 창조인재 현황

가) 창조핵심인력

2012년 기준으로 창조핵심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48,738명)이며, 다음으로 인천(77,826명), 수원(59,772명), 부산(58,285명), 용인(53,3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비율은 화성이 13.4%로 가장 높았으며, 용인(13.3%), 군포(12.0%), 과천(12.0%), 수원(1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한 수도권의 시 지역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의 비율 변화율이 높은 시·군은 대부분 비수도권의 군 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2008년 창조핵심인력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창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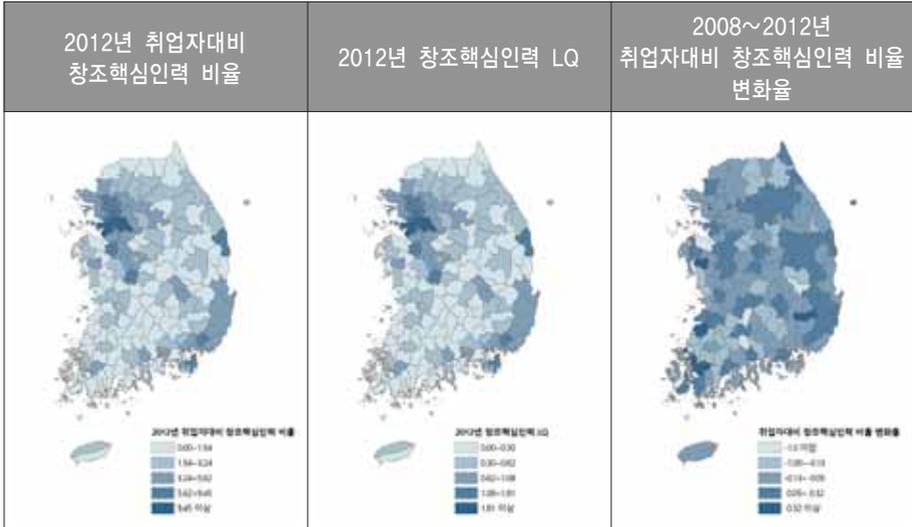
심인력의 LQ를 살펴보면 화성이 2.57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용인(2.55), 군포(2.39), 과천(2.31), 수원(2.14)이 뒤를 이었다.

〈표 3-14〉 시·군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순위	창조핵심인력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비율				창조핵심인력 입지계수	
	2012년		2012년		2008~2012년 변화		2012년	
	시·군	명	시·군	비율	시·군	변화율	시·군	LQ
1	서울시	348,738	화성시	13.4%	청도군	94.4%	화성시	2.57
2	인천시	77,826	용인시	13.3%	고창군	55.1%	용인시	2.55
3	수원시	59,772	군포시	12.5%	영암군	42.4%	군포시	2.39
4	부산시	58,285	과천시	12.0%	무안군	38.3%	과천시	2.31
5	용인시	53,320	수원시	11.2%	홍성군	38.1%	수원시	2.14
6	대전시	50,353	안양시	9.4%	성주군	31.8%	안양시	1.81
7	성남시	40,594	광명시	9.3%	울릉군	26.8%	광명시	1.79
8	대구시	37,870	오산시	8.5%	단양군	25.5%	오산시	1.63
9	화성시	32,166	의왕시	8.5%	양평군	23.7%	의왕시	1.63
10	고양시	29,723	성남시	8.3%	고성군	23.5%	성남시	1.59
11	울산시	28,146	거제시	7.8%	원주시	22.9%	거제시	1.49
12	안양시	27,050	아산시	7.4%	홍천군	21.6%	아산시	1.42
13	통합시	25,813	서울시	6.9%	부안군	20.9%	서울시	1.33
14	부천시	25,594	대전시	6.9%	정읍시	20.3%	대전시	1.33
15	광주시	21,888	고양시	6.6%	횡성군	19.9%	고양시	1.26
16	안산시	21,098	김해시	6.5%	광양시	18.6%	김해시	1.24
17	군포시	16,617	울진군	6.4%	서산시	16.7%	울진군	1.24
18	광명시	15,107	안산시	6.4%	양양군	16.6%	안산시	1.23
19	김해시	14,913	부천시	6.1%	익산시	16.1%	부천시	1.17
20	천안시	13,745	사천시	5.6%	영천시	15.6%	사천시	1.08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3〉 시·군별 창조핵심인력 현황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창조핵심인력의 LQ가 1이 넘어 특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군은 모두 23개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은 화성, 부천, 인천, 군포, 서울 등을 포함한 총 16개 시·군이며, 비수도권은 아산, 울산, 울진, 김해, 사천 등을 포함한 총 7개 시·군이다.

창조핵심인력에 특화된 지역들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창조핵심인력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과 정체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창조핵심인력의 LQ가 1 이상인 지역 23개 지역을 취업자 대비 창조핵심인력 변화율이 전국 평균(3.0%) 이상과 미만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3-15〉 창조핵심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구 분	입지계수 1 이상 시·군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3.0%) 이상(+)	아산 화성 부천 울산 울진 김해 군포 인천 서울 사천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3.0%) 미만(-)	시흥 의왕 고양 안산 거제 안양 대전 과천 수원 광명 오산 용인 성남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창조핵심인력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아산, 화성, 부천, 울산, 울진 등을 비롯한 9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조핵심인력에 특화되어있지만 성장세가 정체되어가는 지역은 시흥, 의왕, 고양, 안산, 거제, 안양 등 13개 시·군으로 확인되었다.

나) 창조전문인력

2012년 기준으로 창조전문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05,720명)이며, 다음으로 부산(50,184명), 인천(44,385명), 대구(37,929명), 성남(32,2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시·군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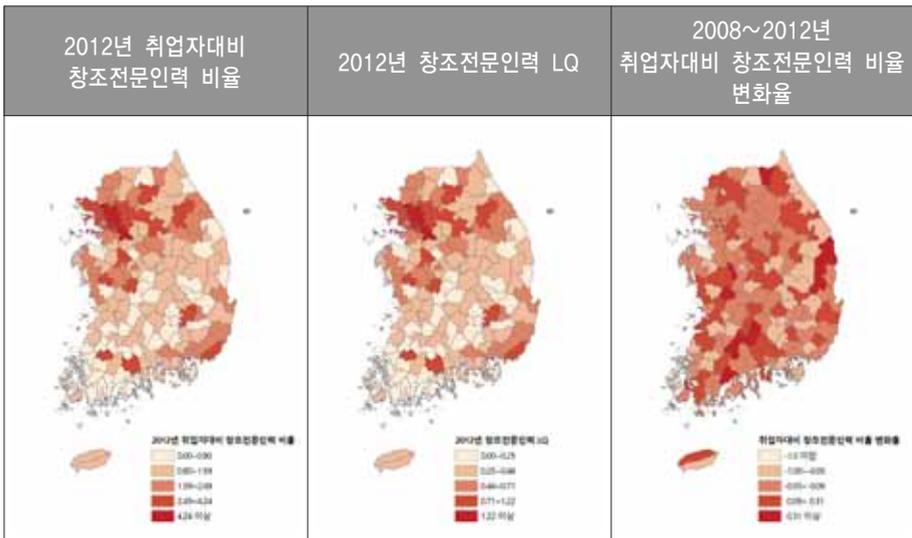
순위	창조전문인력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비율				창조전문인력 입지계수	
	2012년		2012년		2008~2012년 변화		2012년	
	시·군	명	시·군	비율	시·군	변화율	시·군	LQ
1	서울시	305,720	과천시	13.9%	울진군	78.8%	과천시	3.98
2	부산시	50,184	용인시	7.5%	보성군	63.1%	용인시	2.16
3	인천시	44,385	성남시	6.6%	남원시	56.9%	성남시	1.89
4	대구시	37,929	서울시	6.1%	연기군	49.0%	서울시	1.75
5	성남시	32,256	군포시	5.5%	양구군	45.7%	군포시	1.59
6	용인시	30,263	안양시	5.5%	영양군	43.1%	안양시	1.57
7	대전시	25,529	광명시	5.3%	청송군	39.5%	광명시	1.51
8	고양시	23,470	고양시	5.2%	곡성군	36.7%	고양시	1.49
9	수원시	22,170	의왕시	5.1%	고성군	36.5%	의왕시	1.47
10	광주시	19,272	계룡시	4.2%	논산시	35.3%	계룡시	1.22
11	부천시	17,179	수원시	4.1%	함양군	35.1%	수원시	1.19
12	안양시	15,656	부천시	4.1%	영주시	31.3%	부천시	1.18
13	통합창원시	11,204	구리시	3.9%	청양군	29.8%	구리시	1.12
14	울산시	10,869	남양주시	3.8%	공주시	28.9%	남양주시	1.09
15	남양주시	10,214	하남시	3.6%	장수군	27.0%	하남시	1.03
16	안산시	9,865	대전시	3.5%	동해시	26.6%	대전시	1.01
17	천안시	8,797	광주시(경)	3.4%	계룡시	26.6%	광주시(경)	0.99
18	광명시	8,510	의정부시	3.4%	인제군	23.6%	의정부시	0.97
19	군포시	7,399	대구시	3.2%	무주군	23.3%	대구시	0.91
20	의정부시	6,322	인천시	3.1%	화순군	22.9%	인천시	0.90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2012년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비율은 과천이 13.9%로 가장 높았으며, 용인(7.5%), 성남(6.6%), 서울(6.1%), 군포(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한 수도권의 시 지역이 상위권에 올라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거제, 아산, 대전, 김해, 울진 등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의 비율 변화율이 높은 시·군도 역시 대부분 비수도권의 군 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2008년 창조전문인력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창조전문인력의 LQ를 살펴보면 과천이 3.98로 창조전문인력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용인(2.16), 성남(1.89), 서울(1.75), 군포(1.59)가 뒤를 이었다.

〈그림 3-4〉 시·군별 창조전문인력 현황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창조전문인력의 LQ가 1이 넘어 특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군은 총 16개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은 광명, 용인, 군포, 과천, 의왕 등을 포함한 총 14개 시·군이며, 비수도권은 계룡과 대전 등 두 곳이다.

창조전문인력에 특화된 지역들 중 2008~2012년 기간 동안 창조전문인력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과 정체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창조전문인력의 LQ가 1 이상인 지역 23개 지역을 취업자 대비 창조전문인력 변화율이 전국 평균(1.9%) 이상과 미만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3-17〉 창조전문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구 분	입지계수 1 이상 시·군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1.9%) 이상(+)	계룡 광명 용인 군포 과천 의왕 성남 하남 대전 수원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1.9%) 미만(-)	구리 고양 부천 남양주 서울 인양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창조전문인력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계룡, 광명, 용인, 군포, 과천 등을 비롯한 10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조전문인력에 특화되어있지만 성장세가 정체되어가는 지역은 구리, 고양, 부천, 남양주, 서울 등 6개 시·군으로 확인되었다.

다) 문화예술인력

2012년 기준으로 문화예술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01,015명)이며, 다음으로 인천(28,764명), 부산(23,326명), 고양(16,466명), 대구(16,2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비율은 과천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4.0%), 부천(3.8%), 고양(3.6%), 구리(3.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한 수도권외의 시 지역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의 비율 변화율이 높은 시·군은 대부분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2008년 문화예술인력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문화예술인력의 LQ를 살펴보면 과천이 2.89로 문화예술인력에 가장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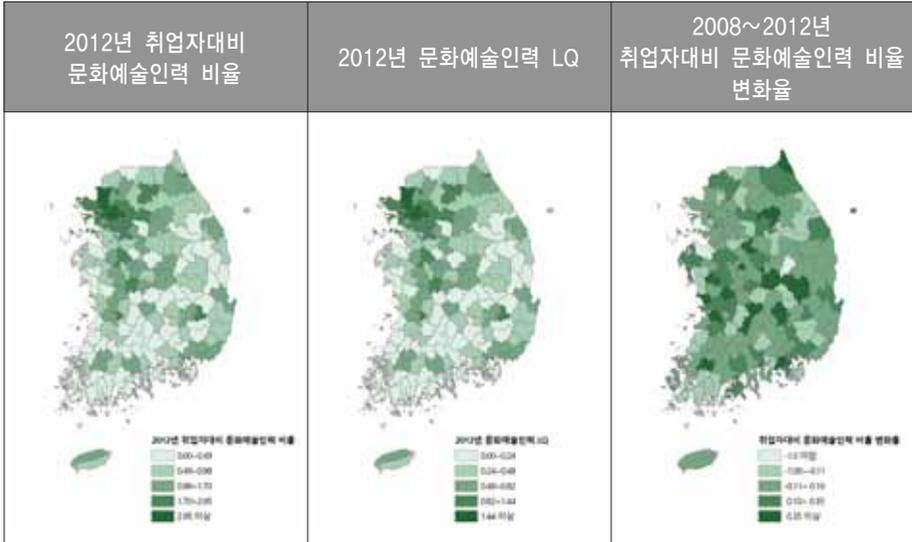
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1.95), 부천(1.84), 고양(1.78), 구리(1.77)가 뒤를 이었다.

〈표 3-18〉 시·군별 문화예술인력 현황

순위	문화예술인력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비율				문화예술인력 입지계수	
	2012년		2012년		2008~2012년 변화		2012년	
	시·군	명	시·군	비율	시·군	변화율	시·군	LQ
1	서울시	201,015	과천시	5.9%	무주군	75.4%	과천시	2.89
2	인천시	28,764	서울시	4.0%	나주시	68.2%	서울시	1.95
3	부산시	23,326	부천시	3.8%	황성군	64.2%	부천시	1.84
4	고양시	16,466	고양시	3.6%	의성군	64.1%	고양시	1.78
5	대구시	16,296	구리시	3.6%	서천군	62.1%	구리시	1.77
6	부천시	15,817	파주시	3.5%	김제시	56.8%	파주시	1.69
7	대전시	13,699	하남시	3.2%	성주군	54.2%	하남시	1.56
8	용인시	11,842	용인시	2.9%	고성군	50.3%	용인시	1.44
9	수원시	10,784	안양시	2.9%	장수군	43.3%	안양시	1.41
10	광주시	10,247	군포시	2.8%	군위군	43.2%	군포시	1.39
11	성남시	9,424	남양주시	2.8%	고령군	42.6%	남양주시	1.35
12	안양시	8,273	의왕시	2.7%	논산시	41.0%	의왕시	1.32
13	남양주시	7,468	양평군	2.4%	청주시	39.1%	양평군	1.19
14	파주시	6,308	의정부시	2.4%	청양군	38.7%	의정부시	1.16
15	안산시	6,289	광주시(경)	2.3%	음성군	37.6%	광주시	1.14
16	통합창원시	5,450	김포시	2.3%	상주시	36.4%	김포시	1.12
17	전주시	5,226	광명시	2.1%	옥천군	34.5%	광명시	1.05
18	천안시	4,908	인천시	2.0%	삼척시	30.7%	인천시	0.99
19	의정부시	4,420	수원시	2.0%	군산시	28.6%	수원시	0.98
20	군포시	3,790	성남시	1.9%	연천군	28.6%	성남시	0.94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그림 3-5〉 시·군별 문화예술인 현황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문화예술인력의 LQ가 1이 넘어 특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시·군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가 과천, 서울, 부천, 고양, 구리 등을 포함한 수도권 시·군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인력에 특화된 지역들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문화예술인력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과 정체된 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력의 LQ가 1 이상인 지역 17개 지역을 취업자 대비 문화예술인력 변화율이 전국 평균(3.6%) 이상과 미만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3-19〉 문화핵심인력의 특화 시·군 성장추세

구 분	입지계수 1 이상 시·군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3.6%) 이상(+)	양평 군포 부천 파주 과천 하남 구리 용인 광주(경기) 안양
취업자 대비 변화율 평균(3.6%) 미만(-)	남양주 의왕 광명 고양 의정부 서울 김포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문화예술인력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양평, 군포, 부천, 파주, 과천 등을 비롯한 10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력에 특화되어있지만 성장세가 정체되어가는 지역은 남양주, 의왕, 광명, 고양, 의정부 등 7개 시·군으로 확인되었다.

3) 창조인재의 공간 집중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 분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Moran's I 통계를 사용하였다. 공간통계량은 변수의 전반적인 공간 패턴을 보여 주는 전역적 통계량과 세부 지역별 공간 패턴을 보여 주는 국지적 통계량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전자를 위해 Moran's I를 사용하고 후자인 국지적 클러스터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LISA(Anselin Local Moran's I) 통계를 사용하였다. 전국 시·군 162개 지역의 2008년과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와 하위 항목인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전역적 통계량은 Moran's I의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Moran's I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양(+)의 값은 정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0은 무작위 패턴, 음(-)의 값은 부적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와 하위 항목인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의 비율에 대한 Moran's I 값 분석의 결과 2008년과 2012년의 창조인재 Moran's I는 각각 0.58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서 창조인재 분포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Z-score와 p-value 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창조인재 분포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인재 하위 항목인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통계량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Moran's I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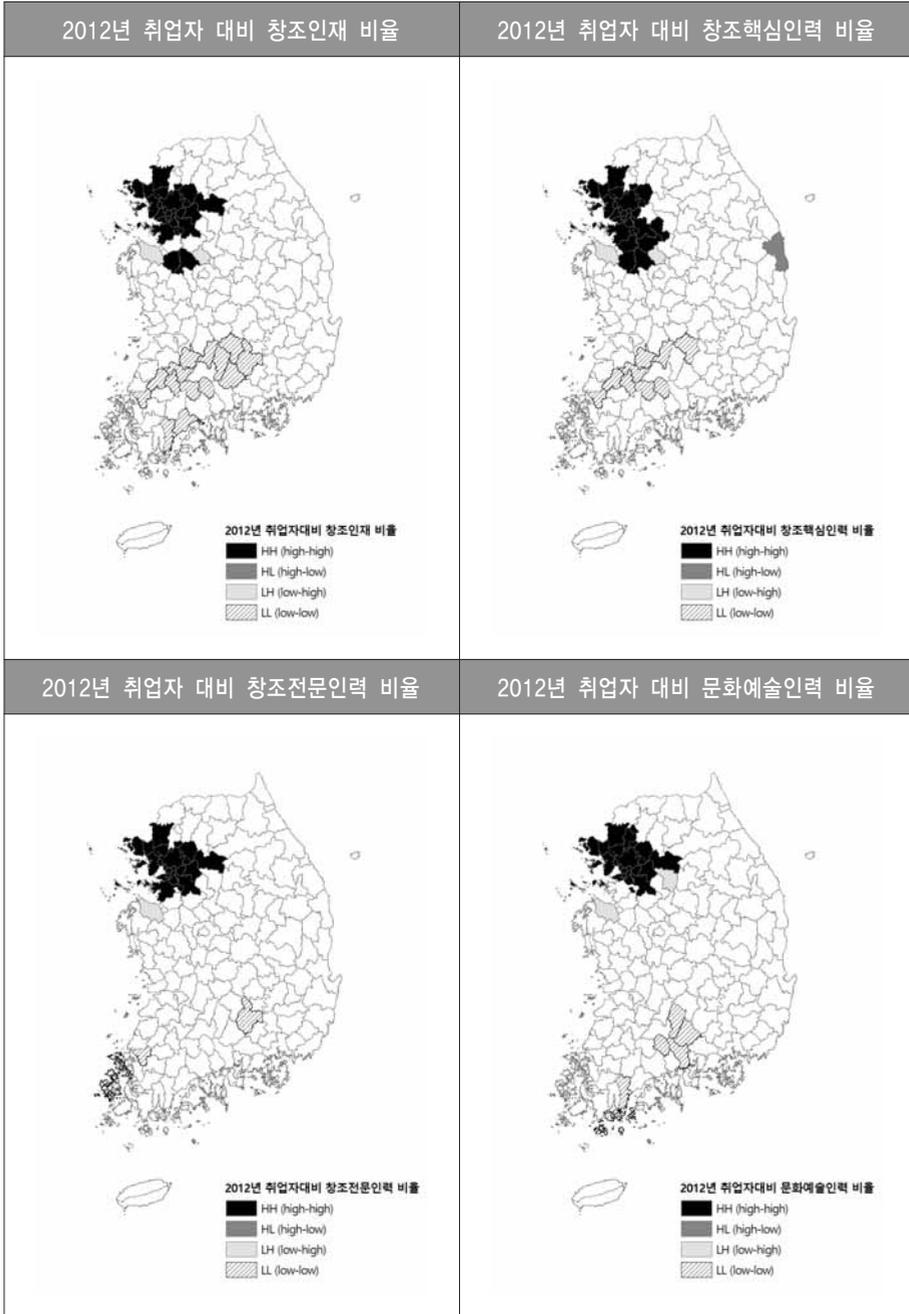
구 분		창조인재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2008년	Moran's I Index	0.58	0.53	0.49	0.49
	Z-score	19.75	17.84	16.74	16.74
	p-value	0.00	0.00	0.00	0.00
2012년	Moran's I Index	0.58	0.51	0.46	0.54
	Z-score	19.75	17.17	16.41	18.37
	p-value	0.00	0.00	0.00	0.00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나) 클러스터 분석

창조인재 클러스터가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지도화하기 위하여 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LISA 분석은 모란 산포도(Moran scatter plot)를 통해 공간적 연관성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유형(high-high),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유형(low-low),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유형(high-low),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LH유형(Low-high)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3-6〉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의 LISA 분석(2012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2008년과 2012년의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에 대해 LIS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조인재와 하위 유형인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의 분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인재의 경우 2008년에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를 비롯한 수도권 25개 지역이 HH에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2012년에는 경기 양평 그리고 천안과 아산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지역이 HH에 새로 진입하였다. 반면 LL에는 2008년에는 남원, 무주, 장수, 순창 곡성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의 군 지역 11개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는 더욱 늘어나 14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충청 지역의 진천과 당진이 LH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인근에 창조인재가 집중된 반면 해당 지역의 창조인재 집적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위분류를 살펴보면 창조핵심인력의 경우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의 25개 도시가, 2012년에는 수도권의 27개 도시가 HH에 포함되었다. 반면 LL에는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8개와 9개의 전라·경상도 일부 군 지역이 포함되었다. 한편 HL에는 2012년에 울진이 포함되었으며, LH에는 창조인재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진천과 당진이 속하였다.

창조전문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분포 변화를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의 22개 도시가,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22개 도시가 HH에 포함되었다. LL에는 2008년에 전라·경상도의 시·군이 11개 포함되었으나 2012년에는 3개로 줄어들었다. 광주광역시 는 2008년 HL에 속했으나 2012년에는 제외되었다. 양주와 가평은 2008년 LH지역에 속했으나 2012년에는 당진만 LH에 포함되었다.

문화예술인력의 경우도 이들의 분포 변화를 통해 비수도권에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의 28개 도시가, 2012년에는 수도권의 24개 도시가 HH에 포함되었다. LL에는 2008년에 전라·경상도의 시·군이 11개 포함되었으나 2012년에는 6개로 줄어들었다. 전주는 2008년 HL에 속했으나 2012년에는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LH지역에 연천이 속했으나 2012년에는 여주만 포함되었다.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2008년과 2012년의 HH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에 창조인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LL 지역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창조인재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천과 당진, 여주 등 수도권에 인접해 있거나 경계에 속한 지역은 창조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에 분포한 창조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 시·군별 창조인재의 집중지 변화

구 분	창조인재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2008년	HH	서울 의정부 구리 의왕 이천 광주(경) 인천 부천시 남양주 하남 김포 수원 고양 시흥 용인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구리 군포 이천 (경) 아산 인천 부천시 오산시 화성 수원 부천시 용인시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안산 남양주 의왕 안성 인천 부천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 과천시 용인시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구리 군포 파주(경) 양주 인천 안양 부천시 오산시 하남 김포 수원 화성 춘천 성남 광명 과천시 용인시 화성 춘천
	HL	광주	-	광주	전주
	LH	-	양평	양주 가평	연천
2012년	HH	서울 의정부 안산 남양주 김포 평 천안 아산 인천 부천시 오산시 화성 광주(경) 수원 부천시 과천시 군포 파주 양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평택 구리 군포 파주 화성 인천 아산 수원 부천시 과천시 용인시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안산 남양주 용인시 파주 양평 인천 부천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 과천시 용인시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서울 의정부 동두천 구리 김포 평 천안 아산 수원 부천시 과천시 군포 파주 양 성남 광명 과천시 파주 화성
	HL	-	울진	-	-
	LH	진천 당진	진천 당진	당진	여주
변화	HH	제외 평택 이천 안성 포함 오산 양평 천안 아산	양평 파주 안성 김포 천안	오산 시흥 안성 화성 광주(경) 양평	시흥 안성 화성 춘천
	HL	제외 광주	-	광주	전주
	LH	제외 포함	양평	양주 가평	연천
LL	제외 포함	남원 무주 장수 곡성 함평 장성 거창	남원 고창 보성 임실 담양 구례 장성 거창	남원 진안 무주 곡성 산청 함양	장수 순창 함평 의성 청송 고령 성주 의령
	제외 포함	장흥 장성 거창	임실 담양 구례 장성 거창	함평 신안	구례 장흥 원도 산청

주 : HH 등의 유형은 USA분석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 51-52쪽을 참조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4. 종합

지금까지 창조인재의 지리적 분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도별 그리고 시·군별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국의 창조인재 수는 2008년 약 226만 명에서 2012년 약 260만 명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경영행정지원 분야의 고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창조전문인력(연평균 증가율 1.9%)보다 순수한 의미에서 창조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력(3.6%), 창조핵심인력(3.0%)이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조인재의 지역별 분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인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2012년 창조인재의 상위 20위 지역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와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할 정도로 창조인재의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

둘째, 창조인재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아도 전체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체 취업자에서 창조인재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시·군 지역은 평균 천 명당 120명의 창조인재가 거주하고 있는데 비하여 비수도권 시·군 지역은 평균 천 명당 39명의 창조인재에 불과하다.

셋째, 전국 162개 시·군 지역에서 LQ가 1 이상인 지역은 대부분이 수도권의 시 지역에 해당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하지만 시간적 변화에 따라 창조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에도, 수도권에서 창조인재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고양, 구리, 안양 등과 같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창조인재의 특화도(LQ로 측정)가 떨어지거나 지난 4년간 음(-)의 지역할당효과를 나타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인재 유지(retain) 노력이 없을 경우 지속적인 유출이 우려된다.

넷째, 창조인재의 하위 유형별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창조핵심인력은 문화예술인력에 비하여 수도권 집중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창조핵심인력의 LQ가 1 이상인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6개와 7개 시·군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예술인력은 LQ가 1 이상인 지역이 모두 수도권 시·군에 집중하여 있다.

〈표 3-22〉 창조인재 현황의 종합

전 국					
전국 창조인재 현황	구분	창조인재	창조핵심인력	창조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2012년(명)	2,601,375	1,244,443	861,049	495,883
	연평균증가율 ('08-'12)	3.6%	3.8%	2.7%	4.4%
	취업자 대비 비중	10.7%	5.1%	3.5%	2.0%
전국 분류 기준에 따른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평균					
2012년 취업자 천 명당 창조인재 수	구분	전국 시·군	수도권 시·군	비수도권 시·군	
	N	162	33	129	
	평균(명)	55.6	120.4	39.0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및 변화에 따른 창조인재 분류					
구 분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평균 : 수도권 12.0%, 비수도권 3.9%)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증가율 (평균 : 수도권 2.4%, 비수도권 2.1%)	+	• 수도권 : 과천, 용인, 군포, 서울 등 7개 • 비수도권 : 계룡, 천안, 아산 등 34개		• 수도권 : 하남, 파주, 의정부 등 6개 • 비수도권 : 상주, 속초, 김제 등 33개	
	-	• 수도권 : 안양, 수원, 성남 등 7개 • 비수도권 : 대전, 거제, 광주 등 21개		• 수도권 : 안산, 남양주, 인천 등 13개 • 비수도권 : 안동, 화순, 옥천 등 42개	
LQ 및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창조인재 분류					
구 분	2012년 LQ				
	$0 \leq LQ < 0.5$		$0.5 \leq LQ < 1$	$LQ \geq 1$	
	지역 할당 효과	+	삼척, 단양, 군산 등 36개	인천, 파주, 계룡 등 25개	과천, 용인, 군포 등 11개
	-	제주, 강릉, 동두천 등 67개	의정부, 거제, 시흥 등 17개	안양, 서울, 고양 등 67개	
하위 항목 별 창조인재 분포 특성					
창조핵심인력	전국 취업자 대비 높은 연평균 증가율 (3.0%) LQ)1 지역 : 수도권 16개, 비수도권 7개 지역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창조전문인력	타 창조인재 하위 영역에 비해 낮은 연평균 증가율 (1.9%) LQ)1 지역 : 수도권 14개, 비수도권 대전, 계룡 2개 지역 분포				
문화예술인력	전국 취업자 대비 높은 연평균 증가율 (3.6%) LQ)1인 17개 지역 모두 수도권 도시, 수도권에 특화도 집중				
창조인재의 공간 집중 분석					
2008~2012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율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Moran's I)			클러스터 분석 (LISA)	
	Moran's I, Z-score, P-value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 확인			서울 인접 수도권 : HH 클러스터 형성 전라도/경상도 일부 : LL 클러스터 형성	

전통적으로 비수도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알려진 전주와 광주 등은 LQ가 1을 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창조인재들에 비하여 문화예술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더 몰리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욱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창조인재의 공간 집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의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에 대해 Moran's I와 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Moran's I값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창조인재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도가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LISA 분석을 통해 서울과 인접해있는 수도권 시·군 지역에서 창조인재 클러스터(HH)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전라·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LL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중앙정부 관련 정책 검토

창조환경 조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문화정책적 접근, 산업정책적 접근, 도시재생적 접근 등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문화정책적 접근은 문화예술적 콘텐츠와 문화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 내 창조적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창조도시 조성전략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왔다. 둘째, 산업정책적 접근은 창조산업 육성정책으로 창조도시 조성전략과 달리 특정 창조산업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조산업의 가치사슬의 하위 영역별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 기업들에 가치사슬의 전부나 일부 과정을 지원하는 영역을 포함하므로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해왔다. 셋째, 도시재생적 접근은 창조인재들을 위한 물리적인 소통공간을 마련하거나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 강화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재생과 관련되는 정책으로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왔다.

한편 창조인재를 육성하는 데 창조인재의 종사분야에 따라 중앙부처가 각기 다기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정보통신 분야의 창조인재

의 교육훈련·양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화적인 창조콘텐츠 분야의 창조인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리고 산업디자인에서 파생된 디자인 분야 창조인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중앙정부 부처 중심으로 창조환경 조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인재를 지원하고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범위 설정에 따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공간정책에 한정하여 관련정책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는 기술개발, 연구진흥 등 창조적 아이디어의 촉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영역별로 존재하는 창조환경 관련 법률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존재한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진흥을 위한 정책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창조경제의 근본정신 중에 하나인 ‘융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8월에 제정된 법률로, 정보통신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에 대한 정책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환경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정책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창조환경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애초에 이 법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었지만,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환경을 법령에 반영하며 법률의 이름도 함께 변경하였다. 또한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개편하였다.

〈표 3-2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지정연월		2005년 7월	2011년 1월	2011년 1월	2012년 11월
면적 (km ²)		67.8	18.7	22.2	14.1
입주기관 수	연구기관	518	173	96	93
	대학	5	4	8	6
	기업	1,312	511	392	563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 내부자료

위의 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이 사업은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고 창업 및 사업화 지원으로 ‘공공기술→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1~2015)에 의하면, 사업의 비전이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 도약’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구별로도 비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면 대덕특구는 ‘첨단융합산업 세계적 허브’, 광주특구는 ‘광(光) 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대구특구는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그리고 부산특구는 ‘R&D 기반 조선해양 플랜트 혁신클러스터’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2009년 대비 2015년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특구 내 매출액은 ‘10.4조 원에서 23조 원’, 기술이전금액은 ‘860억 원에서 1,337억 원’, 연구소기업 설립은 ‘19개에서 65개’, 그리고 매출 1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130개에서 319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육성방안을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 특구 커뮤니티 강화, 창조적 연구·사업화 공간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2~3개의 정책과제를 두어 모두 9개 정책과제를 설정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4〉 연구개발특구의 4대 분야 및 정책과제

4대 분야	9개 정책과제
①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 육성	① 혁신주체의 역량강화
	② 특구진흥재단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②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 하는 창조 생태계 조성	③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④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지원
③ 특구 커뮤니티 강화	⑤ 특구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⑥ 특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확산
	⑦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④ 창조적 연구 사업화 공간 구축 및 생활 환경 개선	⑧ 창의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 내부자료

나.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

SW융합클러스터란 SW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공간 집적지로, SW수요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연계·협력·협업이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이란 지역별로 구축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업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신(新)시장, 신(新)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SW융합 R&D, 사업화, 해외진출, 전문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건물, 시설, 설비 등 물리적 기반을 지원해

인프라 구축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 사업은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밀집한 집적지에 SW융합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의 기존산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SW융합 R&D 기획, 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대학-연구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창업-성장기업간 공동R&D를 지원하는 ‘SW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사업’, 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창조형 스타트업(Start-up)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이종분야 간 정보 교류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식혁신 네트워크 생태계 강화 사업’, 그리고 SW아카데미 운영 등 산학연 협력에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SW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이 있다.

〈그림 3-7〉 SW융합클러스터 개념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 내부자료

위와 같은 지역의 산업 간 융합 촉진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7월 SW융합클러스터 주관 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선정하였다. 이는 2013년 8월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 지역으로

처음 선정된 대구광역시에 이은 것으로, 이후로도 지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2014년 3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주관지자체 공모에는 모두 10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현장방문 및 발표평가, 종합심의 순으로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3개 주관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평가기준에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자체의 참여의지, 추진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지방비 매칭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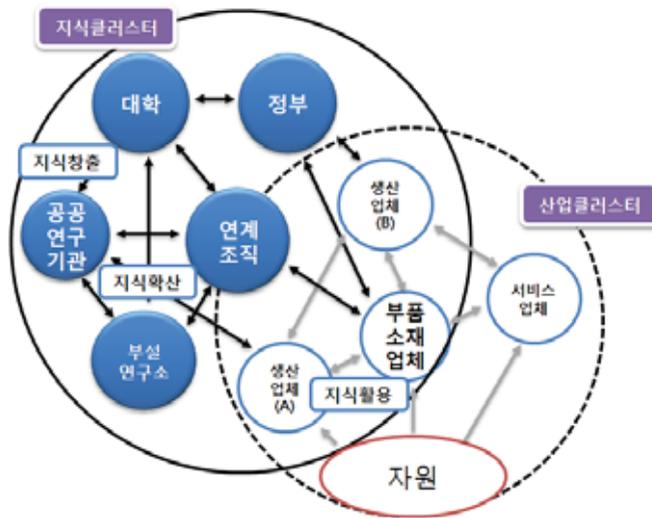
다.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시대 지식창출의 핵심주체인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활동으로 융합과제를 발굴해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의 실질적 동력원을 창출하는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에는 ‘산·학·연 협력 우수연구실사업’과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사업’ 등으로 구분해 2012년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2013년에 들면서 이들 두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새롭게 개편된 사업은 지원금을 크게 확대하고 융합기술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지원사업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산·학·연 간 기술정보 교류 활동, 단기 애로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식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이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를 대학과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개발하는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 지식클러스터란 기존의 산업 클러스터에 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회사 등과 같은 지식 관련조직을 혁신주체로 포함하여 기술지식을 창출·확산·활용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 지식클러스터의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 등 14개 이상의 기관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기술전문가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8개 이상의 기업이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학과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 기관이 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8〉 지식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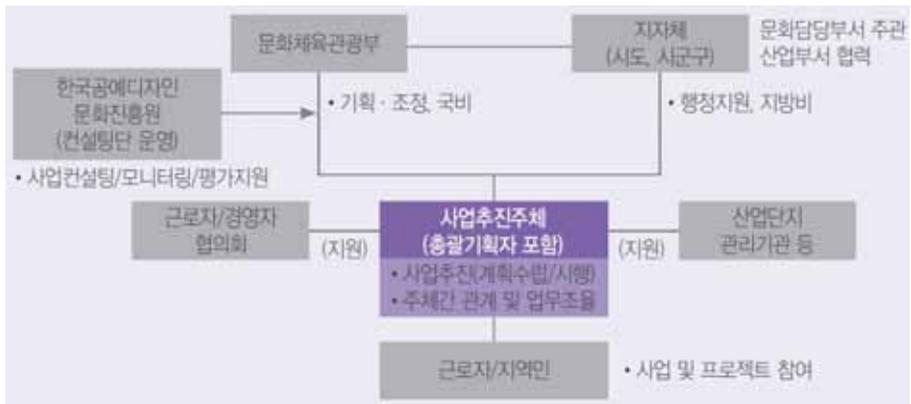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 내부자료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창조환경 관련 법률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비전통적인 영역의 창조산업 및 경제를 지원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존재한다. 공간정책과 관련해서는 노후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의 부처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유관사업 합동공모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는 종합복지관, 공동목욕시설·체력단련시설·교육시설,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훈련과 취업지원·연구·포럼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거시설과 공동주차장 사업을, 그리고 교육부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그림 3-9〉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추진체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내부자료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해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기반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가치 공유를 통한 산업단지 및 지역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노후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순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문화공간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상 시설도 산업단지 내 일상적인 공공공간과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성 내용 면에서도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 체험, 문화콘텐

츠 창작 등을 위한 공간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산업단지 내 일상 공간에 대한 커뮤니티아트·공공미술·공공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운영 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이 중요한 문화공간 운영의 특성을 반영해, 휴먼웨어·콘텐츠·하드웨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2월 말 2014년도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에 1차적으로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국가산업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광주소촌농공단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강원도 영월군의 영월농공단지 등 모두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말에는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차사업으로 경기도 시흥시의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경기도 광명시의 폐자원회수시설, 경기도 부천시의 폐소각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옛 백령병원, 전라남도 담양군의 폐양곡창고 등 모두 5개소를 선정하였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산업단지의 여건과 공간의 활용가능성, 사업 규모의 적절성, 수요자·관계자의 사업참여, 문화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며, 특히 산업단지 내 근로자·주민 등 수요자와 지역 및 문화예술 관계자의 참여 정도, 그리고 산업단지 내 문화동호회 활동과 조성 이후 운영 및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계획적 성격을 고려해 조성과정 자체가 강조되어야 하고, 조성보다도 사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 문화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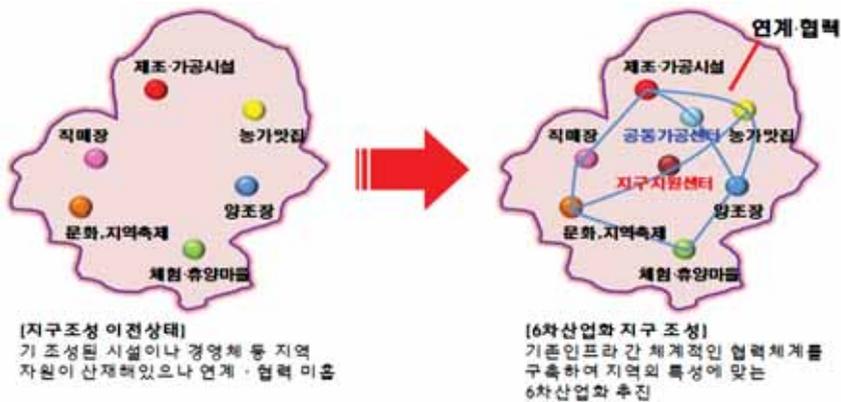
2014년 5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이 법률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

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위의 법률에서 주목되는 점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에 관한 내용이다. 법률에서는 이 지구를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는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 법상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광역 지자체의 장은 지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공동 마케팅·홍보·관로 확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제도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에 대한 적지 않은 기여도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10〉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개념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 내부자료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창조환경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산업단지 재생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산업단지 전체를 하드웨어 측면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과 구별된다.

가. 도시재생사업

2013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생활형’ 등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을 말하며, 근린생활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의미한다.

주민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생활형에 대해서는 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의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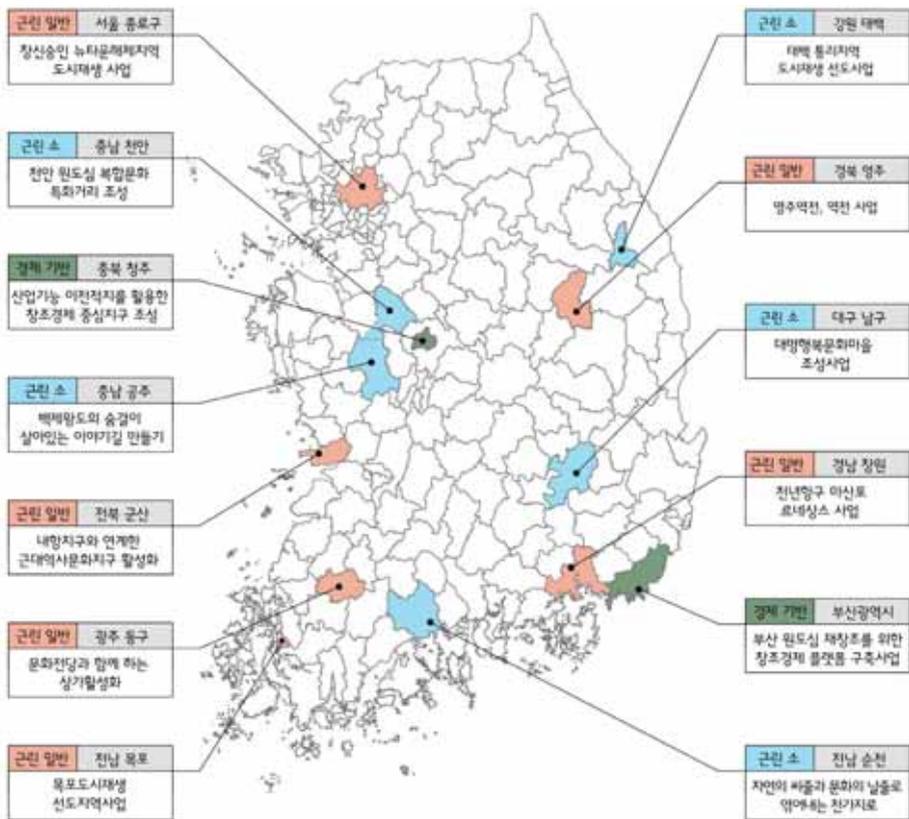
다. 요컨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며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사업에서는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개념의 도시재생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 4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86개 지역이 사업에 신청하였다. 이후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였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모두 13곳을 지정하였다. 먼저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충북 청주 등 두 지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일반규모의 경우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 등 6개 지역이, 소규모의 경우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 등 5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계획수립비와 사업비가 4년 동안 국비로 지원되며, 2014년에는 계획수립비 100%와 사업비의 20%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근린재생형의 경우 지역 도시재생지원

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기반형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3-1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2014) 내부자료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법에서는 이 사업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

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 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법률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즉 노후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당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명칭에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종래에 사용해왔던 '재정비사업'의 용어가 '토지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하드웨어적 이미지가 강한 측면이 있어, '산업기능 회복'이라는 노후산업단지의 정비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둘째, 사업의 대상지역을 산업단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전에는 재생사업이 산업단지에만 해당되어 대규모 공업지역이 사실상 산업단지와 비슷함에도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협력업체 입주에 의한 산업단지 주변의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사업 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업지역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난개발된 주변지역을 재생사업 지구로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업시행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요건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은 토지 및 공장의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 그리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넷째, 도로율과 녹지율 등 기반시설의 수준을 탄력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노후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이전 등 많은 비용과 부담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신규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도로율 및 녹지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반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였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건축물 설치가 동반되므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일정수준의 건축 사업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섯째,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하였다. 개발수요가 높은 구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재생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조업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공장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의 속도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여덟째,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통상 인·허가에 소요되는 2~4년의 시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어 관련비용이 감소되고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발의된 후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지자체 공모제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개발계획 수립비 지원대상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우선사업지구로 대전의 제1·2 산업단지, 대구의 제3공업단지·서대구공업단지, 부산의 사상공업단지, 전주의 제1산업단지 등 모두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이들 사업지구 중에서 부산만 재생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역들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차 사업지

구를 발굴하는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를 지역 산업기반 재창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창조해 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림 3-1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후 조감도



자료 : 국토교통부(2014) 내부자료

제3절 실태 및 문제점

1. 창조인재의 수도권 집중 강화

창조인재의 지리적 분포현황을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창조인재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전체 창조인재 수는 약 260여만 명이었으며 이들 중 69.2%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 2008년에는 창조인재의 약 68.7%가 수도권에 집중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 4년 기간 동안 창조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창조인재의 입지계수(LQ)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체 고용 구조에서 창조인재의 비중이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특화도 분석 결과, 전국 162개 시·군 지역에서 특화도가 1 이상인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조인재 하위 유형 중에서도 문화예술인력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인력의 경우 LQ가 1 이상인 지역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나 창조핵심인력은 수도권(16개)과 비수도권(7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경향성은 국지적 집적을 보여주는 LISA분석에서 더욱 확연히 파악될 수 있다. 2008년과 2012년 취업자 대비 창조인재 비중에 대한 LISA분석 결과, 전체 창조인재와 세 개의 하위유형 모두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 볼 때, 전체 창조인재에서 2008년의 HH지역이 서울, 인천, 성남 등 수도권 25개 지역이었는데, 2012년에는 수도권의 영향력으로 양평과 일부 수도권 인접 지역(천안, 아산)등도 HH 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조인재의 공간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과거 2008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LL지역, 즉 해당 시·군의 공간집중성이 떨어지면서 인접 시·군도 공간적 집중이 적은 지역이 2012년에는 오히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및 일부 충청권으로의 창조인재 집중 경향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와 전주가 2008년에는 HL(해당 지역은 공간집중성이 높으나 주변 지역은 낮은 고립적인 중심도시지역)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2년에는 HL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에 이르고 있다.

2. 창조인재의 지속적 유출

비록 수도권 내로의 창조인재가 편중되어 있다고 하나, 창조인재들이 항상 같은 시·군에 영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창조인재가 특화되

어 있는 시·군에서도 지난 4년간 유출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창조인재 비중에 있어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표 3-13>에서 볼 수 있듯이 LQ가 1 이상인 지역에서도 4년 간 지역할당효과는 음(-)을 보이는 지역도 존재한다. 서울, 고양, 안양 등은 창조인재의 특화도가 높으나 실제로 지역경쟁력은 낮게 나타나 향후 창조인재의 유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기존 창조인재들이 잔류토록 하는 환경 조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창조인재의 특화도는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할당효과가 양(+)인 지역도 존재한다. 인천, 파주, 창원, 부산 등 25개 지역은 특화도는 아직 1에 못 미치지만, 창조인재 유인에 있어서 지역경쟁력이 증가하여 창조인재의 양적 규모가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지역들은 새로운 창조적 경제활동이나 연구소 등이 시작·설립됨으로써 창조인재가 최근에 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유입된 창조인재가 지역 내에 잔류하면서 가정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적 시스템 구축 필요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이는 창조경제의 실현이 결국 지역 단위의 경제 주체들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과 연결된다. 즉 지역은 차별화된 창조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창조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각각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야 하며, 지역 간 상호보완성이 확보될 때 창조경제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창조환경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앙부처 간 창조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협업이 요구된다. 현

재 관련 정책은 부처별 전문화 영역에 기초해 실행되고 있다. 각 정부부처는 전문영역에 따라 창조경제 R&D, 그리고 사업화 및 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각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조직의 전통적인 기능영역에 따라 지역 창조경제 사업과 제도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유사 사업을 발굴하고 상호 간 협력한다면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너지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창조인재를 육성하는 시책을 더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 갈 필요가 있다. 창조인재는 궁극적으로 지역 단위로 실행될 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역 단위의 창조인재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창조인재 지원사업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역산업정책에 비하여 창조인재 지원은 부문별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이나 기술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영역에 맞는 기업이나 연구소, 창업예비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시·도 단위에서 특정 활동에 대해 일괄 지원되어 상호연관된 활동이 동시에 성장·발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향후에는 시·도에서 필요로 하고 지원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 창조경제 분야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연계가 긴밀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연계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창조인재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정부와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그리고 공공/민간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지역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중앙에서 지역 창조인재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창조인재의 선호환경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 그리고 창조성 증진과 관련된 수요자 지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창조인재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초성된 집적 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 지역으로는 문화예술인력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인력이 집중한 지역으로 상암DMC, 그리고 최근에 조성되어 이공계 과학자들이 집중한 지역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정하였다.

설문은 창조인재 중에서 창조핵심인력과 문화예술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복잡한 의사결정과 기능을 수행하는 인재들로서 해당 지구 내에 종사하는 창조전문인력을 설문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잠재응답자가 본인 업무의 복잡성 판단 여부에 따라 응답이 결정되어 설문에 있어서 샘플링오차(sampling error)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창조핵심인력과 문화예술인력에 한정하였다.

설문을 분석할 때에는 창조인재의 유형을 이공계 연구자, 기술인력, 문화예술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조핵심인력은 이공계연구자나 기술자를 의미하는데, 연구소 종사자와 기업체 종사자는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행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연구소들이 입지해 있으며 일부 나노업체나 바이오업체가

존재하지만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형 기업체에 가까우므로 연구개발자로 분류하였다. 이에 비하여 상암 DMC에 종사하는 창조핵심인력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므로 기술인력으로 명명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현재 창조인재가 종사하는 클러스터 내 환경 관련 선호도 및 직장 이직계획, 창조인재의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이전계획, 그리고 창조인재의 개인적 속성(연령, 생애주기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클러스터 내 환경 관련 선호도의 설문은 해당 클러스터의 사회적·물리적 환경들이 창조인재 개인의 창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모두 1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창조인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개별 항목의 주거 선택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주거지 환경의 만족도, 그리고 주거 이동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모두 33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창조인재의 주거 선택 기준과 지리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구성하고 설문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통하여 회수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응답 적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표 4-1〉 주요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이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분야 지인들과 1년당 만남 횟수 • 업무 정보획득을 위한 정기모임 참석 여부 • 정기적 모임의 형태 (참석하는 경우만) • 향후 5년내 이직 계획 여부 • 업무를 위한 정보의 원천별 중요도, 구직 정보별 중요도¹⁾ • 창조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요도·만족도)²⁾
주거환경 선택 및 만족도 및 주거이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의 수도권 여부 •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유 (고향 = 비수도권) • 현재 거주지 • 현 주거지에서의 거주기간 • 향후 5년내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 • 현 주거지의 거주 직전 주거지 • 향후 5년내 이사할 지역 • 집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 • 현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별 중요도·만족도³⁾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대 • 학력 • 월평균 급여 • 결혼 여부 • 취학자녀 유·무 • 맞벌이 여·부 • 직업 • (근무처) 업종 • (근무처) 직원 수 • 현 직장의 근무 경력 • 동일 업종 근무 경력 • 현 직장의 직장 근무 회차 수

주 1: 5점 척도 (각 11개 문항)

주 2: 5점 척도 (각 13개 문항)

주 3: 5점 척도 (각 33개 문항)

2. 설문조사 대상 지역의 이해

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DMC)는 서울시가 상암 지구에 569,925m² (약 17만 2천 평) 규모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핵심업종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M&E산업), M&E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M&E산업 관련 IT산업 등이다.

〈표 4-2〉 상암DMC의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규모	569,925m ² (사업용지 : 335,134m ² , 공공용지 : 234,791m ²)
사업기간	2002 ~ 2014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주요유치업종	1.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디지털교육 등 미디어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산업 2.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소비하는 산업 3.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4. IT, BT, NT 연구 및 제조업

DMC의 개발은 1998년 7월 고건 전 서울시장이 상암지역을 서북부지역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새서울타운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 송도미디어밸리사업 등 수도권 내 미디어밸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서울의 대표적 IT 집적지인 테헤란밸리의 경우 임대료가 높고 추가 개발용지가 부족하여, 상암의 경제 기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암에 미디어밸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2013년 10월 현재 DMC에는 총 39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약 30,204명의 종사자가 창조활동을 하고 있다.

〈표 4-3〉 DMC지역의 종사자 현황 (2013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총 계	M&E 콘텐츠						IT/SW				NT등	
		미디어	게임	영상물	교육 연구	기타	통신	SW /HW	IT	기타 IT			
기업수	398	202	35	32	42	11	82	177	12	122	22	21	19
종사자	30,204	11,766	5,922	1,421	1,799	1,219	1,405	17,187	5,483	4,769	5,042	1,893	1,251

주 : 미디어는 방송·신문, 영상물은 영화·애니메이션임

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우리나라는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80년대 말 과학기술처가 주관한 전 국토 기술지대망계획, 상공부가 주관한 첨단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을 통해 과학단지 개발에 대한 특성과 실제적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의 하남과학기술연구단지가 건설되었고, 수도권에 몇 개 대학에서도 대학 주도의 과학단지가 조성되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994년 11월, 정부가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BT(Bio Technology)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21세기 생명공학을 주도하는 생명과학단지로 국가전략상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된 사업인 것이다. 국가 주도 최초로 생명과학단지 조성을 통한 국책기관·산·학·연이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기술개발, 임상시험시설 공동 활동, 제품화 및 사업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도 산업으로서 생명과학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오송지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분기하며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강외면 일대로서, 청주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8km, 대덕연구단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다. 단지 서남쪽과 남쪽 경계부에는 각각 경부고속전철과 충북선이 통과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국책기관이 이전해 생명공학·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들이 입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혁신도시의 모델로도 부각되기도 한 지역이다.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설문응답자는 30대가 4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혼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나타냈다. 기혼 응답자 가운데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가장 적었다. 설문응답자의 직업은 자연과학연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현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5.6년, 동일업종에서의 경력은 평균 7.3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직장의 근속기간과 동일업종에서의 경력은 오랫동안 근무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16	54.0	취학중인 자녀유무	있 음	75	18.8
	여	184	46.0		없 음	100	25.0
연령	20대	119	29.8	직업	기술인력	99	24.8
	30대	184	46.0		문화·예술인력	103	25.8
	40대	72	18.0		자연과학연구자	136	34.0
	50대이상	25	6.3		공학연구자	62	15.5
결혼 유무	미 혼	225	56.3	현직장의 근속기간(년)	평균 : 5.6, 표준편차 : 6.7 중위수 : 3.0, 최대값 : 30.3, 최소값 : 0.1		
	기 혼	175	43.8	동일업종 경력 (년)	평균 : 7.3, 표준편차 : 6.7 중위수 : 5.0, 최대값 : 30.3, 최소값 : 0.1		

제2절 창조인재의 선호도 분석

1.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선호

가. 창조인재의 활동성

설문응답자들에게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창조인재의 활동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과의 만남 횟수와 정기적 모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만남 횟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여기서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혼여부, 취학자녀 유무, 직업 유형, 기관의 성격 등 응답자의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표 4-5〉 응답자 특성별 지인들과의 만남 (1년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지인들과의 만남				전 체	카이 제곱	p-value
		4회 미만	4~7회	8~11회	12회 이상			
결혼	미 혼	60 (26.7)	64 (28.4)	21 (9.3)	80 (35.6)	225 (100.0)	8.276	0.041***
	기 혼	58 (33.1)	63 (36.0)	10 (5.7)	44 (25.1)	175 (100.0)		
	전 체	118 (29.5)	127 (31.8)	31 (7.8)	124 (31.0)	400 (100.0)		
취학자녀	있 음	21 (28.0)	31 (41.3)	1 (1.3)	22 (29.3)	75 (100.0)	7.409	0.060***
	없 음	37 (37.0)	32 (32.0)	9 (9.0)	22 (22.0)	100 (100.0)		
	전 체	58 (33.1)	63 (36.0)	10 (5.7)	44 (25.1)	175 (100.0)		
직업	기술인력	18 (18.2)	34 (34.3)	9 (9.1)	38 (38.4)	99 (100.0)	27.141	0.001***
	문화·예술인력	24 (23.3)	29 (28.2)	7 (6.8)	43 (41.7)	103 (100.0)		
	자연과학 연구자	52 (38.2)	39 (28.7)	10 (7.4)	35 (25.7)	136 (100.0)		
	공학 연구자	24 (38.7)	25 (40.3)	5 (8.1)	8 (12.9)	62 (100.0)		
	전 체	118 (29.5)	127 (31.8)	31 (7.8)	124 (31.0)	400 (100.0)		
기관 성격	게임업체	5 (23.8)	8 (38.1)	0 (0.0)	8 (38.1)	21 (100.0)	33.917	0.001***
	게임을 제외한 IT 업체	12 (17.9)	21 (31.3)	8 (11.9)	26 (38.8)	67 (100.0)		
	방송·미디어업체	26 (22.2)	35 (29.9)	8 (6.8)	48 (41.0)	117 (100.0)		
	바이오업체	11 (45.8)	5 (20.8)	5 (20.8)	3 (12.5)	24 (100.0)		
	공공·민간 연구소	64 (37.4)	58 (33.9)	10 (5.8)	39 (22.8)	171 (100.0)		
	전 체	118 (29.5)	127 (31.8)	31 (7.8)	124 (31.0)	400 (100.0)		

주 1: 괄호안은 %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교차분석 결과, 결혼, 취학자녀, 직업, 기관성격 등 모든 특성에 대해 지인들과의 만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설문응답자가 미혼인 경우 지인들과 만남을 1년에 12회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기혼의 경우 4~7회로 미혼에 비해 만남의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에 한해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지인들과의 만남이 1년에 4~7회이지만, 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는 4회 미만으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만남의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지인들과 만남횟수의 차이는 직업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술인력과 문화·예술인력은 1년에 12회 이상, 공학연구자는 4~7회, 자연과학연구자의 경우는 4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성격에 따른 지인들과의 만남횟수를 살펴보면, 게임업체의 경우 4~7회 또는 12회 이상을 만나는 비중이, 게임을 제외한 IT업체 및 방송·미디어업체의 경우는 12회 이상을 만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바이오업체와 공공·민간연구소는 1년에 4회 미만으로, 다른 기관들의 평균 만남횟수인 4~7회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표 4-6>은 업무의 기술·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자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표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대부분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오프라인 정기모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92.6%)는 취학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83.3%)에 비해 정기적인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기술인력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학연구자는 온라인으로 모이는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성격별로는 공공·민간연구소가 온라인에 비해 오프라인 모임이 더 많은 결과를 나타냈다.

〈표 4-6〉 응답자 특성별 정기적 모임의 유형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온라인 모임의 비중	오프라인 모임의 비중
전 체		101	16.8	83.2
결혼 여부	미 혼	56	21.4	78.6
	기 혼	45	11.1	88.9
취학 중인 자녀 유무	있 음	27	7.4	92.6
	없 음	18	16.7	83.3
직 업	기술인력	42	14.3	85.7
	문화·예술인력	30	20.0	80.0
	자연과학연구자	26	15.4	84.6
	공학연구자	3	33.3	66.7
기관 성격	게임업체	7	14.3	85.7
	게임을 제외한 IT업체	20	15.0	85.0
	방송·미디어업체	35	20.0	80.0
	바이오업체	7	28.6	71.4
	공공·민간연구소	32	12.5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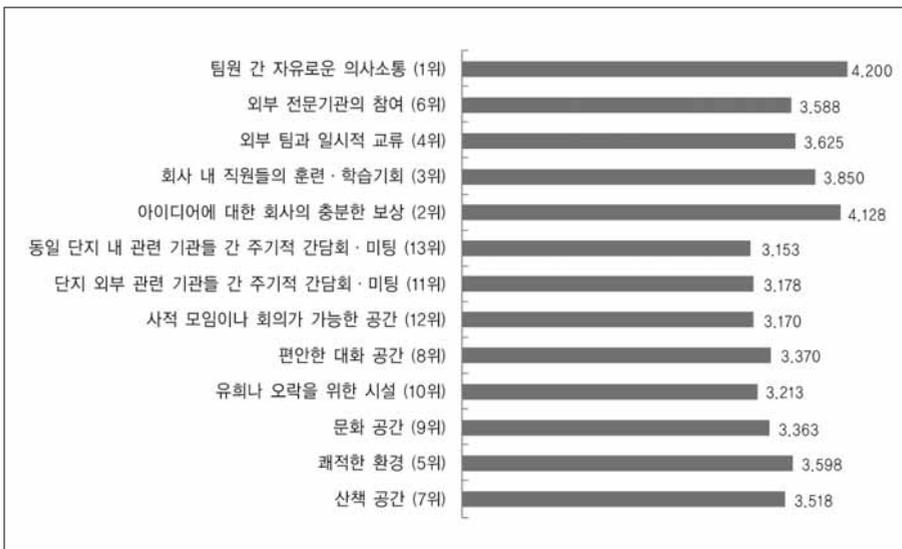
나. 클러스터환경의 만족도

설문응답자들에게 업무환경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등 크게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의 하위 항목으로 모두 13개의 상세요소를 설정하였다. 먼저 기업 요인은 프로젝트 팀원들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프로젝트 내 외부 전문기관의 다양한 참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부 팀과의 일시적 교류 보장, 회사에서 직원들의 훈련과 학습 기회 보장, 회사에서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상세요소로 포함하였다. 두 번째 업종교류 요인에는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관련 기관들 간의 주기적 간담회와 미팅의 활성화,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외부에 있는 관련 기관들 간의 주기적인 간담회와 미팅의 활성화,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사적 모임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 존재 등을 상세요소로 설정하였다. 세 번

재 문화어메니티 요인에는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카페와 라운지 등 편안한 대화공간 존재,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게임시설과 오락시설 등 유희와 오락을 위한 시설 존재,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소규모 극장 등 문화공간의 존재 등을 상세요소로 포함하였다. 환경어메니티 요인은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정원과 공원 그리고 광장 등 쾌적한 환경의 존재,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공간 존재 등을 상세요소로 설정하였다.

업무환경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업무환경 중요도의 점수는 13개 평가항목 모두 ‘보통’에 해당하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프로젝트 팀원들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4.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보상’, ‘회사 내 직원들의 훈련·학습 기회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관련 기관들 간 주기적 간담회·미팅’,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사적 모임이나 회의가 가능한 공간’은 각각 3.153점과 3.170점을 보여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업무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중요도 (N=400)



한편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13가지 상세요소들을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기업 요인이 3.8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업종교류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 (N=400)

단위: 5점 척도

구 분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평 균	3.878	3.617	3.315	3.558
표준편차	0.664	0.866	0.885	0.947
중위수	4.000	3.000	3.333	3.500

<표 4-8>은 결혼여부, 취학자녀 유무,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이들 각각의 특성과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분석하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라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요인은 업종교류 요인과 문화어메니티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업종교류 요인과 문화어메니티 요인에 중요성을 더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설문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업 요인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상암 DMC보다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특성 가운데 직업 요인의 경우는 그 유형을 기술인력, 문화·예술인력, 자연과학 연구자, 공학 연구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의 중요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별로 창조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의 만족도를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팀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3.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 내 직원들의 훈련·학습 기회 보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외부 팀과의 일시적 교류 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게임 시설과 오락시설 등 유희나 오락을 위한 시설’, ‘회사 내 또는 동일 단지 내 소규모 극장 등 문화공간의 존재’ 등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중요도 (응답자 특성별)

구분	영향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결혼 여부 (N=400)	기업 요인	미혼	3.868	0.680	-0.356	0.722
		기혼	3.891	0.646		
	업종교류 요인	미혼	3.433	0.822	3.044	0.002***
		기혼	3.164	0.941		
	문화어메니티 요인	미혼	3.433	0.822	3.044	0.002***
		기혼	3.164	0.941		
	환경어메니티 요인	미혼	3.622	0.918	1.552	0.121
		기혼	3.474	0.980		
취학 자녀 (N=175)	기업 요인	있음	3.856	0.678	-0.628	0.531
		없음	3.918	0.622		
	업종교류 요인	있음	3.116	0.924	-0.586	0.558
		없음	3.200	0.957		
	문화어메니티 요인	있음	3.116	0.924	-0.586	0.558
		없음	3.200	0.957		
	환경어메니티 요인	있음	3.500	0.983	0.300	0.765
		없음	3.455	0.982		
지역 (N=400)	기업 요인	상암	3.813	0.654	-1.964	0.050**
		오송	3.943	0.670		
	업종교류 요인	상암	3.323	0.915	0.188	0.851
		오송	3.307	0.856		
	문화어메니티 요인	상암	3.323	0.915	0.188	0.851
		오송	3.307	0.856		
	환경어메니티 요인	상암	3.558	0.966	0.000	1.000
		오송	3.558	0.931		

주 : *p<0.1, **p<0.05, ***p<0.01

〈그림 4-2〉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만족도 (N=400)



〈표 4-9〉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만족도 (N=400)

단위: 5점 척도

구 분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평 균	3.094	2.794	2.722	3.005
표준편차	0.751	0.817	0.916	0.979
중위수	3.000	3.000	3.000	3.000

〈표 4-10〉 업무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구분	영향 요인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결혼 여부 (N=400)	기업 요인	미혼	3.030	0.733	-1.918	0.056*
		기혼	3.175	0.766		
	업종교류 요인	미혼	2.729	0.892	0.178	0.858
		기혼	2.712	0.949		
	문화어메니티 요인	미혼	2.729	0.892	0.178	0.858
		기혼	2.712	0.949		
	환경어메니티 요인	미혼	3.036	0.978	0.707	0.480
		기혼	2.966	0.982		
취학 자녀 (N=175)	기업 요인	있음	3.243	0.790	1.014	0.312
		없음	3.124	0.748		
	업종교류 요인	있음	2.680	0.921	-0.390	0.697
		없음	2.737	0.974		
	문화어메니티 요인	있음	2.680	0.921	-0.390	0.697
		없음	2.737	0.974		
	환경어메니티 요인	있음	3.087	0.981	1.415	0.159
		없음	2.875	0.978		
지역 (N=400)	기업 요인	상암	3.156	0.790	1.669	0.096*
		오송	3.031	0.705		
	업종교류 요인	상암	2.798	0.948	1.677	0.094*
		오송	2.645	0.879		
	문화어메니티 요인	상암	2.798	0.948	1.677	0.094*
		오송	2.645	0.879		
	환경어메니티 요인	상암	3.000	1.008	-0.102	0.919
		오송	3.010	0.952		

주 : *p<0.1, **p<0.05, ***p<0.01

한편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13가지 상세요소들을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기업 요인이 3.0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어메니티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은 결혼여부, 취학자녀 유무,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만족도를 산출하였고, 이들 각각의 특성과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만족도를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의미

한 요인은 기업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기업 요인에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설문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암 DMC는 오송생명과학단지보다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등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특성 가운데 직업 요인의 경우는 그 유형을 기술인력, 문화·예술인력, 자연과학 연구자, 공학 연구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별로 창조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

가. 주거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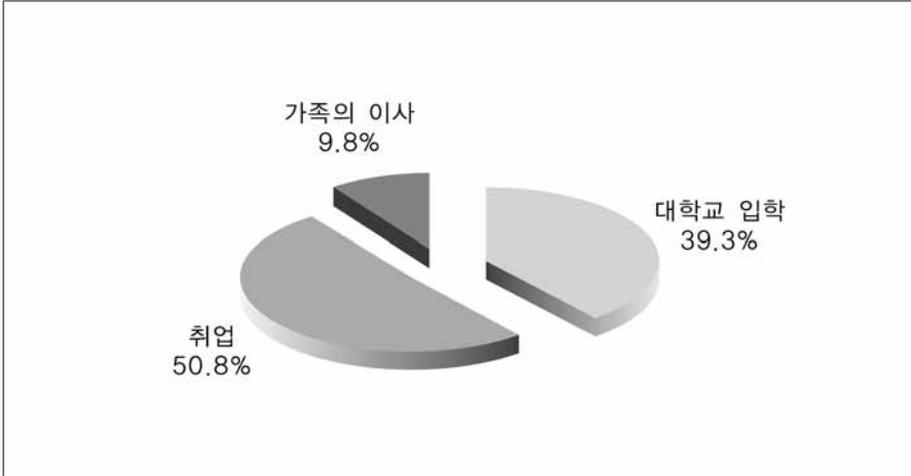
설문응답자의 주거환경 선택 및 만족도 분석에 앞서, 주거지의 변동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유와 회사 이전에 따른 주거지의 이전 여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상암 DMC 근무자 중 고향이 비수도권인 응답자에 한해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취업’이 50.8%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대학교 입학’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사한 주요 이유가 취업과 대학교 입학이 응답자의 90.1%를 차지하는 반면, ‘가족의 이사’는 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근무자에게 회사의 오송 이전에 따른 주거지 이전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이주 안함’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단독 이주’가 36.5%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가족 전부(일부) 이주’는 24.0%로 나타났다. 회사가 이전하더라도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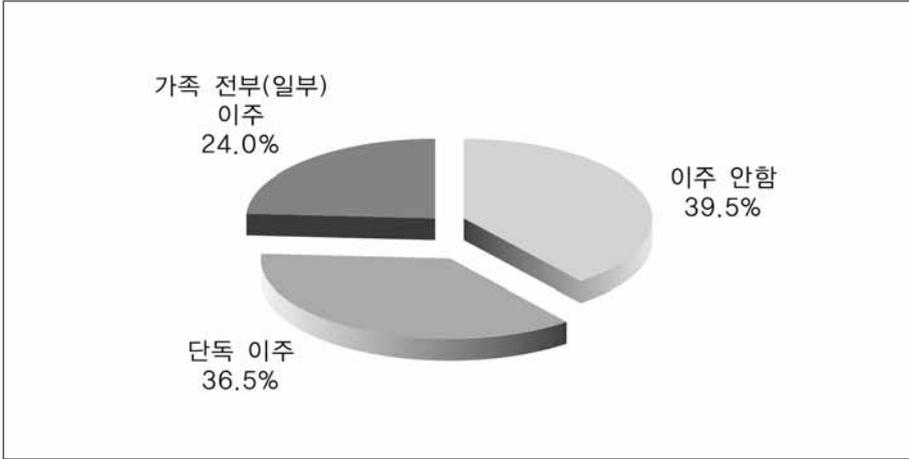
나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76.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가족(전부 또는 일부 포함)의 이주도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3〉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유 (N=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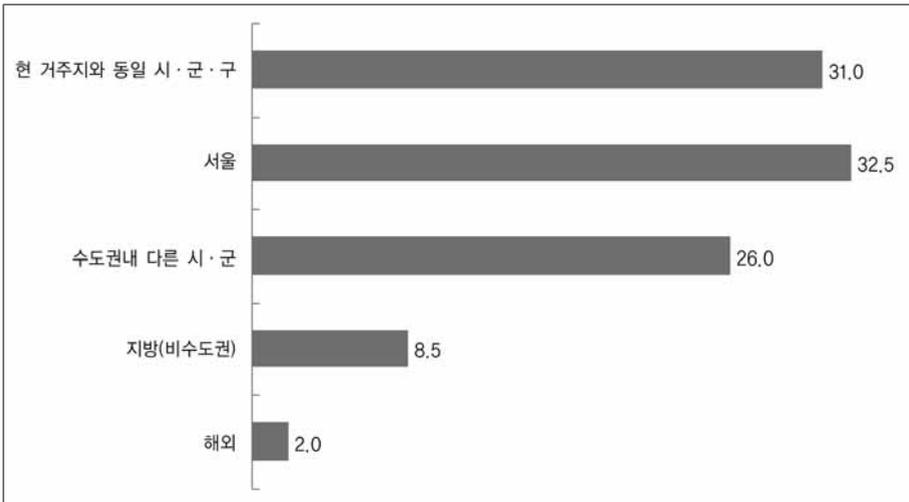


주거지 변동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 거주지 이전의 거주지역을 설문하였다. 이전의 거주지역은 상암 DMC의 경우 ‘현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수도권 내 다른 시·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의 거주지역이 ‘서울과 대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상암 DMC의 경우 이전의 거주지역이 현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를 제외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많은 반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의 거주지역이 현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를 제외하면 상암 DMC에 비해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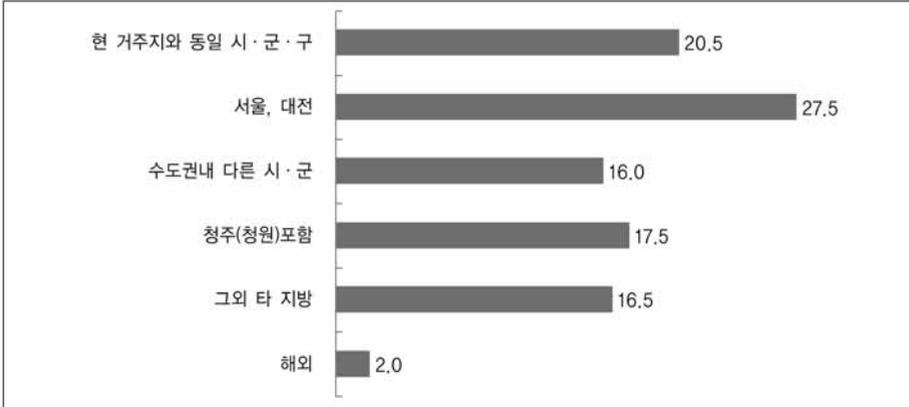
〈그림 4-4〉 회사의 오송이전에 따른 주거지 이전 여부 (N=200)



〈그림 4-5〉 상암 DMC의 현 거주지 이전 거주지역 (N=200, %)



〈그림 4-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 거주지 이전 거주지역(N=200, %)



현 거주지의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서 ‘2~5년 미만’이 24.0%를 나타내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 ‘1~2년 미만’, ‘1년 미만’, ‘5년~10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을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암 DMC가 ‘10년 이상’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5년 미만’, ‘5~10년 미만’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2~5년 미만’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1~2년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별로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상암 DMC의 경우 5년 이상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데 반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5년 미만이 전체의 69.5%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상암 DMC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비해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이 훨씬 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11〉 조사지역별 현 거주지 거주기간 (%)

구 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N=400)	17.5	17.8	24.0	14.3	26.5
상암(N=200)	13.0	14.5	21.5	17.5	33.5
오송(N=200)	22.0	21.0	26.5	11.0	19.5

향후 주거지 변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문응답자 특성별 향후 이사계획을 조사하였다.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는 결혼여부 및 취학 중인 자녀 유무, 직업 등을 조사하였고, 응답자 특성과 향후 이사계획 여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2〉 응답자 특성별 향후 이사계획

단위 : 명, %

구 분		이사계획		전 체	카이제곱	p-value
		예	아니오			
결혼	미 혼	98 (43.6)	127 (56.4)	225 (100.0)	1.933	0.158
	기 혼	64 (36.6)	111 (63.4)	175 (100.0)		
	전 체	162 (40.5)	238 (59.5)	400 (100.0)		
취학 자녀	있 음	20 (26.7)	55 (73.3)	75 (100.0)	5.551	0.018**
	없 음	44 (44.0)	56 (56.0)	100 (100.0)		
	전 체	64 (36.6)	111 (63.4)	175 (100.0)		
직업	기술인력	49 (49.5)	50 (50.5)	99 (100.0)	12.573	0.006***
	문화·예술인력	50 (48.5)	53 (51.5)	103 (100.0)		
	자연과학연구자	45 (33.1)	91 (66.9)	136 (100.0)		
	공학 연구자	18 (29.0)	44 (71.0)	62 (100.0)		
	전 체	162 (40.5)	238 (59.5)	400 (100.0)		

주 1: 괄호 안은 %임

주 2: * $p < 0.1$, ** $p < 0.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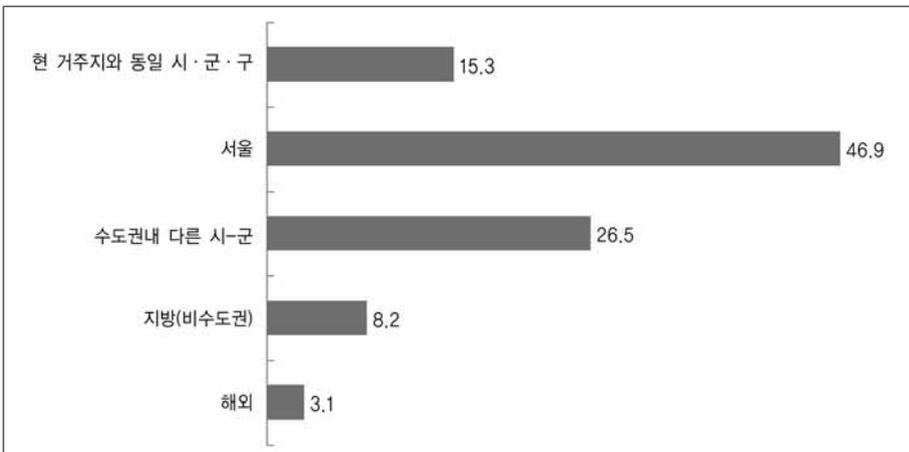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과 향후 이사계획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자녀의 유무와 직업은 이사계획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이사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비중이 73.3%로 나타나 평균에 비해 이사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 이사계획 여부를 살펴보면, 공학연구자의 비중이 71.0%로 이사계획이 가장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과학연구자, 문화예술인력, 기술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학연구자와 자연과학연구자는 평균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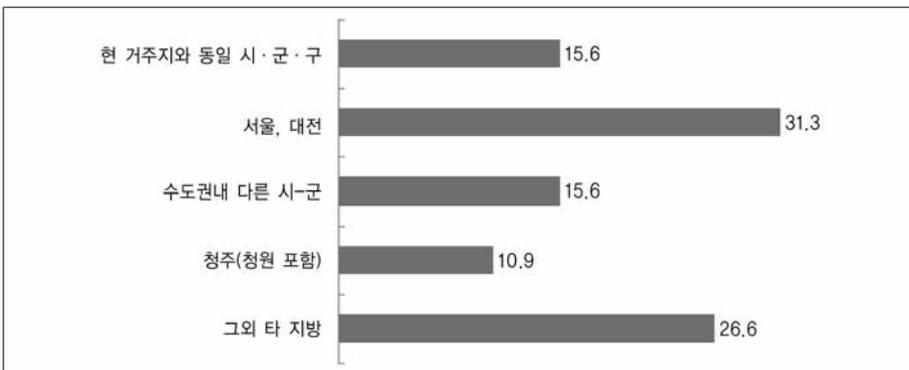
해 이사계획이 더욱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5년 내 이사계획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희망하는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5년 내 이사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의 이사희망 지역은 상암 DMC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4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내 다른 시·군’, ‘현 주거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주거지와 동일한 시·군·구’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희망지역이 전체 응답자의 73.4%로 나타나 서울지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상암 DMC의 희망 거주지역 (N=98, %)



〈그림 4-8〉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희망 거주지역(N=64, %)



한편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서울, 대전’의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그 외 다른 지방’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다른 시·군’과 ‘현 주거지와 동일한 시·군·구’는 각각 15.6%씩 동일한 비중을, 그리고 ‘청주’가 10.9%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상암 DMC와 비교하여 서울지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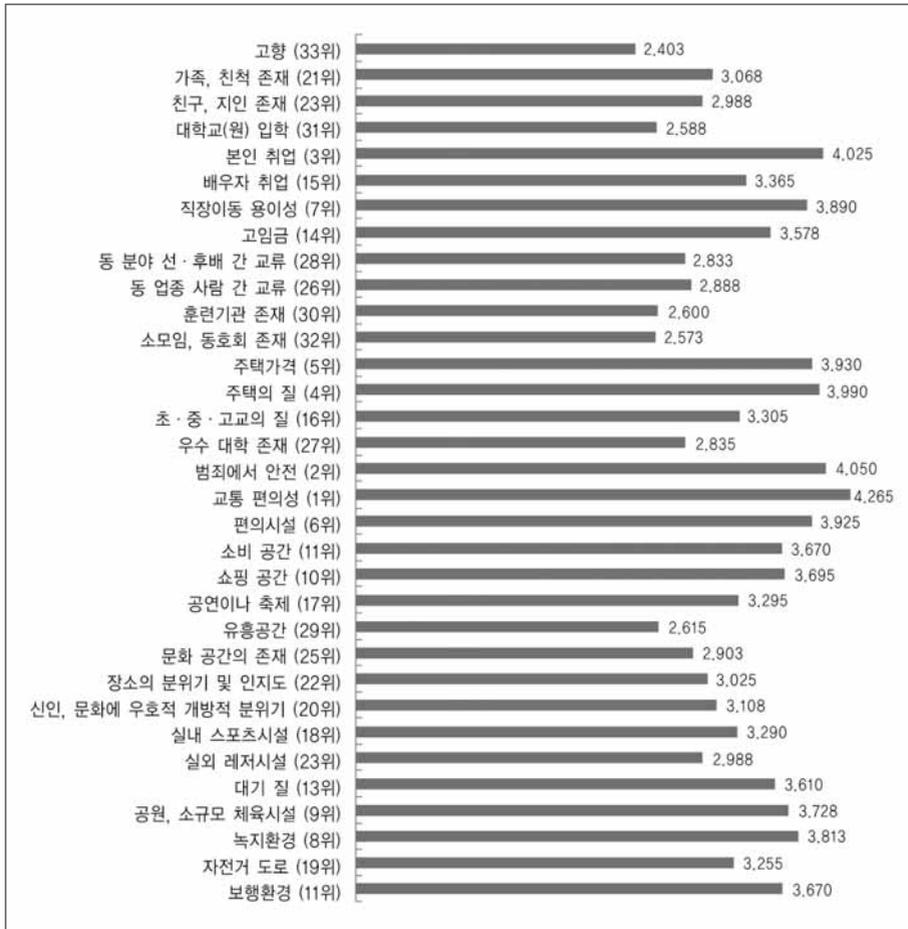
나.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설문응답자들에게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요소로서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훈련기회, 근린어메니티, 문화어메니티, 환경어메니티 등 크게 6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의 하위 항목으로 모두 33개의 상세요소를 설정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는 고향, 가족과 친척의 존재, 친구와 지인의 존재, 대학교(원) 입학 등을 상세요소로 포함하였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 본인 취업, 배우자 취업, 직장이동 용이성, 높은 임금 등을 상세요소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훈련기회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선·후배와의 교류, 동종업종 사람과의 교류, 훈련기관 존재, 소모임과 동호회의 존재 등을 상세요소로 포함하였다. 네 번째 근린어메니티는 주택가격, 주택의 질, 초·중·고등학교의 질, 좋은 대학의 존재, 범죄로부터 안전, 교통 편의성, 병원과 은행과 같은 편의시설 등을 상세요소로 설정하였다. 다섯 번째 문화어메니티는 카페·음식점 등의 소비공간, 백화점·대형마트 등 쇼핑공간, 문화예술공연이나 축제, 클럽과 주점 등의 유흥공간, 인디밴드 또는 외국인 공간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의 존재, 장소의 분위기 및 인지도, 새로운 사람과 문화에 우호적·개방적인 분위기, 수영장 또는 볼링장 같은 실내 스포츠시설, 유원지와 수상스키 그리고 동물원과 같은 레저시설 등을 상세요소로 포함하였다. 여섯 번째 환경어메니티는 대기질, 공원 또는 소규모 체육시설, 쾌적한 녹지환경, 자전거 도로, 걷기 좋은 보행환경 등을 상세요소로 설정하였다.

주거지 선택시 33개 고려요소의 중요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 점수는 ‘교통 편의성’이 4.2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범죄에서 안전’, ‘본인 취업’, ‘주택의 질’, ‘주택가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향’, ‘소모임, 동호회의 존재’ 등의 요소는 중요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4-9〉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중요도 (N=400)



한편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으로서 위의 33가지 상세요소들을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근린 어메니티가 3.7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요인, 환경어메니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훈련기회는 2.7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4-13 >참조).

<표 4-13>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 (N=400)

단위: 5점 척도

구 분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훈련기회	근린 어메니티	문화 어메니티	환경 어메니티
평 균	2.761	3.714	2.723	3.757	3.176	3.615
표준편차	1.041	0.886	0.932	0.797	0.898	0.976
중위수	3.000	3.750	3.000	3.857	3.111	3.600

<표 4-14>는 결혼여부, 취학자녀 유무,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의 중요도를 요인별로 산출하였고, 이들 각각의 특성과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의 중요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경제적 요인에 중요성을 더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인 가운데 ‘훈련기회’와 ‘환경어메니티’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은 취학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이들 요인에 대해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요인은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평균 2.901점, 상암 DMC는 평균 2.621점의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평균 3.818점, 상암 DMC는 평균 3.611점의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어메니티에 대해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평균 3.747점, 상암 DMC는 평균 3.483점의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상암 DMC보다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어메니티 등에서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4〉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응답자 특성별)

구 분	결혼여부(N=400)		평 균	표준편차	t	p-value
결혼 여부 (N=400)	개인적요인	미혼	2.799	1.031	0.820	0.413
		기혼	2.713	1.054		
	경제적요인	미혼	3.647	0.866	-1.738	0.083*
		기혼	3.801	0.906		
	훈련기회	미혼	3.555	0.977	-1.404	0.161
		기혼	3.693	0.972		
	근린어메니티	미혼	3.700	0.761	-1.619	0.106
		기혼	3.830	0.839		
	문화어메니티	미혼	3.188	0.949	0.297	0.767
		기혼	3.161	0.831		
	환경어메니티	미혼	3.555	0.977	-1.404	0.161
		기혼	3.693	0.972		
취학 자녀 (N=175)	개인적요인	있음	2.743	1.140	0.330	0.742
		없음	2.690	0.991		
	경제적요인	있음	3.713	0.934	-1.115	0.266
		없음	3.868	0.883		
	훈련기회	있음	3.875	0.910	2.169	0.031**
		없음	3.556	0.999		
	근린어메니티	있음	3.796	0.923	-0.463	0.644
		없음	3.856	0.774		
	문화어메니티	있음	3.121	0.847	-0.548	0.585
		없음	3.191	0.821		
	환경어메니티	있음	3.875	0.910	2.169	0.031**
		없음	3.556	0.999		
지역 (N=400)	개인적요인	상암	2.621	0.986	-2.712	0.007***
		오송	2.901	1.077		
	경제적요인	상암	3.611	0.936	-2.341	0.020**
		오송	3.818	0.823		
	훈련기회	상암	3.483	1.051	-0.472	0.637
		오송	3.710	0.783		
	근린어메니티	상암	3.734	0.775	-0.591	0.555
		오송	3.781	0.821		
	문화어메니티	상암	3.144	0.914	-0.724	0.470
		오송	3.209	0.883		
	환경어메니티	상암	3.483	1.051	-2.727	0.007***
		오송	3.747	0.877		

주 : *p<0.1, **p<0.05, ***p<0.01

〈표 4-15〉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중요도 (응답자 직업 특성별)

구 분	직업유형	평 균	표준편차	F	p-value
개인적 요인	기술인력	2,540	0,951	2,979	0.031**
	문화·예술인력	2,728	1,033		
	자연과학연구자	2,833	1,112		
	공학연구자	3,012	0,977		
	합 계	2,761	1,041		
경제적 요인	기술인력	3,667	0,829	1,794	0.148
	문화·예술인력	3,573	1,031		
	자연과학연구자	3,820	0,842		
	공학연구자	3,794	0,785		
	합 계	3,714	0,886		
훈련기회	기술인력	3,448	1,061	2,574	0.054*
	문화·예술인력	3,518	1,036		
	자연과학연구자	3,757	0,840		
	공학연구자	3,729	0,972		
	합 계	3,615	0,976		
근린 어메니티	기술인력	3,772	0,787	0,284	0.837
	문화·예술인력	3,695	0,757		
	자연과학연구자	3,784	0,800		
	공학연구자	3,779	0,883		
	합 계	3,757	0,797		
문화 어메니티	기술인력	3,021	0,922	2,108	0.099*
	문화·예술인력	3,271	0,889		
	자연과학연구자	3,266	0,849		
	공학연구자	3,072	0,953		
	합 계	3,176	0,898		
환경 어메니티	기술인력	3,448	1,061	2,574	0.054*
	문화·예술인력	3,518	1,036		
	자연과학연구자	3,757	0,840		
	공학연구자	3,729	0,972		
	합 계	3,615	0,976		

주 : * $p < 0.1$, ** $p < 0.05$, *** $p < 0.01$

응답자 특성 가운데 직업 요인의 경우는 그 유형을 기술인력, 문화·예술인력, 자연과학 연구자, 공학 연구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4개 집단의 중요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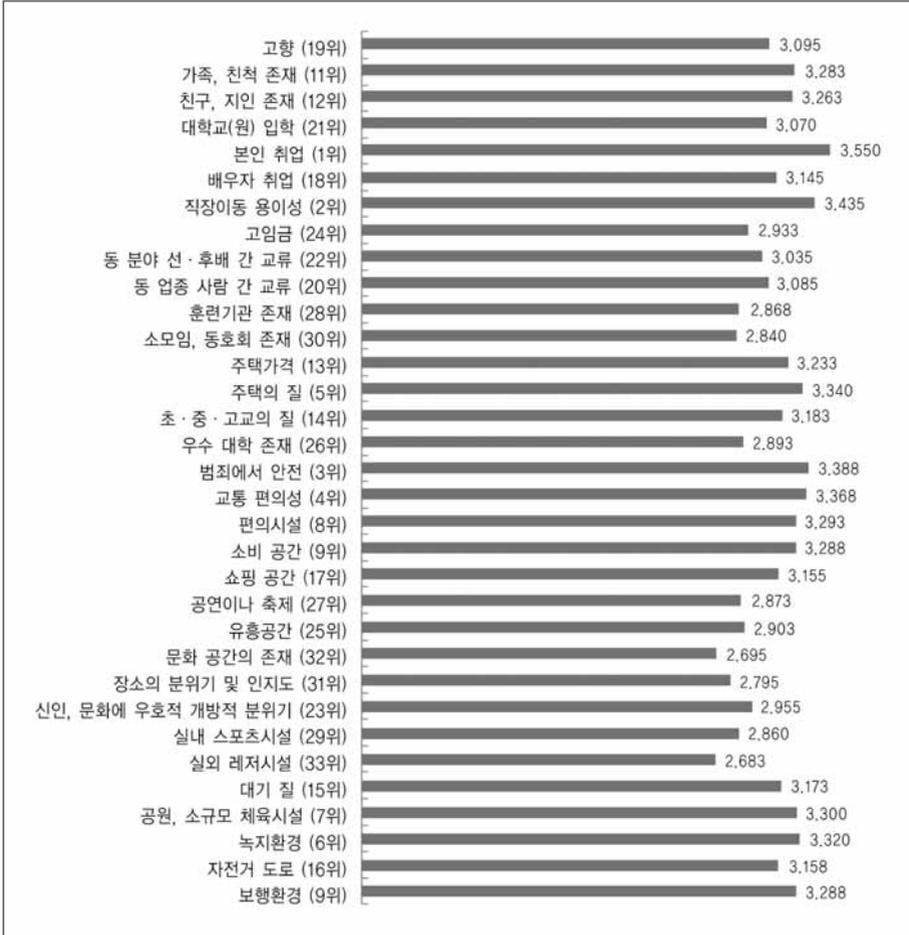
다(<표 4-15> 참조). 그 결과, 개인적인 요인, 훈련기회, 문화어메니티, 환경어메니티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공학연구자(평균 3.012점)이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연구자(평균 2,83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훈련기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자연과학연구자(평균 3.757점)이고, 그 다음으로 공학연구자(평균 3.7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어메니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문화예술인력(평균 3.271점)이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연구자(평균 3.26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어메니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자연과학연구자(평균 3.757점)이고, 그 다음으로 공학연구자(평균 3.7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요소들의 중요도에 이어,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중요도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선택시 33개 고려요소의 만족도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본인취업’이 3.5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장이동의 용이성’, ‘범죄로부터의 안전’, ‘교통 편의성’, ‘주택의 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디밴드, 외국인 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의 존재’, ‘유원지, 수상스키, 동물원 등 실외 레저시설’ 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요소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교통 편의성’은 만족도에서는 4위를 나타냈다. 중요도 2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의 안전’은 만족도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중요도 3위를 나타낸 ‘본인취업’의 경우 만족도에서는 1위에 해당했으며, 중요도 4위를 차지한 ‘주택의 질’은 만족도에서 5위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중요도 5위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만족도가 13위를 나타내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선택시 가장 고려하지 않는 요소인 ‘고향’은 오히려 만족도에서는 19위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요소인 ‘실외 레저시설’은 중요도에서는 23위에 해당하며, 만족도 32위인 ‘문화공간의 존재’도 중요도에서는 25위의 결과를 나타내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가 큰 결과를 보였다.

〈그림 4-10〉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소별 만족도 (N=400)



〈표 4-16〉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 (N=400)

단위: 5점 척도

구 분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훈련기회	근린 어메니티	문화 어메니티	환경 어메니티
평 균	3.178	3.266	2.957	3.242	2.912	3.248
표준편차	0.921	0.853	0.756	0.759	0.861	0.921
중위수	3.000	3.250	3.000	3.286	3.000	3.200

〈표 4-17〉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응답자 특성별)

구 분	고려요인		평 균	표준편차	t	p-value
결혼 여부 (N=400)	개인적요인	미혼	3.186	0.952	0.198	0.843
		기혼	3.167	0.884		
	경제적요인	미혼	3.140	0.854	-3.382	0.001***
		기혼	3.427	0.827		
	훈련기회	미혼	3.182	0.883	-1.610	0.108
		기혼	3.331	0.964		
	근린어메니티	미혼	3.212	0.763	-0.899	0.369
		기혼	3.281	0.754		
	문화어메니티	미혼	2.910	0.883	-0.040	0.968
		기혼	2.914	0.834		
	환경어메니티	미혼	3.182	0.883	-1.610	0.108
		기혼	3.331	0.964		
취학 자녀 (N=175)	개인적요인	있음	3.310	0.885	1.865	0.064*
		없음	3.060	0.872		
	경제적요인	있음	3.457	0.872	0.408	0.684
		없음	3.405	0.795		
	훈련기회	있음	3.443	0.964	1.325	0.187
		없음	3.248	0.960		
	근린어메니티	있음	3.400	0.725	1.823	0.070*
		없음	3.191	0.767		
	문화어메니티	있음	2.911	0.808	-0.034	0.973
		없음	2.915	0.858		
	환경어메니티	있음	3.443	0.964	1.325	0.187
		없음	3.248	0.960		
지역 (N=400)	개인적요인	상암	3.214	0.811	0.786	0.432
		오송	3.141	1.021		
	경제적요인	상암	3.213	0.836	-1.246	0.213
		오송	3.319	0.869		
	훈련기회	상암	3.359	0.872	2.435	0.015**
		오송	3.136	0.957		
	근린어메니티	상암	3.389	0.669	3.927	0.000***
		오송	3.096	0.815		
	문화어메니티	상암	3.132	0.758	5.282	0.000***
		오송	2.692	0.902		
	환경어메니티	상암	3.359	0.872	2.435	0.015**
		오송	3.136	0.957		

주 : * $p < 0.1$, ** $p < 0.05$, *** $p < 0.01$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으로서 33가지 상세요소들을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3.2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어메니티, 근린어메니티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훈련기회는 2.9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표 4-16>참조).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근린어메니티는 만족도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훈련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은 결혼여부, 취학자녀 유무, 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의 만족도를 요인별로 산출하였고, 이들 각각의 특성과 만족도를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라 만족도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경제적 요인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학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주거지 선택시 고려요인 가운데 개인적인 요인과 근린어메니티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학자녀가 있는 가정은 취학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이들 요인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지역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요인은 훈련기회, 근린어메니티, 문화어메니티, 환경어메니티가 있다. 훈련기회에 대해서는 상암 DMC의 경우 평균 3.359점, 오송생명과학단지 평균 3.136점의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어메니티에 대해서는 상암 DMC의 경우 평균 3.389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평균 3.096점의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어메니티에 대해서는 상암 DMC의 경우 평균 3.132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평균 2.692점의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어메니티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암 DMC의 경우 평균 3.359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평균 3.136점의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암 DMC는 오송생명과학단지보다 훈련기회, 근린어메니티, 문화어메니티, 환경어메니티 등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8〉 주거지 선택시 요인별 만족도 (응답자 직업 특성별)

구 분	직업유형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개인적 요인	기술인력	3.215	0.664	0.348	0.790
	문화·예술인력	3.228	0.944		
	자연과학연구자	3.147	0.983		
	공학연구자	3.101	1.096		
	합 계	3.178	0.921		
경제적 요인	기술인력	3.121	0.856	1.357	0.256
	문화·예술인력	3.311	0.812		
	자연과학연구자	3.336	0.806		
	공학연구자	3.266	0.997		
	합 계	3.266	0.853		
훈련기회	기술인력	3.388	0.893	2.436	0.064*
	문화·예술인력	3.334	0.848		
	자연과학연구자	3.090	0.958		
	공학연구자	3.226	0.968		
	합 계	3.248	0.921		
근린 어메니티	기술인력	3.416	0.641	5.730	0.001**
	문화·예술인력	3.366	0.699		
	자연과학연구자	3.058	0.816		
	공학연구자	3.164	0.813		
	합 계	3.242	0.759		
문화 어메니티	기술인력	3.122	0.683	10.641	0.000***
	문화·예술인력	3.146	0.823		
	자연과학연구자	2.620	0.908		
	공학연구자	2.826	0.880		
	합 계	2.912	0.861		
환경 어메니티	기술인력	3.388	0.893	2.436	0.064*
	문화·예술인력	3.334	0.848		
	자연과학연구자	3.090	0.958		
	공학연구자	3.226	0.968		
	합 계	3.248	0.921		

주 : *p<0.1, **p<0.05, ***p<0.01

응답자 특성 가운데 직업 요인의 경우는 그 유형을 기술인력, 문화·예술인력, 자연과학 연구자, 공학 연구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개 집단

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표 4-18>참조). 그 결과, 훈련기회, 근린어메니티, 문화어메니티, 환경어메니티 등이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별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살펴 보면, 4가지 요인 모두 기술인력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인력으로 나타났다.

제3절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생산자인 창조인재를 유인·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mobility) 특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역 이동을 촉발할 수 있는 직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동을 유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물론 직장 이동이 항상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는 공간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 이동성이 높을 경우, 특히 본인의 직장이 있는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경제적 활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 즉 창조인재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점에서 창조인재의 이동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접적 분석으로 작업환경과 직장 이동성을 살펴보고, 그 이후 직접적 분석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주거이동과 정주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클러스터 환경과 직장 이동

앞 절에서는 창조인재들의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클러스터 환경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기업 요인, 업종교류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 환경어메니티 요인 등 4대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해당 4대 요인별 직장 선택시 고려

사항의 중요도와 현재의 만족도 간 차이, 즉 4대 요인별 불만이 직장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직장 이직시 고려사항의 상기 4대 요인별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시행한 결과, 이직 계획이 있는 집단과 이직 계획이 없는 집단 간에 기업 요인, 문화어메니티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창조인재의 창조성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 요인과 환경어메니티 요인에 대해 창조인재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경우에 직장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직장이동(N=400)

단위 : 5점 척도

고려 요인	이직계획 유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차이) 기업 요인	있음	205	0.902	0.071	-2.540	0.012**
	없음	195	0.661	0.063		
(차이) 업종교류 요인	있음	205	0.366	0.073	0.139	0.890
	없음	195	0.379	0.065		
(차이) 문화어메니티 요인	있음	205	0.748	0.079	-3.036	0.003**
	없음	195	0.431	0.068		
(차이) 환경어메니티 요인	있음	205	0.644	0.092	-1.609	0.108
	없음	195	0.456	0.070		

주 : *p<0.1, **p<0.05, ***p<0.01

한편, 직장 이직계획은 단순히 해당 클러스터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이직 여부에 대해서는 창조인재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창조인재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조인재의 개인적 속성인 생애주기와 클러스터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창조인재의 직장 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짓(log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석의 종속변수는 직장 이직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있으면=1, 없으면=0)로 설정하였다. 창조인재의 생애주기 관련 독립 변수는 창조인재의 유형, 연령, 결혼 유무, 그리고 취학자녀 유무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창조인재는 해당 창조인재가 종사하는 직무 성격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클러스터환경(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불만에 대한 민감도(즉, 주거이전)가 다를 수 있다.

창조인재의 유형을 문화예술인력, 기술인력, 그리고 연구자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 관련 변수 중에 결혼 유무와 취학자녀 유무가 경험연구들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혼 유무와 취학자녀 유무는 중복적인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설문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유무와 취학자녀 유무 간 상관관계는 0.55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상기 2개 중 취학자녀 유무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군이나 보육시설 인프라가 주택 가격을 결정할 정도로 자녀 교육열이 높아, 창조인재를 포함한 가구의 결정에 있어서 결혼보다는 취학자녀 유무가 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0〉 로짓모델 :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불만과 직장이직

변 수	변수설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P>z
창조인재 유형	연구자=1, 기술인력=2, 문화예술인력=3	0.138	0.132	0.296
취학자녀 유무	없음=0, 있음=1	-0.800	0.363	0.027**
연 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0.527	0.163	0.001***
(차이) 기업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278	0.142	0.051*
(차이) 업종교류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280	0.148	0.058*
(차이) 문화어메니티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361	0.170	0.034**
(차이) 환경어메니티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098	0.140	0.487
상 수	중요도-만족도 차이	0.726	0.404	0.073

주 : 관찰치 = 400, Log likelihood = -247.98122, LR $\chi^2(7) = 53.31$, Prob) $\chi^2 = 0.000$

*p<0.1, **p<0.05, ***p<0.01

로짓모델 분석결과, 직장이동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취학자녀 유무, 연령, 기업 요인에 대한 불만, 업종교류 요인에 대한 불만, 문화어메니티 요인에 대한 불만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예컨대 취학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 이직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업 요인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그리고 클러스터 내 문화어메니티 요인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직장 이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클러스터 업종교류 요인에 오히려 음(-)의 회귀계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어, 클러스터 내 업종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 이직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교류를 통해 다른 직장 이직을 도모하는 창조인재들의 전형적인 job-hopping 전략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역 특성요인과 주거 이동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공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들이 창조인재의 향후 5년 이내 주거 이동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비공간적 요소로는 개인적 요인(고향, 가족 등 인적 네트워크 및 대학진학 등), 경제적 요인(취업가능성, 임금, 이직가능성 등), 훈련기회 요인(동종업종 및 관련 업종 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등을 조사하였고, 공간적 요소로는 근린어메니티 요인(주택 가격 및 질, 초중고 및 대학의 질, 안전, 편의성 등), 문화어메니티 요인(소비공간, 문화, 장소정체성 등), 환경어메니티 요인(대기질, 녹지환경, 공원, 보행환경 등)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현 주거지를 선택하였을 때 상기 공간적·비공간적 요인들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구하면 창조인재의 개별 요인에 대한 불만족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응답자의 주거환경 불만족도와 주거 이동계획 간 관계에 대해 각각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요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검정은 요인별 차이를 단순히 보여주는 데에 불과하고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창조인재의 주거이동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선택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 각 요인의 불만스러운 요소와 창조인재의 생애주기와 결합할 때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log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5년 이내 주거이전계획의 유무라는 더미변수(0, 1)이고 확률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로짓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TATA 10.0를 사용하였다.

〈표 4-21〉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주거이동(N=400)

고려요인	이동계획 유무	평 균	표준편차	t	p-value
개인적 요인	있 음	-0.221	1.192	2.835	0.005***
	없 음	-0.549	1.100		
경제적 요인	있 음	0.715	1.093	4.282	0.000***
	없 음	0.268	0.975		
훈련기회	있 음	-0.142	0.996	1.510	0.132
	없 음	-0.296	1.007		
근린어메니티	있 음	0.653	1.029	2.290	0.023**
	없 음	0.421	0.976		
문화어메니티	있 음	0.400	1.099	2.106	0.036**
	없 음	0.173	1.031		
환경어메니티	있 음	0.560	1.175	2.742	0.006***
	없 음	0.236	1.152		

주 : *p<0.1, **p<0.05, ***p<0.01

Logit 모델의 독립변수는 창조인재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변수(창조인재의 유형, 결혼유무, 취학자녀유무)와 6개 주거환경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창조인재의 생애주기 관련 변수는 앞에서의 직장이직에 대한 로짓모델에서 이용한 창조인재의 유형, 연령, 그리고 취학자녀 유무 등이다. 한편 주거환경요인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주거환경 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주거환경 요인에 대한 기대치(선택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조인재의 주거지 이동 여부를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느냐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창조인재의 주거 이동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지역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인재 유인 및 유지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주거이동이 있는 경우는 주거이동이 없다고 간주하고 다른 시·군·구로 이동할 경우에만 이동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로짓모델 분석 결과, 창조인재의 유형, 연령,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의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인재 유형의 회귀계수(0.565)가 양(+)으로 나와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일 경우 연구자에 비하여 기술인

력이, 그리고 기술인력에 비하여 문화예술인력이 상대적으로 주거지 이전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학자녀 유무 변수는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동을 할 계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오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서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창조인재의 생애주기를 보여주는 또다른 변수인 연령의 회귀계수는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창조인재의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길 계획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개 주거환경요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가족, 지인 등의 개인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에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 월급,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가능성 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에도 다른 시·군·구로 이동을 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동계획 유무와 관련해서는 문화어메니티나 환경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서구의 창조인재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또한 최근 수정된 창조인재연구들에서 생애주기를 강조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로짓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시·군에 있는 창조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지역에 있는 창조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기 위하여, 즉 두뇌 유출(brain drain)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유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위하여 주거이동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시와 대도시의 매력이 창조인재의 주거이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이동의 범위가 현재 지역(1)에 잔류 또는 지역내 이동, 중도시지역(2)으로 이동, 대도시 지역(3)으로 이동 등 종속변수의 명목척도가 3개 이상이므로, 다항로짓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준거집단(base)을 현재 지역이나 현

재 지역내 이동(1)으로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모델1은 현재 지역내 이동 대비 중도시로의 이동 확률을 뜻하며 모델 2는 현재 지역내 이동 대비 대도시로의 이동 확률을 뜻한다.

〈표 4-22〉 로짓모델 :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과 주거지 변동

변 수	변수설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P)z
창조인재 유형	연구자=1, 기술인력=2, 문화예술인력=3	0.565	0.139	0.000***
취학자녀 유무	없음=0, 있음=1	-0.086	0.386	0.823
연 령	20대=1, 30대=2, 40대=3, 50대=4	-0.415	0.170	0.014**
(차이) 개인적 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216	0.114	0.058*
(차이) 경제적 요인	중요도-만족도 차이	0.398	0.122	0.001***
(차이) 훈련기회	중요도-만족도 차이	-0.174	0.140	0.215
(차이) 근린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	-0.146	0.158	0.354
(차이) 문화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	0.162	0.154	0.293
(차이) 환경어메니티	중요도-만족도 차이	0.206	0.130	0.113
상 수	-	-1.065	0.413	0.01

주 : 관찰치 = 400, Log likelihood = -232.01487, LR $\chi^2(9) = 50.11$, Prob > $\chi^2 = 0.000$

*p<0.1, **p<0.05, ***p<0.01

모델 분석 결과, 중도시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조인재유형과 경제적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시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유인에 대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고 창조인재 유형 중에서는 특히 문화예술인력을 유인하는 데에 노력하면 향후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도시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모델 2], 창조인재 유형, 연령, 개인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어메니티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창조인재 연구에서 강조해왔던 문화어메니티의 매력이 대도시로의 이동을 촉발시킨다는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창조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

기 위해서는 문화어메니티에 대한 투자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항로짓 모델 분석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들, 예를 들어, 근린어메니티와 환경어메니티가 창조인재의 주거환경 요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항로짓에서 개별 변수는 준거집단인 현재 지역에 비해서 이동희망지역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대비교의 관점에서 도출된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비교의 관점에서 도출된 확률은 아니다.

〈표 4-23〉 다항 로짓모델 : 목적지 유형별 주거지 변동의 영향요인

구 분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z	P> z
모델 1 ¹⁾	창조인재 유형	0.510	0.179	2.85	0.00***
	취학자녀 유무	0.421	0.462	0.91	0.36
	연 령	-0.344	0.221	-1.56	0.12
	(차이) 개인적요인	0.196	0.150	1.31	0.19
	(차이) 경제적요인	0.359	0.158	2.27	0.02**
	(차이) 훈련기회	-0.173	0.180	-0.96	0.34
	(차이) 근린어메니티	-0.014	0.204	-0.07	0.95
	(차이) 문화어메니티	-0.051	0.204	-0.25	0.80
	(차이) 환경어메니티	0.171	0.166	1.03	0.31
	상 수	-1.949	0.547	-3.56	0.00
모델 2 ²⁾	창조인재 유형	0.616	0.171	3.59	0.00***
	취학자녀 유무	-0.895	0.611	-1.46	0.14
	연 령	-0.473	0.213	-2.22	0.03**
	(차이) 개인적요인	0.241	0.139	1.73	0.08**
	(차이) 경제적요인	0.426	0.150	2.84	0.01**
	(차이) 훈련기회	-0.175	0.175	-1	0.32
	(차이) 근린어메니티	-0.267	0.200	-1.34	0.18
	(차이) 문화어메니티	0.334	0.189	1.76	0.08**
	(차이) 환경어메니티	0.245	0.162	1.52	0.13
	상 수	-1.630	0.514	-3.17	0.00

주 : 관찰치 = 400, Log likelihood = -320.15354, LR $\chi^2(18) = 62.11$, Prob > $\chi^2 = 0.000$

*p<0.1, **p<0.05, ***p<0.01

1) 현 지역 거주 대비 중도시권(권역 내 중도시)으로의 이동

2) 현 지역 거주 대비 대도시권(서울·경기·인천·충청·전라·경남·제주)으로의 이동, 오송 종사자=서울, 대전,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



제5장 창조환경의 조성사례

제1절 국내 사례

1. 사례 선정의 준거

인구밀도가 높고 2·3차 산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대도시 지역은 행정력으로 창조환경을 구현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갖는다. 도시의 규모와 행정력에 따라 창조환경 관련 정책의 추진 형태와 유효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 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각각 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조환경 조성 노력을 탐색하기로 한다.

사례 선정의 정량적 준거는 전체 산업구조 내에서 창조인재 비중의 LQ가 1보다 낮은 지난 4년 동안 지역할당효과에서 양(+)의 경쟁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창조인재 수가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노력을 추출하고자 한다(<표 3-13> 참조).

먼저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7대 대도시 지역 가운데 창조인재 LQ는 낮으나 지역할당효과가 높은 지역은 부산, 울산, 대구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도시 중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는 부산광역시의 창조도시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할당효과가 높게 나타난 기초지자체 가운데 201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다양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광역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가. 개관

부산시는 창조도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조도시본부’를 신설하였다. 이 조직이 설치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에 이미 U-시티 마스터플랜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였고,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마을을 창조벨트를 구축하고 마을전문가와 도시재생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개관을 통한 창조도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 유치를 통한 연구역량 확대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시도하고자 한다. 전략산업인 해양플랜트, 조선산업을 ICT와 융합하기 위해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식인프라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조유리 외, 2011).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산시는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안해 2014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경계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 결과 부산시는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50억 원을 투입해 총 500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가 제안한 이 사업의 명칭은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부산역 일대 플랫폼 구축사업을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부산광역시, 2014). 이를 위해 <그림 5-1>의 모습과 같이 초량동 산복도로에서 중앙로를 지나 부산역과 북항에 이르기까지 산복도로에서 바다까지 단절 없이 걸을 수 있는 대규모 광장형 연결데크를 조성한다. 또한 부산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원도심 관문지역, 차이나타운~초량시장 일원을 원도심 상업지역, 초량 산복도로 일대를 원도심 주거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장소성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각각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도심 관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식자본을 교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원도심 상업지역은 세계

인이 모여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융·복합형 열린 시장으로 재창조하며, 원도심 주거지역은 폐·공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도시농장, 산복도로 게스트 하우스 같은 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림 5-1〉 부산시 초량 산복도로~북항 연결데크 조감도



자료 : 부산광역시(2014) 내부자료

나. 추진사업 및 특징

부산시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환경 조성의 사례들 중의 하나로 ‘또따또가’를 들 수 있다. ‘또따또가’라는 용어는 관용과 문화 다양성을 의미하는 ‘톨레랑스(Tolerance)’에서의 ‘또’,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의 ‘따또’, 거리라는 뜻의 한자인 ‘가(街)’를 모두 합해 지어졌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중구의 중앙동과 동광동 지역에 원도심 창작공간 조성 운영지원사업을 착수했는데, 또따또가는 이 사업으로 조성된 창작공간 이름에 해당한다. 2012년까지 3년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2015년까지 연장되어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작공간의 입주 현황도는 <그림 5-2>와 같다. 또따또가는 많은 예술창작촌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며, 관이 주도한 창작촌으로는 더욱 그렇다. 이 공간에는 300여명의 작가들이 입주해있는데, 협업으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개

인 단위로 창작하는 공간이 혼재해 있다. 또따또가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에서 탈피해 애초에는 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사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의 목표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원도심 지역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5-2〉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 현황도



자료 : 또따또가 (<http://www.tttg.kr>)

이와 같이 부산시는 창조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조인재들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기반시설 취약, 고령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지닌 산복도로 주변의 주거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1,500억 원이 투입된다. 주민 참여형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김경수, 2010; 부산광역시, 2014).

산복도로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

어 <그림 5-3>과 같이 3개 권역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역은 대상지와 그 영향권에 있는 전체 행정동을 범위로 하되, 자연경관적 측면과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구봉산 권역, 구덕·천마산 권역, 엄광산 권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업구역은 산복도로와 접한 지역 중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와 행정동을 경계로 설정하였다. 이들 사업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재생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는 재생요구도와 지역매력도를 평가하고 산복도로 재생필요지수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재생요구도는 경제생활, 주거공간, 생활 편의 등으로, 지역매력도는 생활매력도, 공간매력도, 문화매력도 등으로 구분해 구역별 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평가·분석하였다(김혜민, 2011). 그 결과 구역별 사업순위는 <표 5-1>과 같이 결정되었다.

〈그림 5-3〉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간



자료 : 부산광역시(2014)

〈표 5-1〉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구역별 현황

단위 : 천㎡

권역	사업구역	사업연도	사업순위	구역면적
구봉산		-	-	3,404.2
	영주·초량	2011	1	1,138.4
	좌천·수정	2014	4	1,319.9
	보수	2017	8	945.9
구덕·천마산		-	-	3,205.0
	아미·감천	2012	2	1,416.6
	충무	2015	6	1,076.6
	대신	2018	9	711.8
엄광산		-	-	3,835.0
	범일·범천	2013	3	922.7
	가야	2016	7	1,159.3
	주례·개금	2014	4	1,753.0
3개 권역 9개 구역		-	-	10,444.2

자료 : 부산광역시(2014)

위와 같은 우선순위 결정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지역발전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듬해 10월에는 세계대도시연합으로부터 도시재생의 우수한 모델사업으로 평가받아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 선정되기도 했다(부산광역시, 2014). 세계대도시연합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회의기구로서 세계 135개 도시가 등록돼 있으며, 3년마다 메트로폴리스 어워드를 개최해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준 주요 도시정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시민통합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람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 삭막했던 산복도로가 재생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고 있는 연유에서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주민·행정·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과 소통 주체로서 자

발적 역할 분담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김경수, 2010), 산복도로의 주민공동체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 마음을 터놓으며 대화하면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예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낙후지역을 명소로 재창조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다른 지역에도 이 공간처럼 전파되어가길 기대하게 되는, 전국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 할 수 있다.

3. 기초자치단체 : 경남 창원시

가. 개관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시는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옛 마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창원시는 <그림 5-4>와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3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는데, 이 중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마산합포구 창동 및 오동동 일원에 구도심권 인구 감소와 상권의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마산르네상스’ 원도심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국토교통부·창원시, 2014). 이후 2012년 3월 창원시는 집객·역사문화·녹색·생활 등 도심을 4개 공간으로 세분화한 마산 원도심 마스트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한 ‘창동예술촌’이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같은 해 5월 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림 5-4> 창원시의 균형발전 3대 프로젝트



자료 : 국토교통부·창원시(2014)

창동예술촌 조성사업은 빈 점포 활용을 통한 예술촌 조성으로 쇠퇴한 마산 원도심 지역의 상권 기능 활성화를 시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는 창동 사거리 쪽샘 및 시민극장 골목 일대에 해당하며,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3차년도로 구분된다(한동효, 2013). 우선 1차년도(2011~2012년)에는 예술촌 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예술촌 입주 및 그랜드 오픈을 계획하였다. 2차년도(2012~2013)에는 예술촌 운영·관리 및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3차년도인 2013년 이후부터는 지속발전 수익사업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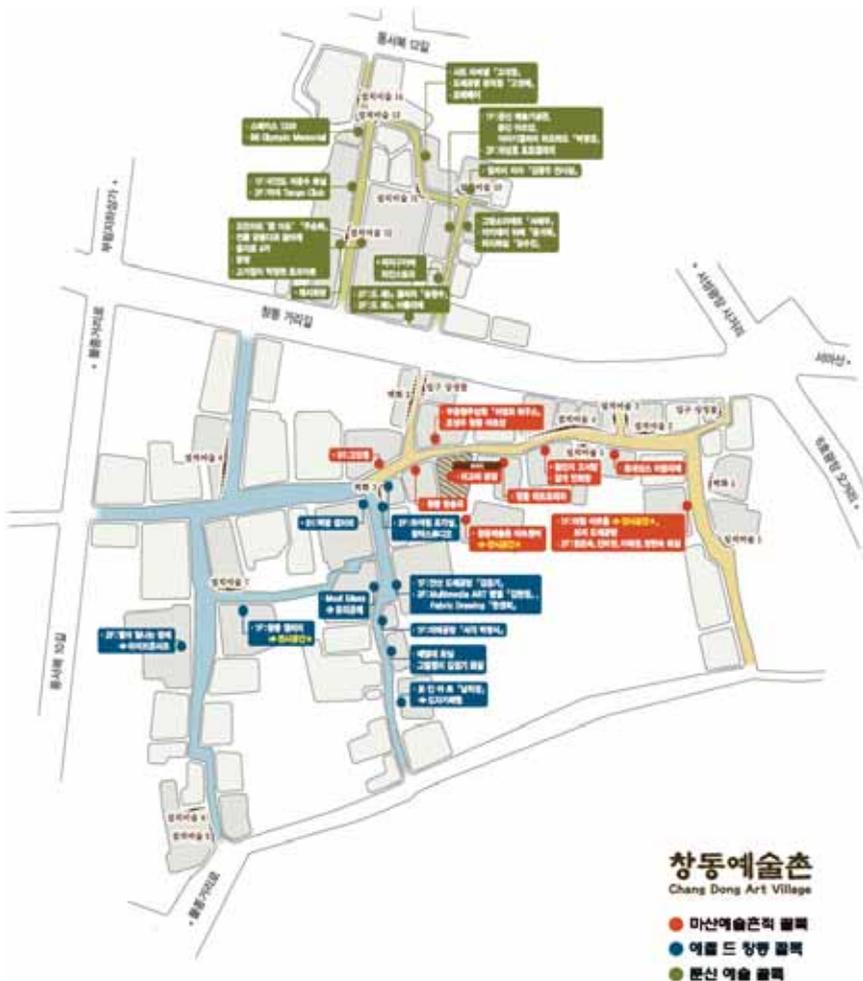
나. 추진사업 및 특징

창동예술촌의 전체적인 주제는 문신예술과 예술인이 융화하는 ‘창동예술촌’, 마산 르네상스 시대의 맥을 이어가는 ‘에꼴 드 창동’ 창작공간, 마산의 추억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흔적골목 등이다(국토교통부·창원시, 2014). 이와 같이 조성되는 창동예술촌에는 <그림 5-5>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의 골목이 존재한다. 먼저 ‘마산예술흔적’ 골목은 마산 르네상스 시절과 시대적 배경의 추억거리를 예술사적으로 재조명하고, 1950~80년대 골목 경관의 복원 및 스토리텔링을 재연한 곳이다. 두 번째 ‘에꼴 드 창동’ 골목은 창작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업공간, 예술인과 예술 상인들이 융화하는 테마예술상업의 공간이 혼재한 곳이다. 세 번째 ‘문신 예술’ 골목은 조각가 문신 선생의 예술 활동과 관련한 체험 아트 공간 및 테마 상가의 조성을 시도한 장소다(한동효, 2013).

창원시 창동 일대는 1980년대 초까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빈 점포가 증가하기 시작해 상권의 많은 부분이 위축되었다. 이처럼 이지역이 쇠퇴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창원시, 2012). 첫째, 과도한 도시개발로 도시공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그 영향으로 도심의 중심성이 약화되면서 지역이 침체하게 되었다. 둘째, 도심에서의 상업·업무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건축물과 시설이 적정 시기에 정비되지 못해 노후화되었다. 셋째, 도심 상권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권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미흡하였다. 넷째, 지역 정체성과 지역 매력의 요인이 상실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골목경관이 정비되지 못하고 시설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다섯째,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 사회의 화합과 이해를 통해 상권 활성화의 의지와 자구책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5〉 창동예술촌 골목길 지도



자료 : 국토교통부·창원시(2014)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의 중심지였던 창동이 쇠퇴해 마산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이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것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못했기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창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마산의 특성을 살리면서 창동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손완주, 2013). 옛 마산시 지역은 1950~60년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던 무대였고, 이러한 연유로 창동에는 이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창동 일대의 빈 점포에 문화예술인을 입주시켜 창작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을 모으게 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창동예술촌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활력을 잃은 창동 일대에 문화예술로써 활기를 넣으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창동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길이 남아있지만, 좁은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정비되지 않은 노후한 경관이 산재해 있었다. 하지만 창동예술촌 조성사업을 통해 골목길이 정비되어 <그림 5-6>에서의 모습과 같이 경관이 정돈되었고, 문화예술인의 감각으로 가꾼 점포들은 각기 개성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이처럼 창동의 분위기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역상권이 살아나 사업 전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손완주, 2013).

도시재생을 통한 창동예술촌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해 참여하는 등 창원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손완주, 2013; 한동효, 2013). 2011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후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유입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했으며, 입주 예술인의 계약과 기존 상인들 간 이원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 주도의 도시재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한동효, 2013).

〈그림 5-6〉 창동예술촌 거리의 개선 전·후 경관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창원시(2014)

제2절 국외 사례

1. 사례 선정의 준거

창조인재들이 모이는 공간과 장소, 즉 창조환경이 만들어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참고할 만한 국외 사례를 선별하였다. 다양한 유형의 창조환경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창조인재 유형별로 창조환경 조성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화예술인력을 위한 창조환경 사례로 중국 따산즈 798예술구를

살펴보고, 둘째, 연구개발인력을 위한 창조환경 사례로 영국 서리연구단지, 그리고 IT 및 미디어 분야의 창조인재를 위한 도시내 창조환경 조성 사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지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 지역의 조성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베이징시의 따산즈 798예술구는 유휴공간을 재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 지역은 유휴공간의 재활용에 따른 신형 문화공간의 구축, 문화 예술적 성과, 도시와 지역 및 커뮤니티의 변화, 재생과 개조에 있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또한 관 주도라기보다 예술인 중심으로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문화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따산즈 798예술구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공장의 유휴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예술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도시의 문제적 공간이었던 곳이 재활용에 의해 문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지역을 활성화하며 도시 재생에 기여한 경우로, 도시 문화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예술 생산의 매개가 되면서 도시, 지역, 근린, 경제, 미관, 건축 등에 종합적인 변화를 이끈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개발 기능을 인위적·계획적으로 집적해 조성한 과학연구단지 사례로서 영국 길포드시의 서리 연구단지를 살펴보았다. 세계 도처에 있는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배경, 성장 과정, 그리고 개별 단지의 특성과 조성 이후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은 창조환경에 관한 연구로서 오랫동안 관심을 끄는 주제였다. 하지만 이들 사례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되었다는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러한 개발이 왜, 특정한 시기에, 그 곳에서 이루어졌고, 개발 과정에 어떤 주체들이 관여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창조환경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결여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서리 연구단지가 태동하게 된 배경과 조성 과정, 그리고 이러한 개발이 성공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을 창조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도심재개발·도시

제정비 사업지 사례로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22@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주택건설, 녹지공간 조성, 신규 도시 시설 설치, 신규 일자리 창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공공기관, 과학 및 기술센터 등이 바르셀로나에서 낙후된 22지구인 포블레노우 지역으로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집약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디어, ICT, 에너지, 의학기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 등 투자 장점을 내세워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랜딩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투자유치 및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중국 베이징시의 따산즈 798예술구

가. 창조환경의 형성배경

따산즈 798예술구는 본래 ‘718 연합공장’이 자리 잡은 곳으로, 여러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공장지대였다. 1960년대에 이 공장은 해체되어 706, 707, 718, 797, 798, 751 등 7자 돌림의 이름을 딴 6개의 공장으로 독립 법인화되고 이들 가운데 798지구는 제3분공장으로 분리되는데(김태만, 2008; 김성희 2009; 김성희 2011), 798예술구에서의 숫자 ‘798’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다.

718연합공장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중국 정부는 구소련과 구동독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아 베이징 동쪽 교외지역에 공장지대를 조성한다. 생산품은 주로 군수품과 면직물로서 이후 베이징의 근대화를 견인하는 공업지대로 성장해, 1970년대에는 중국 최초의 원자탄 부품을 생산하는 수준을 갖춘 공업단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갔고 그 영향으로 빈 공장도 자연스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베이징의 정비계획에 따라 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718 연합공장에서부터 분리됐던 일부 공장들은 1990년대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라 통·폐합의 과정을 겪고 치싱화덴과학기술그룹[七星華電科技集團]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김태만, 2008; 김성희, 2009; 김성희, 2011; 한동효, 2013; 한령, 2013). 이 그룹은 경제적 성과가 낮은 산업을 정리하면서 비어 있는 798공장지대를 임대로 내놓았는데, 주로 예술인들이 이 부동산에 주목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고등미술교육기관인 중앙미술학원이 이 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즉 지대(地代)가 저렴하고 공간이 넓으며 <그림 5-7>에서 볼 수 있듯이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는 등의 조건들이 중앙미술학원의 교수들과 졸업생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하나 둘의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모이기 시작하고 교류가 점점 확대되면서 798지구는 예술창작촌(art village)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한때 중국 사회주의를 상징했던 방위산업체 군수공장들의 거대한 공간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5-7〉 798예술구의 지리적 위치



나. 창조환경의 형성과정 및 특징

798예술구가 베이징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령, 2013). 첫 번째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육성 단계다. 1995년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공장의 유휴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798 지구에 예술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798지구는 예술촌으로서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전 단계로, 798지구가 예술촌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다. 2004년 베이징시는 도시재개발 계획에 따라 798지구를 철거한다고 발표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 따산극국제 예술축제[大山子國際藝術節]를 개최해 798예술구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된다. 이에 베이징시도 철거하려 했던 798예술구를 2006년에 1차 ‘10대 문화창의 산업지구’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세 번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규범화 단계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관해 왔던 축제는 이때부터 관이 주최하는 형태로 바뀐다. 또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시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798예술구의 환경이 정비되었다. 2008년에는 798예술구가 ‘시급(市級) 문화창의산업지구’로 지정되어 베이징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구로서 입지를 굳힌다.

798예술구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798 예술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였다. 2003년 <타임스>는 798예술구를 세계적으로 문화상징성이 뛰어난 도시예술 중심지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뉴스위크>는 798 예술구의 성공적 운영에 주목해 베이징을 세계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발표하기도 했다(한령, 2013).

총면적 116여만㎡에 달하는 798 예술구의 토지는 798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한혜경, 2010). 이곳의 공장 건물들은 창이 많아 자연광이 내부 공간으로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층고도 높아 전시 등의 예술 활동을 하기에 유리한 장점

을 갖추었다. 또한 건축미도 뛰어나 예술 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장소로 평가된다. 과거의 분위기가 묻어난 양식과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축물의 모습은 어색하지 않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798예술구의 중심공간인 ‘798 SAPCE’는 바우하우스(Bauhaus)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718 연합공장이 바우하우스²⁾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데 기인한다. 1950년대에 718 연합공장 프로젝트의 건축은 구동독의 바우하우스 대학 와이머(Weimer)에게 맡겨졌고, 그 영향으로 공장 건물은 <그림 5-8>에서의 모습처럼 툽니 모양이든 다른 모양이든 건축물은 모두 바우하우스 양식을 따라 설계되었다(김성희, 2009; 김성희, 2011; 김우봉, 2012). 바우하우스 양식의 건축물들이 군집을 이루어 하나의 큰 단지에 보존되어 있어, 오늘날 이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 방문객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5-8> 바우하우스 양식의 툽니바퀴형 건물의 내부와 외부



자료 : 김성희(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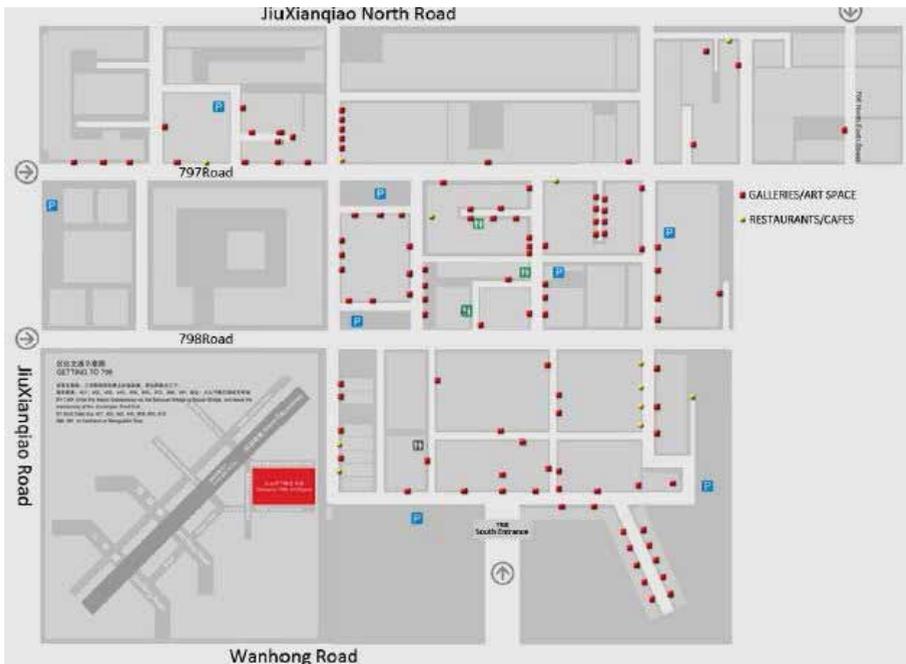
798 SAPCE는 파산즈 지역의 문화예술과 산업 활동을 홍보하는 가장 넓은 공간이면서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9m 높이의 1,000㎡ 실내공간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300㎡의 공간은 미디어작품 상영 공간, 현대미술서점, 음식점

2) 20세기 초 독일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설립한 예술학교로서, 이 학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벽면과 통유리를 사용하는 것과 높은 천장으로 견고함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오늘날 바우하우스란 이와 같은 특징이 반영된 건축양식을 의미한다.

등으로 이용된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의 개최, 현대미술의 소통, 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며, 각종 문화예술 활동, 포럼, 기자회견 등도 개최되고 있다. 기존의 세 건물을 연속적인 공간으로 통합하기 위해 붉은 벽돌로 50m 길이의 벽을 쌓기도 했다.

798예술구의 운영은 베이징시와 예술촌 입주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차인들이 전시공간과 작업공간 등을 임대받아 이들 공간을 개인 성향에 맞게 개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798예술구에 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입주하기 시작해 <그림 5-9>와 같은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술작품이 국제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작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5-9> 798예술구 지역의 예술관련 시설 공간분포



자료 : 따산즈 798예술구 (www.798art.org)

애초에 798공장의 관리주 측은 빈 공장을 철거하고 부동산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베이징시에게 따산즈 798지구를 보존할 것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해외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도 이곳을 지키기 위해 탄원하였는데, 이는 이곳이 예술특구로 지정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다. 평가

따산즈 798예술구는 단순히 예술인들만 모인 곳이 아닌 다양한 문화공간이 입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지닌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예술인들이 798지구로 모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베이징 도심과 국제공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예술인들이 국내·외를 편히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양식이 바우하우스라는 점도 이곳에 입지한 예술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한동효, 2012; 한령, 2013). 외관이 아름다워 독특한 지역경관을 창출하고 있으며 실내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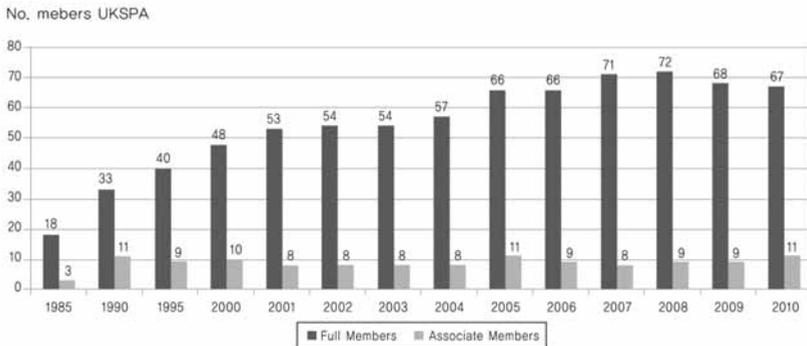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을 지녔음에도 798예술구는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역만의 독특한 색깔로 관광객들을 유인하였지만,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본의 논리에 지배됨으로써 장소정체성을 상실할 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한령, 2013). 실제로 상업적인 갤러리들이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의 작가는 이곳을 떠나 임대료가 더욱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 결과 문화 생산의 공간에서 소비의 공간으로 경관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성급한 지역활성화가 추진되는 경우 상업 시설이 빠른 속도로 입주해 소비 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영국 길포드시의 서리 연구단지

가. 창조환경의 형성배경

1980년대에 들어 영국은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을 지방 주도의 자생적 발전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민영화와 경쟁 논리를 내세워 대학교의 재정 지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관심이 지역혁신에 기초한 신산업의 창출로 이어지면서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국의 과학연구단지는 198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UKSPA, 2013), 이 때 서리 연구단지(Surrey Research Park)도 과학연구단지 조성의 분위기에 힘입어 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그림 5-10〉 영국과학단지협회 회원 가입 수 추이(1985~2010년)



자료 : UKSPA statistics (www.ukspa.org.uk)

영국과학단지협회(The United Kingdom Science Park Association)에 가입한 과학단지 가운데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케임브리지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지방정부, 민간기업, 중앙정부 산하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이 대학과 협력해 과학단지의 조성을 추진하였다.

영국의 과학연구단지들은 대학교 인근 지역과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1970년대 초 수도권권을 비롯한 남부 지방과 중·북부 지방에는 각각 1개씩의 과학연구단지만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남부 지방에 9개의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된 반면, 중·북부 지방에는 모두 29개의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에 영국 정부가 과학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북부 지방에 활발히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말에는 남부 지방의 과학연구단지 수가 22개로 급격하게 늘었으나, 중·북부 지방의 과학연구단지 수는 변함없이 그대로를 유지하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의 입지 수요가 증대한 영향으로 민간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과학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고석찬, 2004). 영국의 과학단지는 <그림 5-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영국과학단지협회에 등록된 과학단지는 81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분포도는 <그림 5-11>과 같다.

<그림 5-11> 영국과학단지협회에 가입한 과학단지 분포도 (2012년 현재)



자료 : UKSPA (www.ukspa.org.uk)

남부 지역과 중·북부 지역에 조성된 과학연구단지는 발전 속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부 지역의 과학단지는 기업 유치 및 고용 인구의 증가율이 높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규모로 성장한 단지가 많은 반면, 중·북부 지역의 과학연구단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주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70년대 말 계획이 수립되어 1984년 개발이 시작된 서리 연구단지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한, 영국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성장 모델로 평가된다(고석찬, 2004; Parry, M., 2012).

나. 창조환경의 형성과정 및 특징

서리 연구단지가 소재한 길포드(Guildford)시는 <그림 5-12>를 통해 알 수 있듯 자동차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런던 도심과 두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도시다. 영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M4 회랑과도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서리 연구단지는 대학과 산업시설 등 런던 대도시권의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30년 이내에 110여 개 첨단기업이 입지해 활동하는 연구단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림 5-12> 서리 연구단지가 소재한 길포드시의 지리적 위치



자료 : Surrey Research Park (www.surrey-research-park.com)

서리 연구단지 조성계획은 1979년에 수립되었으나, 건설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 심의의 과정을 거치는 등 5년이 지난 1984년이 되어서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다. 단지의 전체면적은 28.33ha이고 이 가운데 80% 되는 부지를 연구개발 용지로 할당하였다(UKSPA, 2013). 단지는 첨단 창업기업, 정부 산하 또는 중소기업 연구시설, 대기업의 연구개발 부서 또는 대규모 공공연구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업무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단지의 개발은 서리대학의 자체 재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1 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의 보육에 필요한 지원 기능을 갖춘 기술센터와 종합지원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중소 규모의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대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의 일부는 매각이나 장기 임대 방법으로 건설비를 조달하였다(Parry & Russell, 2000).

서리 연구단지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부지 면적의 50% 이상을 녹지로 보존하였고, 자연 지형을 고려해 조경계획을 수립하였다(Parry, M., 2012). 또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학 단지계획 담당 부서의 허가 없이는 나무를 옮겨 식재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림 5-13>에서 나타난 서리 연구단지의 위성사진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단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하고 별도의 보행 동선을 활용해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도 서리 연구단지의 특징이다. 그 밖에 단지 전체의 건폐율을 15%로 낮추고, 건폐지와 비건폐지의 비율을 적정히 유지하도록 한 점, 용적률을 25% 이하로 설정하되 밀도 규정은 지역의 고도 제한에 의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지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서리 연구단지는 단지의 좋은 이미지와 명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대학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약 2/3 정도가 대학과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한 결과, 창업기업이 보육 과정을 통해 소규모에서 중규모로 성장한 이후에도 서리 연구단지에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연구단지에서의 창업기업 성장 모형을 가시화하는 효

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연구단지 국제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외국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입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연유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Parry, M., 2012).

〈그림 5-13〉 서리 연구단지의 전경(좌)과 위성사진 모습(우)



자료 : UKSPA(2013), Review of The Surrey Research Park; Surrey Research Park
(www.surrey-research-park.com)

오늘날 서리 연구단지는 영국 과학연구단지의 모범적인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단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단지를 조성하기 이전에 국내·외 과학연구단지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지의 개발, 운영 및 관리, 마케팅 등의 전략을 합리적으로 추진한 데 있었다(고석찬, 2004). 1981년 서리대학은 생리학과의 패리(Malcolm Parry) 교수를 서리 연구단지의 개발과 운영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는 그가 지역 기업들과 교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패리 스스로 과학연구단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대학이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우선 대학을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에 입지한 기업과 연구소

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의 유형과 업무 공간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미 과학연구단지 개발이 시작되어 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진 단지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 단지에서 드러난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서리 연구단지 상황에 적용할 만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에 패리는 서리 연구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대학과 지역 기업들에게 제시하였다. 서리대학은 연구단지의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에서 분리된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대학 부총장 산하에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리대학은 연구단지의 조성 과 운영·관리를 담당할 전문가로 대학 캠퍼스의 시설물 개발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베이커(Stephen Baker)를 임명하였다. 베이커는 연구단지의 관리자로서 부임한 후 연구단지의 계획·설계부터 조성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평가

서리 연구단지가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된 요인으로 입지환경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연구단지가 입지한 런던 대도시권에는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 자원들로 풍부하다. 하지만 연구단지가 빠르게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연구단지 조성에 헌신적이었던 패리와 베이커와 같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리더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연구단지의 좋은 명성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리 연구단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4년에 창립된 영국과학단지협회의 설치에도 관여했던 패리 교수는 국내·외 과학연구단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전개함으로써 서리 연구단지 조성의 경험을 세계 여러 신생단지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서리 연구단지를 영국의 다른 어떤 과학단지들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4.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22@프로젝트

가. 창조환경의 형성배경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의 주도로, 스페인 최대의 경제도시이다. 지중해에 임한 항만도시로서 고속전철(TAV)과 국제공항을 통해 전 유럽과 전 세계와 연결된, 입지 여건이 뛰어난 국제도시다. 이와 같은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갖춘 바르셀로나는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서 ‘22@’의 이름은 EU 도시계획의 공업전용 지역 코드인 ‘22a’에서 유래한다(윤준도, 2008;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종래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하여 지역발전의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22@’으로 이름붙인 것이다.

22@프로젝트의 목적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인 포블레노우 지역을 지식기반형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데 있다(윤준도, 2008; Ajuntament de Barcelona, 2012).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 주거와 업무, 문화와 교육 등이 기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그림 5-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르셀로나 도심의 동남쪽 지역에 위치해 지중해와 연하고 있으며, Sant Marti 내 제조업 산업단지였던 포블레노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제조업 산업단지로서 오랫동안 바르셀로나 최고의 공업 지역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포블레노우 지역은 탈산업화가 진행돼 쇠퇴하기 시작했고 슬럼이 진행돼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에 진입해서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1992년 올림픽 개최가 전환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윤준도, 2008). 바르셀로나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심을 중심으로 환상형 도로를 건설하였고, 특히 포블레노우 지역이 항구와 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9년에는 Diagonal Avenue의 확장이 완료되면서 포블레노우 지역은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포블레노우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한 지역의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재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마침내 ‘22@ Plan(Amended Metropolitan Master Plan for the Refurbishment of Industrial Areas of Poblenou)’의 승인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그림 5-14〉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위치



자료 : 22@Barcelona (www.22barcelona.com)

나. 창조환경의 형성과정 및 특징

22@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대상지의 면적은 198.26ha로서 도시블록 단위로는 115개를 포함하고 있다(Ajuntament de Barcelona, 2012). 사업대상지의 전경과 현황도는 각각 <그림 5-15>와 <그림 5-16>과 같다. 이 프로젝트에는 22@지구를 중심으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조성, 인프라 구축, 주택 건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현금의 형태로 소유분의 30%를 받고 <그림 5-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소유자에게는 고도제한을 기존의 2에서 2.2로 완화해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고도제한의 비율을 2에서 2.7까지 허용하는 등 높은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Ajuntament de Barcelona, 2012).

〈그림 5-15〉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전경



자료 : Ajuntament de Barcelona(2012), 22@ Barcelona Plan

〈그림 5-16〉 22@바르셀로나 사업대상지 현황도 (2012년 6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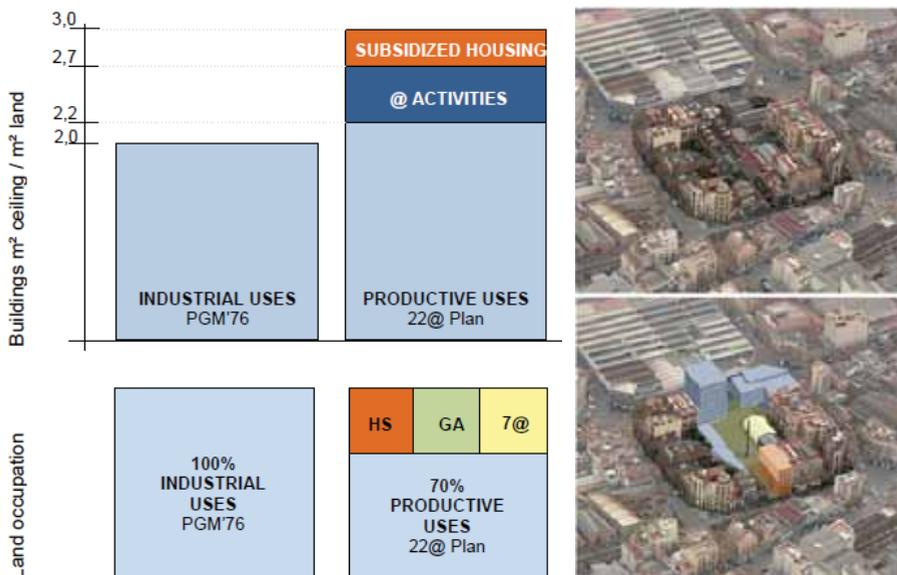


자료 : Ajuntament de Barcelona(2012), 22@ Barcelona Plan

22@프로젝트는 포블레노우 지역에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과학 및 기술 센터를 설치하여 지식집약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미디어, ICT, 에너지, 의학기술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윤준도, 2008;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그림 5-18>은 이들 4대 핵심산업의 공간 구상도이고, <그림 5-19>는 산업의 공간적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을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미디어 산업은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집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바르셀로나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시청각 영역을 통해 경제·문화적 역동성이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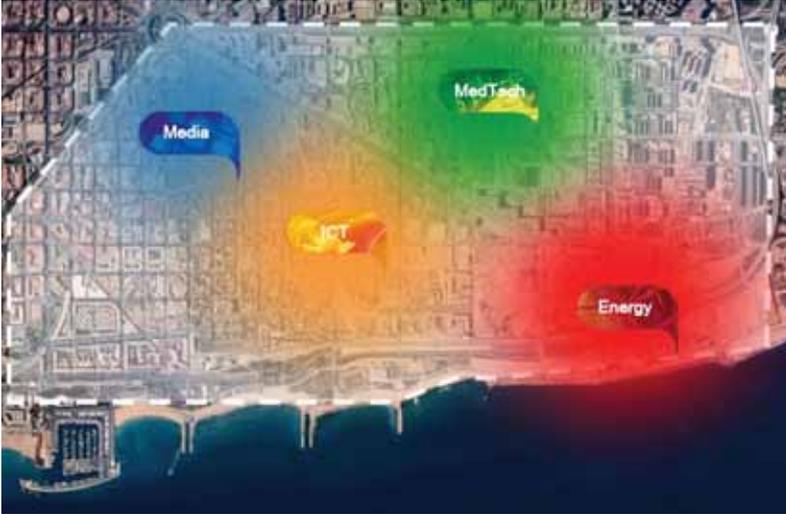
〈그림 5-17〉 22@바르셀로나 용적률 인센티브 개념, 적용 이전과 이후 조감도



자료 : Ajuntament de Barcelona(2012), 22@ Barcelona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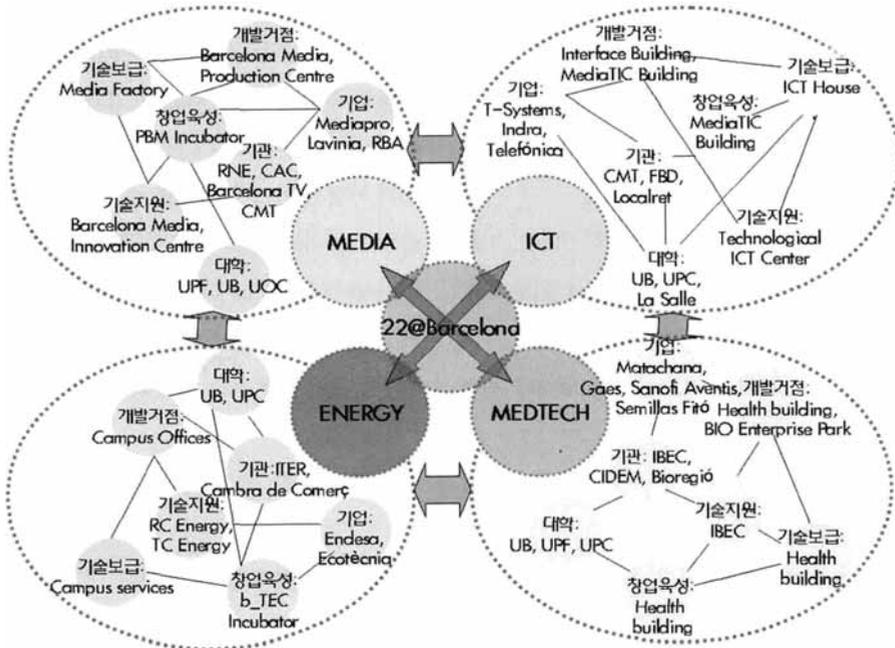
둘째, 22@프로젝트는 기업들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관계된 연구·개발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Media-TIC 건물을 통해 ICT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ICT 기관의 유치에 도모하고자 한다. 실제로 Media-TIC 건물은 22@프로젝트의 미디어와 ICT가 연결되는 장소, 전문가와 기업이 교류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또한 기술이전, 연구의 확산, 새로운 기업의 창출 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림 5-18〉 22@바르셀로나의 지식기반 클러스터 공간 구상



자료 : 22@Barcelona (www.22barcelona.com)

〈그림 5-19〉 22@바르셀로나의 4대 핵심산업 공간연계 및 클러스터 구축



자료 : THE 22@ BARCELONA PROJECT 홍보자료를 재구성, 윤준도(2008) 재인용

셋째, 에너지 영역은 화석연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분야에 해당된다. 22@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에너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 및 건축공학적 지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전략적 영역과 연계된 교육·연구·생산 활동이 클러스터에서 집적될 필요가 있다.

넷째, 22@프로젝트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기술·산업·혁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생명과학 관련 기업들의 창업을 돕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 내 주요한 의료 기술 기관인 바르셀로나 과학단지(PCB-UB), 바르셀로나 생의학 연구단지(PRBB-UPF)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바이오 비즈니스 파크, 메디컬 테크놀로지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여 바이오테크 기업, 메디컬 테크놀로지 기업, 제약회사 등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평가

22@프로젝트는 대기업을 유치해 그 주변으로 중소기업의 입주 유도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가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입지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다른 EU국가에 비해 노동임금과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 유럽의 교통 요충지라는 점, 바르셀로나 주변에 12개의 대학이 있고 이들 가운데 2개 정도는 세계 12위권 안에 드는 경영대학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홍보하고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특히 22@프로젝트는 ‘랜딩 프로그램(Landing Program)’이라 불리는 독특한 투자유치 및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남유럽 시장과 혁신시스템의 연결을 희망하는 글로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과 멘토링, 컨설팅을 포함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프로모션

(사전 조사, 접촉 및 협력채널 구축)과 랜딩(인큐베이션)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랜딩 과정은 2개년도 단위로 운영되는데, 1차 년도에는 입주기관에게 업무공간과 초기 년도 정착에 필요한 법률이나 컨설팅 등의 편의를 제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년도에는 개별 인큐베이션 업체들에게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바르셀로나는 22@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기업의 입주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0>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디어 & ICT 클러스터 내 유치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기업 건물에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어,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윤준도, 2008).

<그림 5-20> 22@바르셀로나의 미디어 & ICT 클러스터 내 유치기업 현황(2006-2010)



자료 : 22@Barcelona (www.22barcelona.com)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창조환경들은 형성 시기가 10~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으로, 성장 단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극복하였거나 현재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 현실에 교훈을 주는 사례들로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지역이 처한 문화적 환경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창조인재들이 모이는 공간과 장소로서 검토한 국내·외 창조환경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차원에서 창조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창조경제와 관련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원시 등의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공간의 단위는 지역이므로, 창조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간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앞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의 고유성을 고려해 먼저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창조인재 유치 및 창조활동 공간의 마련을 위한 창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의 조성은 관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인재들 간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조공간이 요구된다. 또한 창조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의 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에 있

어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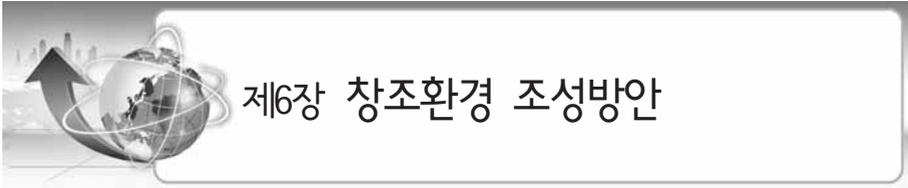
넷째, 창조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창조도시의 모델로 평가받는 지역들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실행을 견인해 왔는데,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창조도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은 창작활동에서 다시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선순환의 과정을 창출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휴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창작활동의 과정이 상승효과로 이어지는 것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조성은 지역, 사회, 사회, 예술 등의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시설의 건립과는 달리 시대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연구개발 중심의 창조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단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긴밀한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서리 연구단지의 경우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지역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예컨대 런던 대도시권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지역산업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곱째, 창조인재들에게 창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연구개발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녹지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룬 서리 연구단지의 설계는 좋은 사례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나무와 식생의 위치 이전도 대학에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관관리가 엄격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단지 전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급적 낮추고, 건폐지와 비건폐지의 비율을 적정히 유지토록 하는 등 단지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끝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향한 정주여건 조성은 창조인재를 유치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는 곧 지역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바르셀로나는 22지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이 이 지역을 환경의 질이 우수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 판단하고, 다른 경쟁도시들과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시설 등 부수적인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절 기본방향

1. 창조인재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의 연계 개발 추진

지역에서 창조인재를 유인, 육성하는 창조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이 산업정책과 병행시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외 창조환경 조성사례에서 전술하였듯이, 창조인재를 위한 환경 조성은 단순히 정주환경 차원의 어메니티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르셀로나는 IT 및 문화예술인력 유인을 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창조인재들이더라도 이동의 근본 요인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기회이며, 그 다음으로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유사한 경제 기회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지속적 잔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우리나라 창조인재의 분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창조인재의 69%가 수도권에서 활동할 정도로 창조인재의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하다. 창조인재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쾌적하고 문화적인 창조환경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일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비수도권인 설문응답자가 수도권에 처음 진입한 이유를 ‘대학’이 아닌 ‘취업’에 50.8%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창조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수도권에서 교육된 창조인재들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시·군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전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창조인

재의 주거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월급 등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 창조인재 집중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내 경제활동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창조인재에 대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패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롭게 창조인재를 유인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경제적 유인 전략을 취하고 다른 어메니티 조성 전략을 실시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창조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조인재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전제해야 한다. 즉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전략과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 내생적 발전을 위하여 창조인재를 발굴하고 대학교 과정이나 지역 내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해당 지역은 창조인재의 지역외 유출(brain drain)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은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육성될 수 있는 창조인재를 발굴하고 해당 창조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동시에 연계·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인재의 창조성을 발현·증진시키는 관점 하에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이 추진되어야 한다.

2.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의 융·복합적 추진

창조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든 대부분 문화시설, 산책공간 등의 물리적·환경적 인프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카페, 문화공간, 공연공간 등이 많을수록 창조인재가 해당 지역을 선호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창조인재의 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카페, 문화공간, 광장 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의 제공은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창조인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네트워킹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창조인재의 상호학습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조인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물리적 인프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소비공간 등이 우연한 네트워킹효과나 역량 강화 효과를 갖도록 기대하기보다는, 창조인재 간의 네트워킹이나 창조인재의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소프트 인프라를 구비하고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지역내 창조인재의 창조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창조인재들 간 상호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며, 그 결과 해당 지역 내에 창조인재가 착근되어 창조인재의 외부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조인재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창조인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하는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창조인재와 관련된 지역 내 소프트 인프라의 구축은 세 가지 관점 하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류나 의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 내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융·복합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창조인재와 창조인재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역량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소프트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인재의 유형에 맞는 소프트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창조인재들도 문화 예술인력이나 과학기술인력이나에 따라 상호 요구하는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가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조인재를 위한 창조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인프라 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중앙-지방-민간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창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중앙정부,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창조인재 현황과 자산을 파악하여 어떤 창조인재와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의 발전경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경로를 결정한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지역, 지역 내 관련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과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창조환경 조성에 대해서 일원화된 정책 지원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자신의 기능에 따라 정책을 지원하므로, 부처별로 다기화된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창조환경기본계획에 맞추어 퍼즐맞추는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공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창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내 창조자산을 활용하는 발전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획 기능, 여러 중앙부처들과 지역을 연계시키는 브로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요지향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창조인재들, 관련 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논의 과정은 향후에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해 줄 것이다.

한편, 창조환경 조성에는 크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가 있다.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는 비록 추상적인 방향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민간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사회적 인프라 조성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전문성 있는 민간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두뇌가 밀집되어 있어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민간 컨설팅기업이나 연구소, 교육기관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는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지역사회 내에 창조적·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들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지원조직(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등)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 집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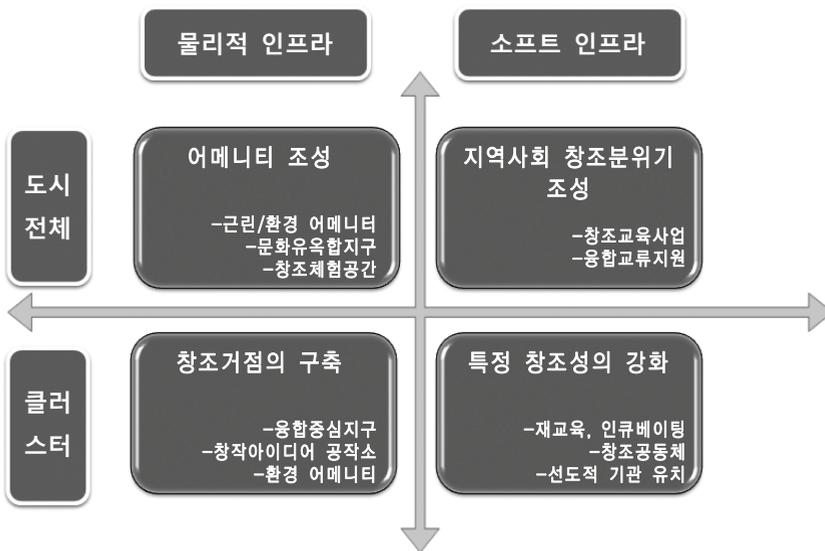
제2절 핵심전략 및 세부사업

1. 핵심전략의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창조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창조인재 육성과 산업 클러스터의 연계 개발, 둘째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의 융복합적 추진, 셋째 중앙-지방과 공공-민간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염두에 둘 경우에 핵심전략은 공간적 범역과 정책수단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직되어야 한다. 첫째, 공간적 범역이란 도시적 차원과 클러스터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적 차원은 창조인재를 유치, 양성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클러스터 차원은 특정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창조인재의 활동과 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책수단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략과 소프트 인프라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6-1〉 창조환경 조성 핵심전략



따라서 전략은 <그림 6-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전략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설계·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기획과 전략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획, 중앙정부는 지원, 그리고 민간이 집행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전략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 전략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창조인재에게 장소적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창조인재의 유치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창조인재의 주거 선택 정도를 높이고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기존 주거지에서나 새로운 주거지에서 근린어메니티와 환경어메니티를 확보하도록 복합용도 개발을 권고하면서 일정 비율의 녹지생태공간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창조인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이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근린어메니티와 환경어메니티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내 주거지 선택 관련 33개 고려요소를 살펴보면, 교통편의성(1위), 범죄 안전(2위), 본인 취업(3위), 주택의 질(4위), 편의시설(6위) 등 취업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근린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지환경(8위), 공원, 소규모 체육시설(9위), 보행환경(11위) 등 환경어메니티와 관련된 물리적 인프라가 매우 높게 나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와 상권의 정비, 편의시설, 녹지공간 및 보행환경 등의 정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지공간을 도시 내에서 조성할 때에는 주거지역 밀집지역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근린 성격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어메니티 중에서 창조인재가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쇼핑공

간, 소비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어메니티가 기존 주거지 선택에서는 그리 큰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화어메니티 중에서도 쇼핑공간(10위), 카페, 레스토랑 등의 소비공간(11위) 등은 주거지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lorida 등 창조인재 가설을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은 과거 박물관, 전시관 같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공간보다는 카페, 레스토랑 등 캐주얼한 도시내 시설들이 창조인재를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비공식적으로 교류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나 서울의 홍대나 이태원과 같은 이단적인 또는 다문화적인 문화적 느낌을 공급하는 도시 내 지구들은 창조인재를 유인하는 용광로(melting pot)로 작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들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활동적인 소비공간이나 쇼핑공간을 보존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축제나 행사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창조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조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조체험관을 조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들을 전시하고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표 6-1〉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구 분	내 용
근린 및 환경어메니티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지역 내 치안의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 주거지와 연계된 녹지환경, 공원, 보행공간 등의 확충 - 지역내 선도적 교육기관 육성 지원
문화융복합지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 레스토랑 등의 쇼핑공간지구 조성 - 지역내 문화적 거리(홍대, 이태원 등)의 조성 및 보존(해당 지구 내에 축제, 행사 지원)
창조체험관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지역주민의 창조아이템 체험 지원을 통한 창조문화 확산

3. 도시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전략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도시 차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전략의 목표는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 사회 주민을 창조인재로 전환시키고 창조인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창조인재로의 양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심미안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찾는 창조적 사고방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 주민들과 대학,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창조성 증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빈민지역에 ‘미래의 학교’(school of the future)를 설립하고 전교생에게 노트북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윤정, 2013). 이 창조학교에서는 물리적 하드웨어만 보급되어 컴퓨터 기술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의 교육이나 운영에 있어서 대학, 기업, 기관들까지 참여시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예술 건축회사인 Cooper Union의 경우에는 비정규 교육과정이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뉴욕 공립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욕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력(화가 등)이 뉴욕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로잉, 그래픽 디자인, 페인팅, 조각, 작곡, 건축 등 아트 분야의 창조교육을 체험형 수업 형태로 진행시켜 지역내 학생을 대상으로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진행하는 학교는 대안학교로만 가능하므로 지역 사회 전체의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창조인재와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방과후 학교교육이나 다른 형태의 비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방대학이 관련 창조인재를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내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 속하는 창조인재들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분야의 창조인재들 간의 교류도 강화시키는 융합화 전략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산업경향이 디자인과 IT기술의 결합, 영상예술의 콘텐츠와 가상현실기술의 결합 등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창조인재 중에서도 문화예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들이 향후 산업 현장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창조인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상호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에 조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KAIST의 경우에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융합대학원을 설치하고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AIST라는 대학캠퍼스 내의 커뮤니티에 지식의 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술·과학 융합미술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과학기술분야 KAIST 학생들에게 새로운 예술 트렌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예술 형태 및 제품들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인재들 간의 융합은 창조인재의 개별 지식과 역량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지역에서도 창조인재와 창조인재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교류프로그램 지원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KAIST의 전시회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나 ‘축제’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 도시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조성방안

구 분	내 용
창조교육사업	-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창조교육(성인교육 포함)
창조융합교류사업	- 상이한 분야의 창조인재 간(예. 문화예술인력-과학기술인력)의 상호교류 확대

4. 클러스터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전략

클러스터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전략은 특정 산업클러스터를 창조인재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조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스터의 창조거점화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 창조인재들의 창조성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외부로부터 다른 창조인재들을 유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러스터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클러스터 내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내에 융합중심지구(Coverence Center)를 조성해야 한다. 융합중심지구는 여러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으로 클러스터 내의 기업들과 연구소 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인재를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마르세이유 싸또-곰베르 테크노폴의 경우에는 urban center를 지정하고 해당 공간에 기업공공서비스 및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창조거점화에 있어서 융합중심지구는 이러한 urban center 기능 이외에 창조인재들과 창조인재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공간과 학습의 공간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항목으로 문화공간이 13개 항목 중 5위, 편안한 대화공간 6위였던 것을 반영하여 심도 깊은 교육, 교류의 공간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캐주얼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6-3〉 클러스터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구 분	내 용
융합중심지구 조성	- 기존 클러스터의 종합기능에 창조인재를 위한 대화공간, 교육공간을 추가하여 융합중심지구 조성
창작아이디어 공작소 제공	- 창작아이템을 시제작,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제공
환경어메니티의 제공	- 쾌적한 환경, 녹색공간 등을 구역별 소규모 분산 배치함으로써 창조인재의 야외 쉼터를 조성

둘째, 클러스터 내에 창작아이디어 공작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작아이디어 공작소는 창조인재들에게 개인 작업공간의 제공을 의미하며, 이는 근무 외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또 다른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무한 상상실을 운영하여 창조적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무한상상실은 총 457㎡로 1층은 지원센터, 아이디어토론폰방, 아이디어샵터 공간으로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3층은 미디어 상상방, 상상놀이터, IT-제작실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무한상상실은 다양한 분야의 창조인재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관련 분야의 창조인재 지원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환경 어메니티가 확보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요소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환경어메니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13개 항목 중 쾌적한 환경이 3위, 산책공간이 4위였다. 또한 서리연구단지에서도 50%의 공용녹지를 확보하였으며 바르셀로나 22@의 경우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조인재가 야외에서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클러스터 조성을 할 경우에 건물만 구획하여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구역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분산해서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클러스터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전략

클러스터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구축전략은 해당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인재 간 재교육과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특정 분야의 개별 창조성을 증가시키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클러스터 차원에서 관련 분야의 창조인재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창조인재 대상 설문조사에서 창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1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회사직원들의 훈련 학습기회가 3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있어서는 2번째로 만족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순위가 아니라 점수를 비교해 볼 경우 학습기회의 중요성은 3.56점인데 비하여 2.61점으로 약 1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5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클러스터 내에서 학습기회가 그리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훈련기회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므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때 지속적인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창조인재가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조사를 진행시켜 교육과정과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인재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지원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큐베이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창조인재 창업이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창조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창업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창조인재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들고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허가 절차에 대한 법적 정보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및 회계 등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큐베이팅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경영 및 판로와 관련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컨설팅 지원은 단순 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미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창조인재의 사업아이템 발굴의 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동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테스트와 검증작업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공동작업프로젝트는 여러 창조인재들이 모여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비, 테스트비, 기술적 검증비 등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로, 창조인재가 발굴한 사업아이템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작업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창조인재들이 발굴한 사업 아이템을 시장전문가, 투자자, 기술자 관점 등에서 단계별로 아이템을 보강하여 경쟁력 있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3년 하반기에 ‘창조경제타운’이라는 온라인 형태의 멘투멘 검토작업이 진행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는 지역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아이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창조아이템에 대한 전문가 검증작업은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체 반성을 통해 창조인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가 상호 교류되고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창조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창조공동체 지원사업은 일방적인 컨설팅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조인재들 간의 상시적인 현장 지식들이 상호교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조공동체 지원사업은 운영방식에 따라 온라인 지원사업과 오프라인 지원사업으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클러스터 내(within cluster) 창조공동체 지원사업과 클러스터 간(between cluster) 창조공동체 지원사업으로도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조공동체의 특성 상 단순 정보교환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특정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인재를 중심으로 학습형 창조공동체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특정 분야에서의 창조적 아이디어 교류가 반드시 클러스터 내로 한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온라인 형태를 취하면서 클러스터 간 창조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공동체의 네트워크 범위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밀도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정보만 떠돌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창조인재의 수요에 맞추어 창조공동체의 범위를 다양화시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내의 창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은 대표적인 창조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다. 창조인재는 다른 인력들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지역 정체성(identity)이나 명성(reputation)에 대해 더욱 민감한 편이다. 따라서 특정 클러스터 내에 대표적인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이 하나라도 유치될 경우 해당 기관들을 이용하여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정체성도 향상됨으로써 기존 종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조인재 유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6-4〉 클러스터 차원의 소프트 인프라 조성방안

구 분	내 용
창조인재 재교육사업	- 클러스터 수요조사 이후 필요 분야에서 창조인재의 재교육을 추진
창조아이템 인큐베이팅사업	- 기업이 정신의 함양(교육 및 홍보) - 창업 관련 경영 및 판로 컨설팅 지원(단순 교육프로그램을 넘어서 1:1 컨설팅 지원) - 창조인재들의 공동작업프로젝트 지원(아이템 발굴, 시제품제작비, 테스트비, 기술적 검증비 등을 지원) - 창조아이템에 대한 전문가 검토사업 지원
창조공동체 지원사업	- 다양한 형태의 창조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온라인/오프라인, 단순정보교환형/학습형, 클러스터 내부형/클러스터 내외부 교류형 등)
선도적 창조기관 유치사업	- 클러스터 내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창조기관 유치 (추가적인 창조인재 유입 기대할 수 있음)

제3절 추진체계 정비

1.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 단위에서 창조인재 지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창조인재 및 관련 조직 들 간의 사

업추진 시스템,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관련 정책 검토에서도 전술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시스템 내에서 지역 단위의 창조인재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산업 영역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이 존재하거나 창조도시라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인력과 같은 창조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머니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처별로 파편화된 접근 방식으로 창조인재 또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법률 역시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산업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 미래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농림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다기화되어 있다.

하지만 창조인재를 위한 창조환경 조성 전략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단위·클러스터 단위의 접근과 물리적·소프트 인프라의 접근이 융합·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창조환경 조성 사업들이 다양한 정책수단과 영역이 하나의 계획목표와 정책 프레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단위에서 수립되는 중기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에 근거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균특법 제4조)이 있다. 계획기간을 2014년~2018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수립 중에 있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되게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수립되는 발전계획이므로, 그 계획의 위상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주민생활기반확충,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성장축진지역, 특수상황 지역,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개발 등의 내용을 부문별로만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창조인재를 위한 창조환경 조성은 인력양성에서부터 아이템의 사업화, 기업 지원, 물리적 인프라 조성 등이 종합적이고 패키지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창조인재에 대한 육성계획을 포함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편제가 바뀔 필요가 있다.

〈표 6-5〉 창조환경 조성계획의 도입에 따른 균특법의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②항에 지역의 창조인재 육성 및 창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②항에 창조인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p>〈법조항 신설〉</p> <p>제00조 (창조환경의 조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창조인재의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창조성 증진 방안 3. 도시 전체적인 창조인재의 유인 및 창조성 증진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4. 특정 지구 내에서의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따라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별도로 창조인재 및 창조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시·도 발전계획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조항들(균특법 제4조, 제7조)에 창조인재 조항을 추가하고, 각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개별 법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처럼 창조인재 지원에 대한 사항도 별도의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되는 법조항에는 다음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창조인재의 양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에는, 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창조인재의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② 지역주민의 창조성 증진 방안 ③ 도시 전체적인 창조인재의 유인 및 창조성 증진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④ 특정 지구 내에서의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정 지원 방안

위와 같은 취지하에 수립되는 창조환경 조성계획은 새로운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재원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국가 역시 긴축재정에 들어서고 있으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어 「경제혁신3개년계획('14.3.5)」 및 「지역경제활성화대책('14.3.12)」에서 시·도 자율사업인 포괄보조금을 약 1조 원 확대하기로 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14.10.16 보도자료). 그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총 예산이 2014년 9.4조원에서 2015년 10.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시도 포괄보조금에 해당되는 생활기반계정이 3.5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생활기반계정은 과거의 지역계정에 해당되는 회계계정으로 재정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 지역 단위의 창조환경 조성사업 역시 특정 지역의 관점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창조인재와 관련 활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생활기반계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 단위에서 수립되는 창조환경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역발

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기반계정의 포괄보조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표 6-6〉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변화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전 체	9,4조	10.1조
경제발전계정	5조 5,398억	5조 1,123억
생활기반계정	3조 4,773억	4조 4,852억
제주계정	3,443억	3,698억
세종계정	-	1,022억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14.10.16 보도자료

3. 협력적 사업체계 구축

가. 기본방향

창조인재의 발굴·활용, 창조적 아이디어의 교류, 융합화 및 사업화, 창조적 문화공간 및 도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창조인재와 기업, 연구소 등의 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체계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획과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지방 자율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먼저, 지방주도적인 창조환경 조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정책 기획,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지자체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치단체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내 창조인재에 대한 발굴 및 조

사를 추진하고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 지원조직 및 민간컨설팅회사 등의 폭넓은 정책 참여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6-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구 분	역 할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설계 및 재원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한 컨설팅 - 창조환경 조성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광역지자체 간 사업 추진의 경험 및 교훈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지원 - 중앙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입각한 창조인재 육성 방향 결정 - 지역내 창조인재의 특성 및 발굴을 위한 조사 - 창조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 지역내 관련 창조인재, 지원조직, 주민의 의견 수렴 - 지역내 협력적 사업추진시스템의 운영

나. 중앙의 추진기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지만, 창조환경 조성계획이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간의 협업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정부 3.0이 추진되면서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호기회를 활용하여 창조환경 조성에 대한 협업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창조환경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창조환경 지원정책은 그 우선적인 효과를 지역 단위로 보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 창조환경조성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의 관련 사업들을 창조환경사업이라는 포괄보조군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역 단위의 정책들을 새롭

게 개편하고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문화부 등 관련 국에서 지역 단위의 창조환경 경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회 산하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신설조직을 둘 경우에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추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 방식은 기존에 유사한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 단위의 창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창조경제위원회’(제5조)의 기능을 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의 부처간 심의기구로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래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해당 창조경제위원회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 창조경제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부처간 협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기능과 아울러, 지역 단위의 창조환경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와 사업추진실적 점검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부처 단위의 협업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비록 전담 주관기관으로서 미래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은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미래부가 지역 단위 사업이 그리 많지 않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다. 지방의 추진기구

창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 단위에서도 공공, 민간, 공공 지원조직, 연구소, 대학, 창조인재 등과의 협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경제와 인재양성과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역문화원, 사이언스파크 등이 존재하며, 해당 공공 지원기관들이 여러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기획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을 위해서는 민관의 참여와 전문가적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단위와 마찬가지로 가칭 ‘창조환경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창조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조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조환경 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도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절 요약

최근에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 창조인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 들어 ‘창조’라는 화두가 공식적인 정책의 장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창조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교육이나 창조실험실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내 유희공간 및 시설의 재개발사업,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등을 추진하여, 창조인재들에게 새로운 작업공간과 문화공간, 도시환경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이제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인재를 지역 내에 유치(attract)·유지(retain)시키는 데에 경주해야 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창조인재 맞춤형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조인재의 유인과 유지라는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mobility)을 촉발하는 환경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창조인재 및 창조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창조환경의 개념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 단위의 창조환경과 지구 단위의 창조환경을 구분하였으며 또한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구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창조인재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창조환경 요인들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창조인재의 지리적 분포현황과 창조환경 조성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창조인재의 지리적 분포 현황은 시·도별, 시·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창조인재의 절대수치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창조인재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LISA 분석 결과, 2008년에 고립적이기는 하나 창조인재의 집중지를 형성했던 광주(창조인재 전체, 창조전문인력)와 전주(문화예술인력)가 2012년에는 집중지에서 제외되는 등 비수도권의 창조인재 집중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앙부처의 관련 시책으로 미래부, 국토부, 문화부, 농림부 등의 창조환경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각기 중앙부처의 전문화된 영역에 한정하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이 지역 단위, 즉 지역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4장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창조인재의 지리적 이동성과 창조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력과 기술인력, 그리고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종사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창조인재의 주거 선택에 따른 지리적 이동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집적지구 내에 창조성 친화적 환경이 창조인재의 업무만족도 향상과 그에 따른 직장 이동 여부도 파악하고 있으므로, 비공간적인 범역에서 창조인재를 설문조사하지 않고 특정 집적 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창조인재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특정 지구, 클러스터 내의 업종교류활성화요인, 문화어메니티요인 등이 직장 이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리적 이동의 관점에서 창조인재는 서구의 창조인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과 달리 우선적으로 창조환경의 구성 요소 중 경제적 요인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항 로짓분석의 결과, 희망하는 주거 이전 대상지가 대도시일 경우에는 창조인재의 개인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어메니티 요인이 중요함을 보여줘, 기존 지역내 창조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문화어메니티에 대한 투자를 감행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5장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창조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창조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예술인력을 위한 창조환경지구인 중국 798예술구, 연구인력을 위한 영국 서리 연구단지, 그리고 IT 및 문화예술인력을 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로는 부산과 창원의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재생 노력을 소개하였다.

제6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창조인재의 특성과 성공적인 창조환경을 고려하여 창조인재를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지역 단위에서의 창조환경의 물리적 및 소프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핵심전략과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상기 핵심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 준비를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창조인재를 위한 창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방향과 4대 핵심전략 영역을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준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방향

창조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창조인재 육성과 산업클러스터의 연계 개발, 둘째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의 융복합적 추진, 셋째 중앙-지방과 공

공-민간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 세 가지이다.

우리나라 창조인재의 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 창조인재의 이동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요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인재 육성과 경제활동 간의 불가분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창작공간, 생산공간, 문화공간 등의 물리적 인프라와 아울러 창조인재들 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 인프라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창조인재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해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조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핵심전략

상기 세 가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본 연구는 공간적 범역(도시 단위/클러스터 단위)과 정책수단(물리적 인프라/소프트 인프라)의 구분에 따른 4대 핵심전략영역을 제안하였다. 먼저, 도시차원에서 어메니티를 조성하는 물리적 인프라 전략은 창조인재의 유인과 유지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내 유희시설 활용이나 재생을 통하여 문화융·복합지구를 지정하고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이나 기존 시가지 수복에 있어서 근린어메니티와 환경어메니티적 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창조체험공간을 운영하여 도시 내 다양한 분야의 창조인재, 비창조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창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내 소프트 인프라 핵심전략(융합교류사업, 창조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창조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클러스터 물리적 인프라 전략(융합중심지구, 창작아이디어공작소, 환경어메니티 제공)이 제안되었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정책과 달리, 창조인재를 위한 융합중심지구에는 개별 창조인재들이 활동, 실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창조인재의 개별 창조성을 개

발, 발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소프트 인프라 전략(재교육, 인큐베이팅, 창조공동체, 선도기관 유치)이 추진되어야 한다. 선도기관 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성을 도입하여 다른 창조인재들이 자연적으로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추진체계 정비

지역 단위에서 창조환경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 계획시스템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부처 사업은 각 부처의 기능(예를 들어 국토부는 공간, 미래부는 인재 지원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창조환경 조성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하나의 계획목표와 정책 프레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창조환경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법에 창조환경 조성계획의 내용을 기술하는 신설 법 조항의 내용으로, 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창조인재의 조사·발굴에 관한 사항 ② 지역주민의 창조성 증진 방안 ③ 도시 전체적인 창조인재의 유인 및 창조성 증진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④ 특정 지구 내에서의 창조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 및 물리적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창조환경 조성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는 9.4조 원이고 2015년 10.1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이는 지방주도적인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창조환경 조성사업은 국가적 효율성보다는 해당 지역의 효율성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생활기반계정에 편입되어야 한다.

한편, 협력적 사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중앙 단위의 정책설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광역지자체간 상호교류 지원 및 중앙부처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창조인재에 대한 조

사 및 창조환경 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 내 민간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력적 사업추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부처 간·지자체 간 협업을 위하여 중앙 단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내에 창조환경분과를 구성하거나 창조경제위원회가 담당하는 심의조정 업무를 창조환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 단위에서는 가칭 ‘창조환경 정책위원회’의 설립과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강홍빈, 2010, “‘창조환경’의 계획적 개발과 지속가능성: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경험”, 「서울도시연구」, 11(2): 259-267.
- 고석찬, 2004, 「지역혁신 이론과 전략」, 대영문화사.
- 고정민, 2009, 「창조지구, 문화생산의 전위」, 커뮤니케이션북스.
- 구문모, 2005,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6(4): 101-120.
- 구문모, 박정수, 2014,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 정책의 함의”, 「지방행정연구」, 28(1): 115-139.
- 국토교통부·창원시, 2014, 「창원시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 권오혁,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국토」, 380: 14-21, 국토연구원.
- 김경수, 2010, “산복도로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의 시발점”, 「BDI포커스」, 65, 부산발전연구원.
- 김성희, 2009, “북경 따산즈 798 지역 변천과정을 통해 본 예술시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15: 97-124.
- 김성희, 2011, “예술 창작촌의 형성요인과 문화예술 콘텐츠화에 관한 연구: 북경 따산즈 798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4(1): 53-76.
- 김영인, 여홍구, 2009, “도시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도시의 창조성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4(2): 1-14.
- 김우봉, 2012, “창의산업 클러스터: 따산즈 798 예술구 태동과 발전의 사례로 본 기회의 확산과 관심효과”, 25(5): 2531-2554.
- 김태경, 2010, 「창조도시이론과 미래도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태만, 2008, “따산즈(大山子)예술촌과 베이징의 도시문화 아이콘”, 「동북아 문화연구」, 17: 221-248.
- 김태만, 2009, “베이징의 창의도시 전략과 창의산업클러스터의 특징”, 「동북아문화연구」, 19: 279-297.
- 김혜민, 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정책에 관한 연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방행정 정책연구」, 1(2): 25-54.
- 김홍주·박기풍, 2010,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국토계

- 획」, 45(1): 251-264.
- 박진경, 2011,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성 분포특성과 증대방안”, 「창조적 지역발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4, 「창조도시 재생 :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재생 3년 성과」.
- 사사키 마사유키, 2008, “네트워킹을 통한 창조도시 개발: 일본의 창조도시”, 「문화도시컨퍼런스 ‘대도시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도시 간 연대’ 발표자료집」.
- 사사키 마사유키, 종합연구개발기구, 저, 2007, 이석현 역, 「창조도시를 디자인하라: 도시의 문화정책과 마을만들기」, 나노미디어.
- 서연미, 2013, “외국의 창조경제활성화정책 동향”, 「국토」, 380: 44-51, 국토연구원.
- 오은주, 2011, “창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사례와 활성화방안”, 「창조적 지역발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손완주, 2013, “시민과 함께 완성한 창동예술촌”, 「地方行政」, 722: 46-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윤준도, 2008, “바르셀로나의 창조도시 전략과 시사점”, 「국토」, 321: 84-95.
- 이희연, 2008a,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서울을 사례로”, 「국토연구」, 58: 71-93.
- 이희연, 2008b, 창조도시: 개념과 전략, 「국토」, 322: 6-15.
- 임상오, 2008,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전략”, 「국토」, 322: 16-23, 국토연구원.
- 장재홍 외, 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 전지훈, 2013, “창조산업 클러스터에서 창의적 환경의 수요자지향연구”, 「문화정책논총」, 27(2): 193-219.
- 조성철·임엽, 2009, “창조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367-384.
- 조유리 외, 2013, 「지역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 2014.10.16 보도자료, “내년도 지역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차두원,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산업활성화방안”, 「국토」, 380: 6-13, 국토연구원.
- 창원시, 2012, 「마산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 최해옥, 2012, “창조환경을 위한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구조적·공간적 특성: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7(3): 375-389.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스페인의 혁신지구 22@바르셀로나”, 「클러스터정책 Brief」, 36.

- 한동효, 2013,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형성과정의 특성분석 : 파산즈(大山子) 798 예술구와 창동 예술촌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8(2): 55-94.
- 한령, 2013, “베이징 798 예술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12: 159-182.
- 한혜경, 2010, 「꿈꾸는 미술 공장 베이징 일기」, 세미콜론.
- Ajuntament de Barcelona, 2012, 22@ Barcelona Plan.
- Becker, Gary 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9-49.
- Camagni, R. et al., 1991, *Innovation Network: Spatial Perspective*, London: Belhaven Press
- Castells, M. and Peter, H., 1994, *Technopoles of the World: The Making of 21st Century Industrial Complexes*, London: Routledge.
- Cooke, P., Morgan, 1993, “The Network Paradigm: New Departures in Corporate an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11: 543-564.
- Coy, P., 2000, The Creative Economy, *Business* (online): August 28.
- Currid, E., 2007, *The Warhol Economy: How Fashion, Art, and Music Drive New York City*, Princeton University, 최지아 역(2009), 「세계의 크리에이티브 공장 뉴욕: 뒷골목 아티스트들이 이끄는 뉴욕의 예술경제학」, 쌤앤파커스.
- Darchen, Sebastien, and Diane-Gabrielle Tremblay, 2010, "What Attracts and Retains Knowledge Workers/students: the Quality of Place or Career Opportunities? The Cases of Montreal and Ottawa.", *Cities*, 27(4): 225-233.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이길태(역)(2002),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 Florida, R., 2005, *Cities and Creative Class*, Routledge.
- Glaser, E.L., 2005, “Review of Richard Florida's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5): 593-596.
- Hansen, Høgni Kalsø, and Thomas Niedomysl, 2009, "Migration of the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Wwede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9(2): 191-206.
- Harvey, David C., Harriet Hawkins, and Nicola J. Thomas, 2012, "Thinking Creative Clusters beyond the City: People, Places and Networks." *Geoforum*, 43(3): 529-539.

- Howkins, J., 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Penguin Books.
- Jacobs, J., 1985,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 Vintage.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임상오(역). (2005), 「창조도시: Creative City」, 서울: 해남.
- Lawton, Philip, Enda Murphy, and Declan Redmond, 2013, "Residential Preferences of the 'Creative Class'?" *Cities* 31: 47-56.
- Lundvall, B., 1992,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Toward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Publishers, London.
- Martin-Brelot, Helene, et al., 2010, "The Spatial Mobility of the 'Creative Class': A Europea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4(4): 854-870.
- Musterd, Sako, Julie Brown, Jane Lutz, John Gibney and Alan Murie, 2010, *Making Creative-Knowledge Cities: A Guide for Policy Makers*, Amsterdam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AISSR), University of Amsterdam.
- Parry, M., 2012, "The Surrey Research Park; A Case Study of Strategic Plan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World Technopolis Review*, 1: 206-225.
- Parry, M. and P. Russel, 2000, *The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cience Parks*, United Kingdom Science Park Association.
- UKSPA, 2013, *Review of The Surrey Research Park*.
- UNCTAD,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The Challenge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making*.

■ Abstract

Creative Milieu: Characteristics and Spatial Mobilities of Creative Talents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try to transform their economy into creative economy by investing on the promotion of creative milieu. Particularly, this study addresses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mobility of creative talents, one of major components of creative economy and thus it can say what factors of regions can attract and retain the talents.

Chapter 2 discusses the existing literatures on creative economy, creative talents, and creative milieu and constructs analytical framework of the factors related to attraction and retainment of creative talents. Chapter 3 gives general pictures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growth of creative talents at Si-Gun level and also evaluates current policies and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in regard to regional creative economy policy, which cannot be considered as genuine creative policy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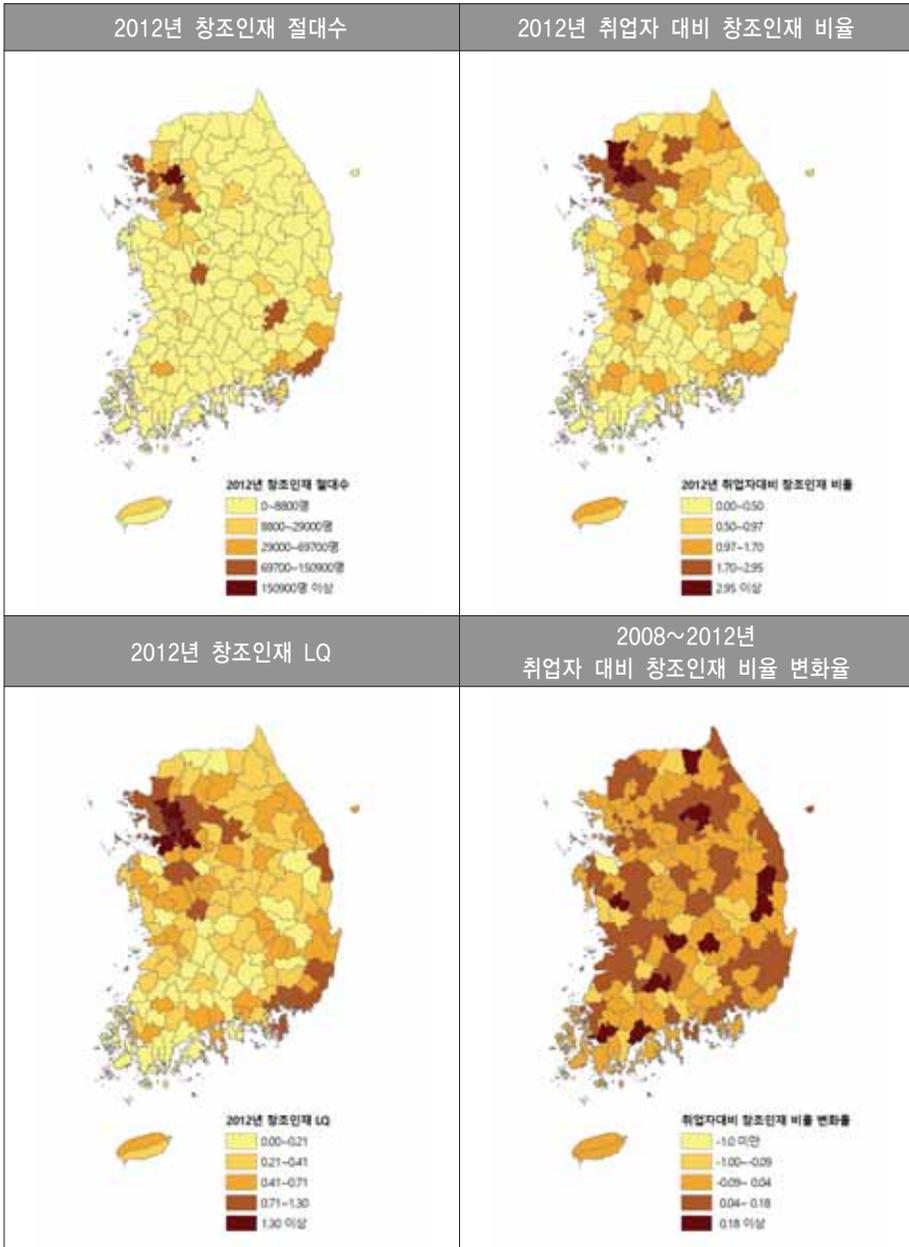
Chapter 4 tries to establish prerequisites for creative milieu that attracts and retains creative talents and enhances the creativity of the talent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carries the questionnaire survey to creative talents in Seoul Digital Media City and O-song Bio-science Technopark: cultural employers, technical employers in cultural industry; and researchers.

Chapter 5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ies by reviewing literatures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successful creative milieu strategy. For domestic cases, the strategies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hangwon city are examined. In addition, Beijing Dashanzi Art District 798 is reported as a case of the milieu for cultural employees. Surrey Research Park is explored as for researchers, and finally Barcelona 22@ project is examined as for cultural and technical employ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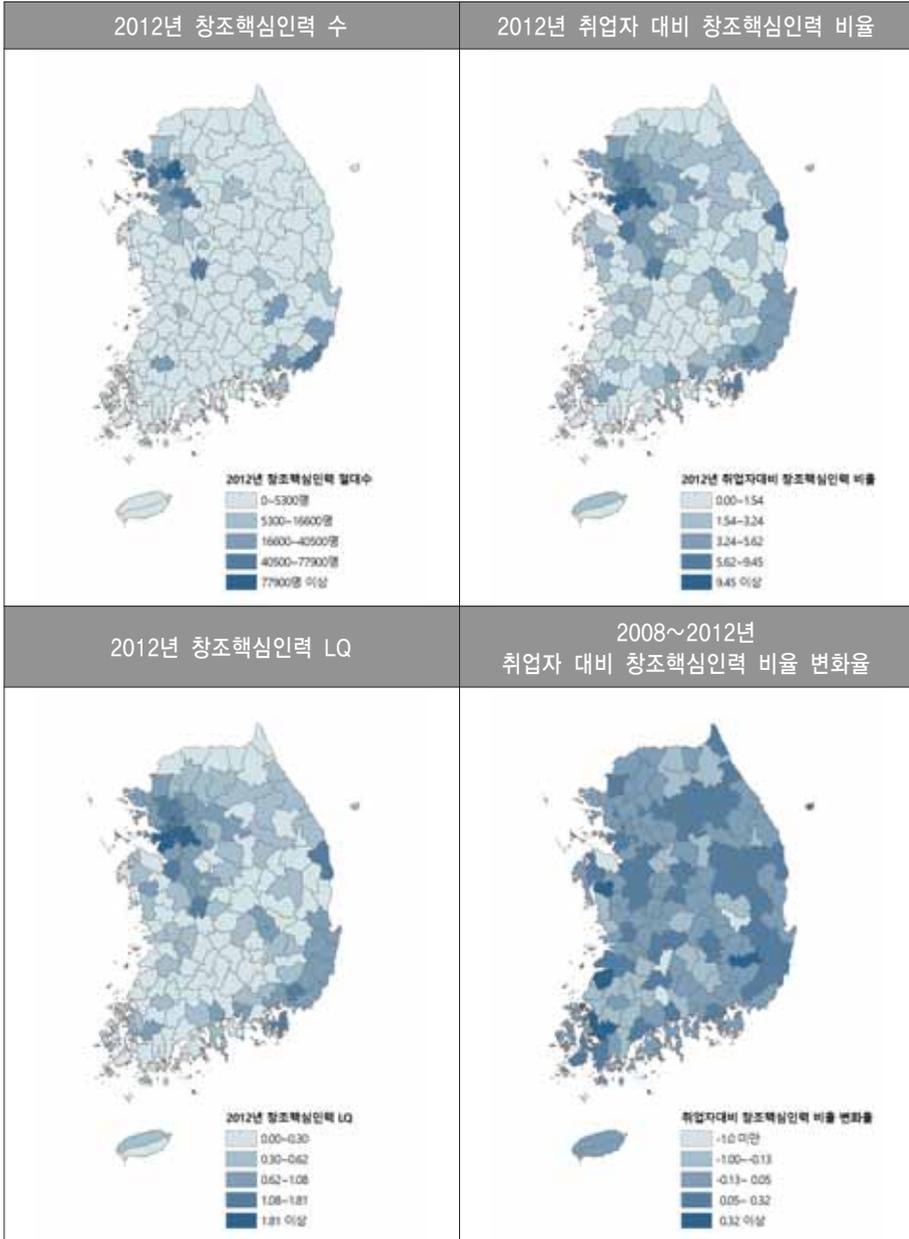
Chapter 6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promote creative milieu for creative talents. The main logics of the recommend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balanced view between industrial cluster policy and talent support policy; convergence of physical and soft infrastructure; and good governanc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부록 : 창조인재 매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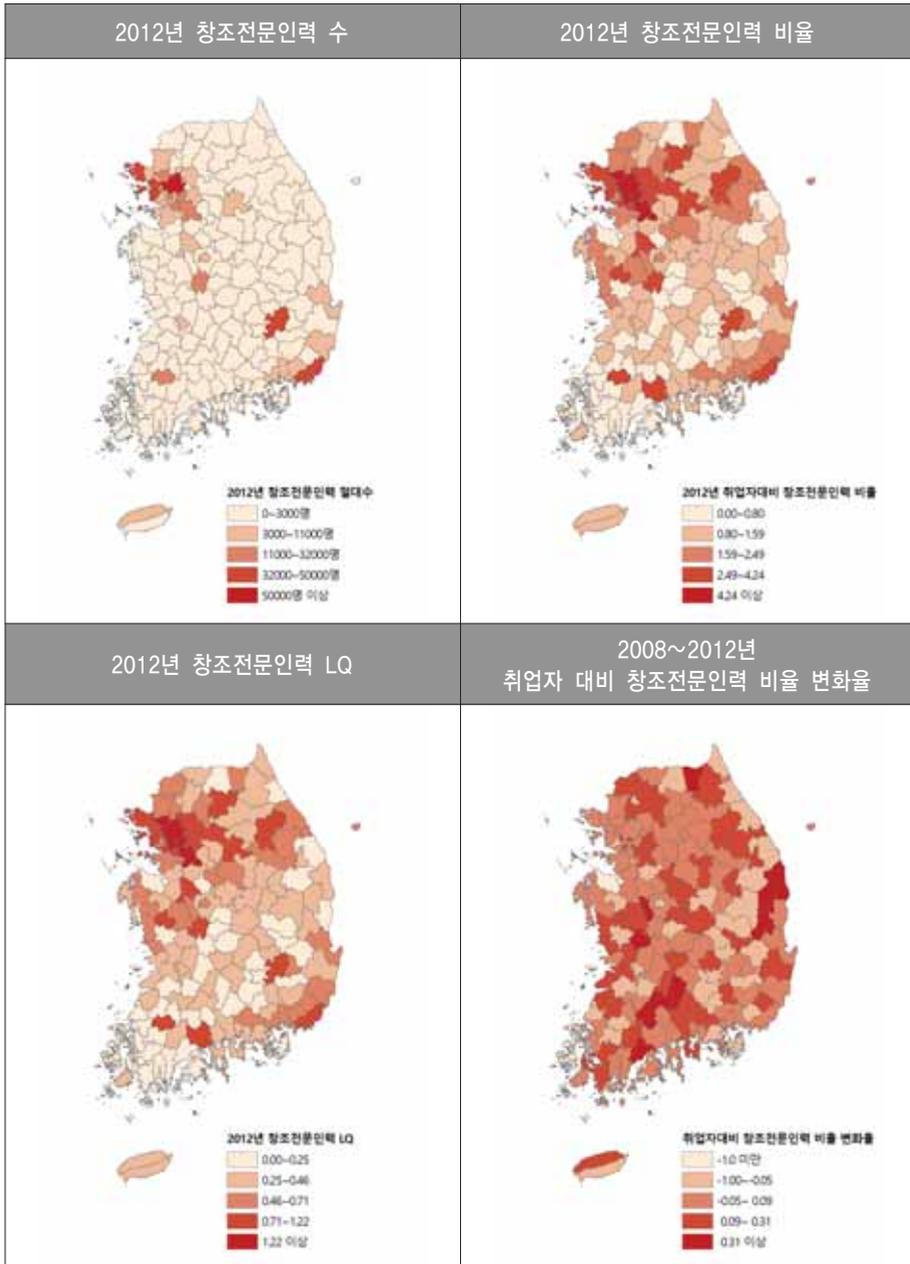
〈그림 7-1〉 창조인재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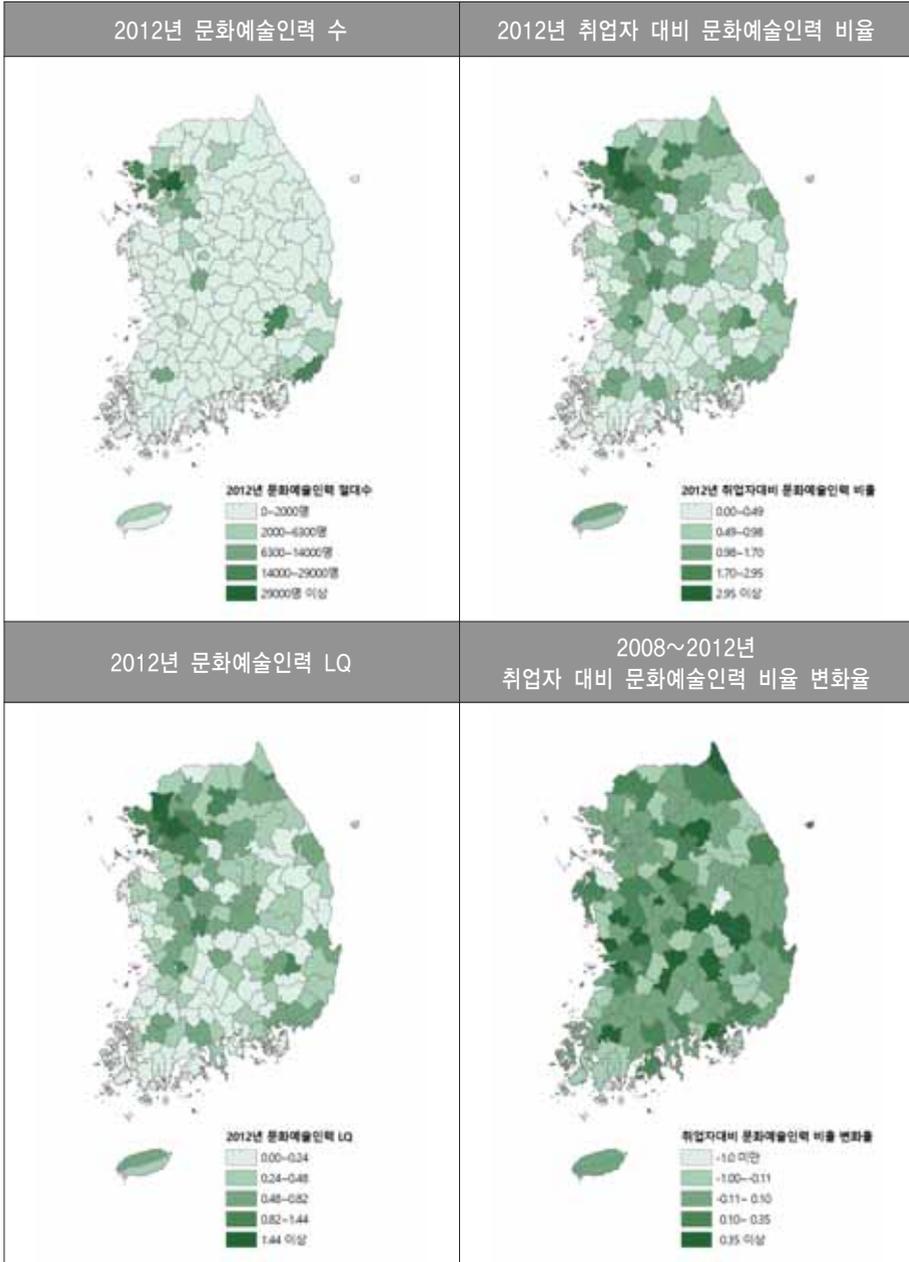
〈그림 7-2〉 창조핵심인력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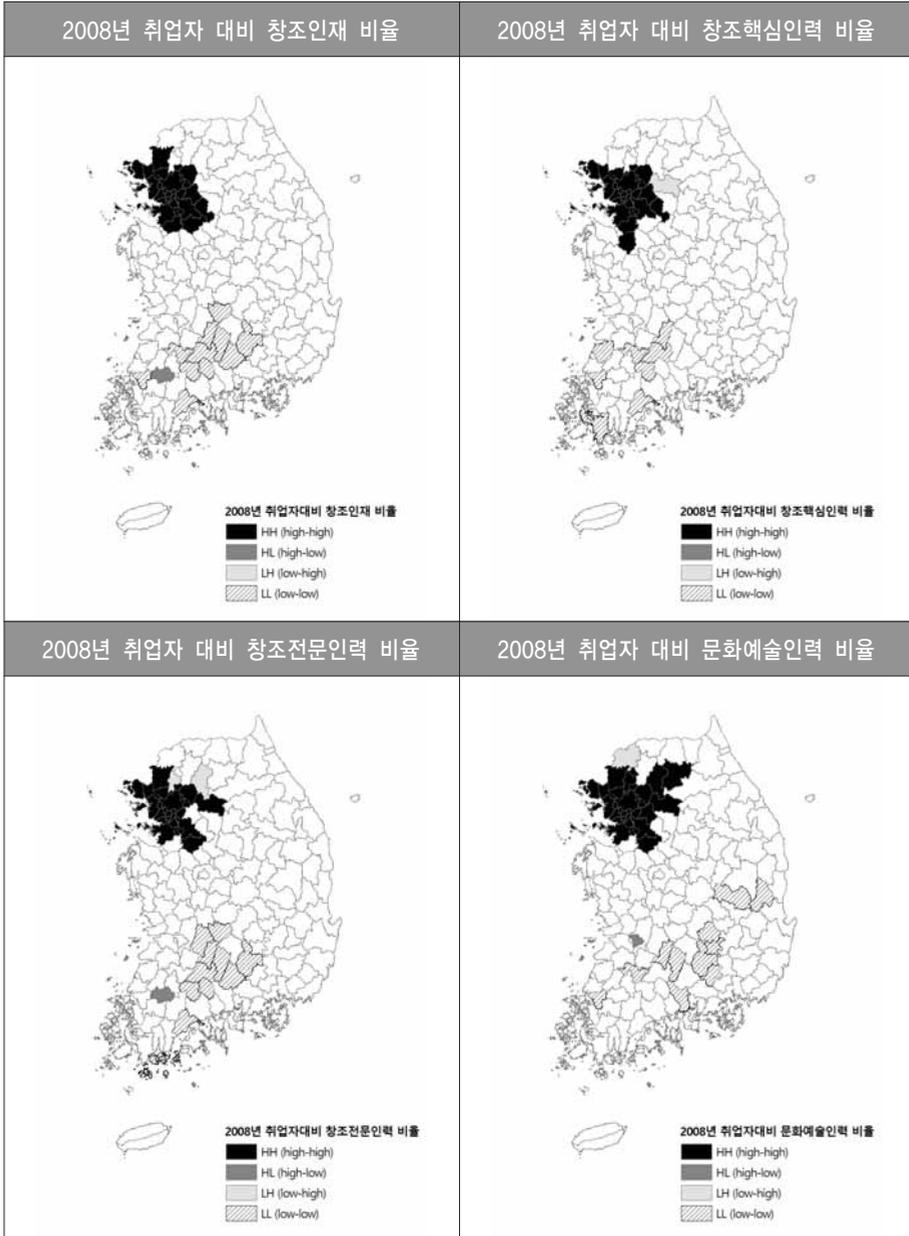
〈그림 7-3〉 창조전문인력의 분포현황



〈그림 7-4〉 문화예술인력의 분포현황



〈그림 7-5〉 취업자대비 창조인재 비율의 LISA 분석(2008년)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 승 종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Tel. 02)3488-7300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http://www.gpcbooks.co.kr>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7865-406-7